

2021 연수문화재단 국제교류 사업

Connected City - Songdo Project
'커넥티드 시티 - 송도 프로젝트'



Connected City - Songdo Project

I

사업소개

Introduction



사업소개

연수문화재단은 '동행문화도시', '스마트시티' 등 국제미래도시 연수 구현과 국제 교류 콘텐츠 발굴을 위해, 프로듀서 그룹 도트와 <커넥티드 시티 - 송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국제도시 송도'와 아시아 도시를 배경으로 온·오프라인 리서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국내·외 문화기획자(아티스트)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송도와 아시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연결 고리를 발견하고 향후 아시아 도시와 연계한 '예술 프로젝트의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커넥티드 시티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화기획자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주요한 공통의 요구와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서치 마지막 과정으로 오픈 워크숍을 진행하여 예술가의 관점으로 발견한 국제도시 송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 리서치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합니다.

참여단체

프로듀서 그룹 도트

프로듀서 그룹 도트는 연극, 무용, 거리예술, 서커스, 다원예술 분야에서 축제, 공연제 작, 해외 투어 기획·운영, 국제 네트워크 기획, 연구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프로듀서 콜렉티브 단체입니다. 프로듀서 그룹 도트는 작은 점에서 출발,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공연예술의 창의적 확장을 지향하며, 신나고 재미있는 생각과 일들을 나눕니다.

Producersgroupdot.kr

프로젝트 참여작가

박지선 | 최석규 | 임현진 | 송주원 | 김보람(한국) | Lynn Fu(중국)
Ian Leung(홍콩) | E-Jan Tan(말레이시아) | Tso Hachieh(대만)

Introduction

The Yeonsu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conducted project named "Connected City - Songdo Project" including 'City of Companion Culture' and 'Smart C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Producer Group Dot in order to transform Songdo into an international future city and discover contents for international exchange.

This project was conducted in the form of on/offline research with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 City of Songdo' and Asian cities, and joined by domestic and foreign cultural planners and artists from Korea, Hong Kong, and Malaysia.

The project discovered the link between Songdo and Asian citie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rt projects in connection with Asian cities in the future.

Although many among the resources contributing to a connected city may appear different and diverse from a cultural planner's perspective, they share major needs and questions in common.

So, as the last phase of our research, an open workshop was held to talk about the international city of Songdo from the perspective of an artist. The research process and results will be shared through this booklet.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roducer Group Dot

Producer Group Dot is a professional collective producer group with various experiences encompassing play, dance, street art, circus, and multidisciplinary arts, festivals, performance production, overseas tour planning and operation, international network planning, and research projects. Starting from a small point, the Producer Group Dot aims is creatively expanding the performing arts through active networking, and sharing exciting and fun ideas and events.

Producersgroupdot.kr

Project Participating Artist

Park Jisun | Choi Seok Kyu | Yim Hyunjin | Song Joowon | Kim Borahm(Korea)
Ian Leung(Hong Kong) | E-Jan Tan(Malaysia) | Tso Hachieh(Taiwan) | Lynn Fu(China)

기획배경

Background of Planning



기획배경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는 2017년 시작한 도시 예술 프로젝트로, 도시, 예술, 기술, 재생, 협업의 키워드를 가지고 기술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 예술적으로 사유한다. 2017년에는 서울역, 동대문, 청계천 일대를 중심으로 공연, 시각, 건축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 기획자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바있다. 커넥티드 시티는 아시아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북미, 유럽과는 다른 시간성과 공간성에 주목한다. 특히 단기간의 급격한 개발과 성장을 통해 형성된 아시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그 속에 압축된 근현대사의 정치, 경제, 문화, 삶을 예술적 시각으로 발견하고자 한다.

커넥티드 시티 2021은 국제도시 송도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25년까지를 계획으로 국제업무 지역을 비롯한 주거·상업·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송도는 해안가 간척지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본 리서치에서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들어오며 쌓이고 역이는 혼종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다공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지?), 와 열린 도시의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예술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 도시의 '국제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서치 해보고자 한다. 리서치는 한국과 아시아의 프로듀서와 예술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한국 참가자는 송도를 중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하며, 아시아의 프로듀서는 자신의 도시를 중심으로 리서치 진행 후 동시대 아시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연결 고리를 발견하고, 향후 아시아 도시 연계 예술 프로젝트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커넥티드 시티 Connected City는 빠른 도시의 변화를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예술 프로젝트로,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서울 속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나 일상 도시를 새롭게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7 **주최** 영국문화원,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커넥티드 **주관** 프로듀서그룹도트, 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산책,
시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https://youtu.be/xT6UPz-JIE8>

프로그램 · 뮤직시티 · 메이커 시티
 · 플레이어블 시티 · 스토리텔링 시티
 · 퍼포밍 시티 · 시티 컨퍼런스



사업개요

Business Overview

- 14 개요 Overview
- 사업구조 Structure
- 참가자 Participants
- 20 리서치 일정 Research Schedule

사업개요

개요

- 사업명 : 커넥티드 시티 2021-송도 프로젝트
- 기 간 : 2021년 6월-11월
- 장 소 : 송도, 온라인 플랫폼
- 기 획 : 프로듀서 그룹 도트
- 협 력 :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

사업구조



참가자

국가	이름	역할	비고
한국	박지선	프로듀서	APP 구성원
	최석규	프로듀서	APP 구성원
	임현진	프로듀서	APP 구성원
	송주원	안무가, 댄스필름 감독	예술가
	김보람	다원예술 작가	예술가
홍콩	Ian Leung	프로듀서/홍콩아트센터	APP 구성원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E-Jan Tan	독립 프로듀서	APP 구성원
대만/가오슝	Tso Hachieh	독립 프로듀서	APP 구성원
중국/상하이	Lynn Fu	프로듀서	APP 구성원

김보람 게임의 여러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이 스토리를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씨어터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공연 경험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게임의 유연한 변천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모바일 앱, 입체음향, AR, VR 등의 미디어를 활용하여 관객의 공연 경험을 넓히는 작품을 만든다.

크리에이티브 그룹 '무제의 길'의 연출가이며 <플러그인 시티>(2017), <닐스의 모험을 위한 인덱스>(2018), <3D 사운드 기술을 통한 극장 실험>(2019), <무제의 공간>(2020) 등을 제작했다.

최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면서 인간-비인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기후변화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나무들을 이동시키는 보드게임 형식의 작업 <움직이는 숲>(2020~)을 개발 중이다.

송주원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이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시간이 축적된 도시의 장소를 주목하고 변형되고 사라지는 도시 속 공간에 몸짓으로 말을 걸고, 질문하기를 반복하면서 서사를 중첩시킨다. 도시 공간에 투영된 삶에 관한 질문을 특정 장소의 리서치와 퍼포먼스, 전시, 상영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작업으로는 열두편의 <풍정.각(風情.刻)>시리즈,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 처럼>, <환.각(幻.刻)> 등이 있다.

임현진 독립 프로듀서이자, 축제 프로그래머, 국제교류 코디네이터로 일한다. 공동체를 위한 예술, 공간 민주화의 관점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도를 지속하며, 기획자이자 연구자로 활동의 반경을 점차 넓히고자 한다. 다수의 거리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해외 투어를 포함하여 공연예술축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의 국제교류와 기획 업무를 맡아 왔으며, 현재는 포항거리예술축제의 프로그래머이자 삼일로창고극장의 공동운영단으로 일하고 있다.

박지선 연극, 무용, 다원,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이다. 2000년대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하고, 한국 동시대 공연예술의 해외 투어, 국제공동제작 등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2010년대 국제 네트워크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 개발 및 운영, 도시와 예술, 경계, 아트앤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새로운 탐험을 하며 예술의 동시대성을 탐구하고,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커넥티드 시티, DMZ 리서치 랩, 디지털 시대의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020년부터 기후변화 예술가 레지던시와 무용기술창작랩을 기획하고 있으며, 현재 프로듀서 콜렉티브 도트(Producer Group DOT)와 Asian Producers Platform(APP)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석규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화두인 '예술과 도시',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예술과 테크놀로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작 리서치 레지던시, 랩, 워크숍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춘천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한-영상호교류의해 2017-18 등의 공연예술축제에서 예술감독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 제작을 했다. 2005년 창립한 아시아나우(AsiaNow)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연극의 국제교류, 다양한 국제공동창작, 국제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듀서와 드라마투르기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프로듀서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Asian Producers Platform(APP)'과 APP Camp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안 룡(Ian Leung) '홍콩 아트센터(Hong Kong Arts Centre, HKAC)'에 합류하기 전 5년 간 '홍콩 예술제(Hong Kong Arts Festival)'에서 일하며 공연예술의 프로그래밍, 프로듀싱, 투어링, 관객 개발 및 교육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 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아트센터'에서 공연예술, 공공예술, 그리고 관객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큐레이팅이나 프로듀싱을 한 작품으로는 홍콩과 브뤼셀 간의 복수예술 레지던시 공연 교환을 통한 컨템포러리 예술가들의 연결 프로젝트로 '레알드샤에벡(Les Halles de Schaerbeek)'과 함께 진행한 '아트 액츄얼리(Art Actually)',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조성 된 대규모 공공 예술 프로젝트인 '하버 예술 조각 공원 2018(Harbour Arts Sculpture Park 2018)', 2018년에 시작 된 학제 간 연구와 실험적 접촉에 기반한 관객 개발 캠페인인 '문화 안마사 - 드라곤릭스 복수예술 축제(Cultural Masseur - Dragonix Multi-arts Festival)', '바이어 노스 포인트(Via North Point)'와 '피날레 축제(Finale Festival)'가 만든 도시 디자인 캠페인 '예술과 건축(Art and Architecture)' 등이 있다.

이잔 탄(E-Jan Tan) 말레이시아에서 활동 중인 창작물 제작자이다. 다원예술 창작물의 인큐베이터로서 작품의 전세계 투어를 진행하는 ‘토카타 스튜디오’(Toccata Studio)의 공동 창립자이다. 프랑스 파리와 낭트에서 개최되는 프랑스 문화부 문화 세미나와 한국의 IETM 위성회의 등 문화 행사 발제자로 정기적인 초청을 받았다. ISPA 글로벌 펠로십(ISPA global fellowship)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호주 문화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의 예술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제작자 플랫폼 운영 위원회(Asian Producers’ Platform steering committee) 위원이기도 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INXO 문화예술재단(INXO Arts and Culture Foundation)의 CEO를 역임했다. 미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츠오 하치예(Tso Hachieh) 대만 가오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 프로듀서이며,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구성원이다.

린 푸(Lynn Fu) 상하이로 거점으로 활동하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컨설턴트다. 린은 상하이와 뉴욕 주재 영국문화원에서 수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중국 내 다양한 극장, 축제, 기관들을 위한 국제 프로그래밍과 협력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다. 그녀는 ‘APAM(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호주아트마켓)’의 큐레이션 패널과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의 ‘메이드 인 스코틀랜드(Made in Scotland)’ 쇼케이스의 일원이다. 린은 ‘국제공연예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Performing Arts, ISPA)’의 글로벌 펠로우다. 그녀는 오클랜드의 거점을 둔 ‘모던 마오리 콰르텟(Modern Maori Quartet)’을 대표하며 이 컴퍼니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30개 도시에 걸친 투어를 했다. 그녀는 상하이의 문화 기관들이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접근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트 액세스(Arts Access)’라는 플랫폼을 공동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동아시아 지역 내 장애와 포용성을 주제로 상하이 주재 독일문화원과 협업하고 있다.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APP는 아시아 공연예술 프로듀서 네트워킹으로, 아시아 프로듀서들의 창의적인 제작활동 확대와, 이중문화활동 개발, 국내 및 아시아의 창의적 리더 개발을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되어, 2014년 서울, 2015년 타이페이, 2016년 도쿄, 2017년 멜버른, 2018년 홍콩, 마카오, 광저우 APP CAMP를 진행했다.
<https://www.asianproducersplatform.com>

리서치 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한국	7월 6일	온라인 회의 및 데스크 리서치	송도 관련 자료 리서치
	7월12일-14일	공통리서치 - 송도 탐방	
	8월-9월	개별 리서치	
	9월 11일	온라인 회의 및 토론	
	11월 4-5일	공통리서치 - 송도 탐방	
	11월	개별 리서치 정리	
	11월 30일	오픈 워크숍	온라인 (zoom)
아시아	6월 16일	리서치 주제 공유 및 아젠다 셋업 아시아 도시 연결 + 송도 프로젝트 공유	
	7월 7일	예술가, 프로듀서 관점에서 도시에 대해 질문 던지기 케이스 스터디 : 이안 령(홍콩)	
	7월 30일	아시아 도시의 연결의 이유와 필요성 케이스 스터디 : 최석규(커넥티드 시티)	
	9월 17일	도시 관련 8개의 질문 워크숍 케이스 스터디 : 린푸(상하이)<Nice Commune, Free Down Space>	
	10월 15일	도시 관련 8개 질문 워크숍 아시아 도시 커넥션	
	11월 11일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비공개 워크숍	
	11월 30일	오픈 워크숍	온라인(zoom)

Connected City - Songdo Project
'커넥티드 시티 - 송도 프로젝트'

IV

리서치 내용

Research Content

24 Part1-한국 Korea

32 Part2-아시아 Asia

리서치 내용

Part1 - 1) 첫 번째 공통 현장 리서치 한국

(1) 개요

- 일정 : 2021년 6월 12일 - 14일
- 내용 : 연수구 송도, 옥련동(구 송도) 현장 리서치
- 참가 : 박지선, 최석규, 송주원, 김보람, 임현진



6월 12일

- 센트럴파크
- 아트센터 인천
- 오션스코프
- 송도 워터프론트호수
- 인천도시역사관
- 트라이보울
- 인천 글로벌 캠퍼스
- 트리플 스트리트,
아케이드형 상권 일대
- 인천신항
- 인천송도국제캠핑장

6월 13일

- 구 송도 역사
- 송도역전시장
- 옥련시장
- 능허대
- 함박마을
- 아암도
- 인천항크루즈 터미널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송도 시민 텃밭, 안개

6월 14일

- 옥련동
- 아트플러그 연수

(2) 현장 리서치에 대한 인상과 질문들

최석규

-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도시 풍경
- 서로 다른 공간성을 지닌 도시
- 이음 텃밭, 연결의 다리, 경계에서 바라보는 도시
- 걷는 도로를 상상했는데, 걷기에는 부적합한 도시
- 옥련동의 모습, 근대식 아파트, 함박 마을의 서로 다른 공간성
-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왜 국제성을 이야기 하는가? 근대의 시간 변화 속 송도의 국제성과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됨. 개항기의 국제성과 지금의 국제성은 무엇이 다를까?
- 길, 걷는 길, 이동의 매개로서의 길에 대한 고찰
- 사라지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 경계가 지난 공간성, 특징
- 역사/현재의 국제성 의미 탐구
- 도시와 도시재생, 도시 공간과 예술의 연계에 대한 질문
- 지금의 도시 공간은 예술과 어떤 연계를?
- 나에게 도시와 예술의 관계는 무엇인가?
-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도시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아웃사이드 관점에서 국제성은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동시대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성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맥락이 있는 국제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천/송도가 지향하는 국제성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송도의 국제성에 대한 의식과 재정립),

국제성은 필요한가?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 오래된 도시에서의 알토페스트(이탈리아 나폴리의 예술축제)처럼, 송도의 개인 공간들에서의 공간 미술, 개인적 관계 맺기의 예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연예술보다 시각적 접근, 이동적 접근, 전시적 접근이 더 잘 맞을 수 있을 듯

임현진

- 각 국제기구들은 어떤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 지도에 그 과제들을 키워드로 연결해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 송도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은 국제기구들의 사업 목적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 각 국제기구들은 어떤 국가/도시와 주로 연결되어 있을까?
- 각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바와, 송도라는 도시는 가치의 측면에서 뉘아 있을까?
- 철새들이야말로 국제적인 존재가 아닐까? 어디서 와서,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가는가? 철새 도래지로 살펴보는 송도의 국제적 면모!
- 도시는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어지지만, 안개는 원하는 때에 도시를 사라지게 함
- 대지미술의 접근을 해보고 싶다. 안보던 풍경을 보게 만들고 싶다. 폐봄에서 했던 원경 기반의 퍼포먼스가 연상되었음
- 길은 어떻게 생기는가. 사람이 다니는 곳이 길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가 정한 곳이 길이 된다. 사실 사람의 움직임이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도시는 기형적이다. 도시의 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도시의 길은 사람들이 밟으며 생겨나야 한다. 지금의 기형적인 도시의 모습,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예술, 틈새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스캇처럼

- 원거리 감각의 작업

김보람

- 송도의 관련 포럼 참가. 도시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접근이 인상적이었음 (연수문화도시포럼) : 연수구의 두 다른 지역의 갭을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됨
- 항만 도시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안개. 인천의 야망.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큰 도시. 애써 길을 만들어나가는 길. 가고 싶어하는 길과, 현재의 길과, 원도심의 상태는 어떠할지. 그 사이의 간극(갭)은 어떻게 이어볼 수 있을까
- 이번에 공간을 보았다면,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함. 이들이 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잇고 싶어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역사의 현장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도시. 유원지도 있을 정도로 잘 사는 도시. 땅을 메우고 점점 커지는 도시. 서울과는 어떻게 다르지? 바다라는 이점이 있어서 땅을 넓힐 수 있다는 접근이 있는 것일까. 땅이 필요하면, 땅을 메꾸면 돼! 라는 접근일까
- 공간에서 넓은 땅이 느껴진 한 편, 개인의 공간(영토)을 마련했던 갯벌 목욕탕의 아저씨. 새로운 감각이라는 생각
- 이곳은 단순한 매립지가 아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예술, 대지 미술

송주원

-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려고 했음. 사람이 없는 도시의 거리. 빌딩이

높은 것이 몸에 와닿음. 안에서 밖을 바라본다면, 내부에서 거리를 관찰하면 어떤 모습일까

- 아암도라는 섬을 넘어서서, 우리가 걸었던 길 역시도 섬 같다는 생각이 들. 사실 원래 있던 장소는 아암도. 오히려 송도의 주인은 아암도가 아니었을까. 해당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퍼포먼스로 풀면 어떨까 상상
- 안개. 만들어진 도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서일까. 사라지는 공간. 극지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궁금했다. 왜 송도에 있을까. 기후체험 프로그램 경험해보고 싶다. 국제기구가 이곳에 있는 이점이 무엇일까
- 미래도시 같은 모습.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살게 될까. 옥련동도 웬지 사라질 것 같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함박마을.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 좀 더 듣고 알고 싶음
- 송도 유원지(터) 가보고 싶음
- 이곳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안개의 움직임. 뿌영고 막힌 움직임. 다른 곳의 움직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호기심
- 사라지고 드러나는 도시: 아파트, 아암도, 함박마을, 쇼핑몰 모두가 연결된 느낌. 슬며시 들어왔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도시의 특징과 욕망으로부터 움직임 찾아보기
- 철새 관련 기구, 극지 연구소 방문 희망

박지선

- 나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운전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도시는 이동성이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처럼 스스로 이동 수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걷기가 안 좋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송도로 진입할때 멀리서 보이는 높은 건물들에 의한 압도감. 거대한 거인 문지기가 게이트 앞을 지키는 듯한 느낌. 건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압도감. 미래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
- 송도에 다녀온 이후, 서울 명동/종로의 건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갑갑하다는 느낌. 송도는 여유와 시원함이 있는, 기존 도시와는 다른 감각이 있었음. 송도의 건물들은 거인들의 도시. 거인의 세상 속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듯. 인간의 욕망처럼 보였음.
- 송도는 계속 바다로 나아감. 해안선이 점점 사라지는 송도.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해안 /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해안. 인천은 환경 생태 도시를 지향한다는데, 도시의 해안선들이 계속 바뀌는 것.
-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도시의 공간적 구조, 사람들이 예술을 접근하는 방식. 이런 도시에서는 예술이 어떻게 위치할 수 있을까?
- 이 도시의 중간자들은 누가 있을까. 마치 아암도처럼. 매개자/매개체/매개지역/매개기관?
- 송도를 '걸어보기' 보행 중심의 이동을 하는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보기. 걷는다는 행위가 어떻게/얼마나 가능한지 탐색해보기. 도시가 걷기를 제약하는 것은 없는지, 혹은 발견하지 못한 걷는 길이 있는지 걸어보기

2) 두 번째 공통 현장 리서치

(1) 개요

- 일정 : 2021년 11월 4일 - 5일
- 참가 : 박지선, 최석규, 송주원, 김보람, 임현진
-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 극지연구소
- 송도 4교 아래/ 아암대로 옆 갯벌
- 센트럴파크 주변 아파트/상가 단지

(2) 발견과 질문들

극지연구소 www.kopri.re.kr

- 연구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안산에 위치해있던 본관을 송도로 이전하였음
- 남극과 북극에 연구 사무소를 두고 현장 연구를 진행하며, 남극 조약에 근거하여 연구의 의무를 수행함
- 극지의 여러 환경들을 연상시키는 설치물들을 통해 기후, 환경, 생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공간
- 연구소를 통해 극지의 동향을 전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식 전달 기관의 역할을 수행
- 극지 연구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데이터를 소유하여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
- 일본, 중국 등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는 관심에 비해 연구 활동 적음
- 남극과 북극이라는 극지와는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상대적으로 구송도와는 연결이 적은 것이 흥미로움

송도에서 발견한 것들

- 안개와 철새, 도시가 사라지는 순간들
- 건물이 거리를 두고 설계된 도시의 구조
- 송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 구송도와 신송도 사이의 공간들
- 불법으로 규정되는 여러 놀이들: 레이스카 트랙, 불법 텃밭, 송도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 극지와 연결되어 있는 연구소

송도라는 도시의 매끄러움

- 유연함, 장난, 쓰레기, 빈곤층이 없는 도시
- 틈, 골목, 마찰이 없는 도시
- 건물로 들어가는 매끄러운 체크인
- 그늘, 부적, 낙서, 그래피티 등의 일탈의 부재
- 만남, 스치기, 혼종적 문화의 공존이 어려운 매끄러운 도시

송도에 필요한 창조적 마찰을 상상하기

- 송도에 없는 것들을 찾아보는 마지막 리서치 단계 수행
- 공간, 공간의 사람들, 사람들 간의 마찰과 공존을 상상하는 예술적 관점
- 발견한 것들과 발견하지 못한 것들 사이를 직조하기

아시아, 도시와 예술

- 아시아 내 타 도시 사례를 통해 도시와 예술의 관계, 역할을 살펴보기
- 도시의 국제성과 예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진행, 토론을 위한 질문 찾기

신계획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기 워크숍

-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 가설 : #스마트도시 #미래도시 #지속가능한도시를 키워드로 가상의

도시 '세타'를 설정한 뒤 창조적 마찰을 위한 상상들을 구체화해보는 제안으로 발전시킨다. 이때 극지연구소 등의 조직 및 국제기구, 공공공간과 문화시설, 교육기관, 여객 터미널 및 항구 등의 도시의 인프라를 비롯하여 주민 네트워크, 커뮤니티, 취향 공동체 등을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는 매개이자 자원으로 삼는다.

· 방식 : 그룹을 둘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연구의 과정에서 한국 및 아시아의 예술가, 프로듀서들과 공유했던 질문들을 청중들과 공유한다. 도시에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 만들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고 생겨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고찰한다.

Part2 - 아시아

참가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Ian Leung, E-Jan Tan,
Tso Hachieh, Lynn Fu, Sekar Alit

형식

온라인 미팅 및 토론

일정

6월 - 11월까지 5회 미팅, 1회 비공개 워크숍 진행

배경 공유

북미, 유럽과는 시공간이 다른 아시아 도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현대 도시를 예술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예술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도시들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성장지향적인 아시아에서는 발전과 경제적 번영의 지표가 중요한 요소들이었고, 반면에 인간성과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발전 속도/발전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Speed/Velocity는 우리가 아시아의 도시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주제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들어오고, 쌓이고, 엮는 혼합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다공성을 바라보고, 현대 도시의 '국제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리서치 하고자 한다. 이 리서치는 한국과 아시아의 프로듀서와 예술가들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리서치 도시는 송도이다.

키워드

도시와 예술, 아시아 도시, 연결

사례연구

- (1) 이안 - 홍콩 비아 노스 포인트 프로젝트 공유
- (2) 박지선/최석규 - 커넥티드 시티 2017-2018 공유
- (3) 린 - 상하이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 공유

주요 관점 및 질문

- (1) 프로듀서로서 도시를 보는 관점은?
- (2) 아시아 도시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 (3) 아시아적 맥락과 아시아 도시 연결의 필요성과 의미는?
- (4) 우리는 왜, 어떤 관점에서 서로 연결 짓고 있는가?

일자 2021년 6월 16일

참석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츠오 한치예(대만), 이잔(말레이시아), 이안 링(홍콩)

프로젝트 배경 공유

석규 2017년 '커넥티드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최석규, 박지선). 예술, 기술, 건축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개입될 수 있을지 살펴본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도시 재생은 한국에서 큰 관심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큰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도시 내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하는가였습니다. 건축가, 무용수, 공연 창작자,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퍼포밍 시티', '뮤직 시티', '메이커 시티', '플레이어블 시티', '스토리텔링 시티'등을 기획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했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축제 기획을 했었지만, 더이상 축제 형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다제간 접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고 서로와 연결을 할 수 있을지 탐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디어가 확장 되면서 아시아의 도시들을 연결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홍콩, 타이베이, 서울, 일본의 주요 도시 등을 생각했습니다. 홍콩, 타이베이, 서울의 공통점은 이 도시들 모두가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시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는데, 언젠가 아시아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은 항상 머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커넥티드시티 송도 리서치 프로젝트'는 박지선 피디가 연수문화재단과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제안된 것입니다. 송도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로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이 있는 도시 인천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에 큰 갯벌이 있었는데 이후 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 국제 기구, 대학 등이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라고 불립니다. 아직 현장 리서치를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하는 주제는 '도시와 예술의 역할을 살펴보고, 동시대 도시 안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홍콩,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등 아시아 도시를 함께 바라보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통된 측면이나 관심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선 2017년에 진행한 '커넥티드 시티'의 소개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T6UPz-JIE8>

'커넥티드 시티'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서로 다른 도시와 그 속의 사람들을 예술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큰 질문은 어떻게 도시 내에서 예술적 개입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왜 예술이 도시에 개입해야 하는지 입니다. 시민들이 도시를 바라볼 때 새롭고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색다른 생각과 감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송도와 관련해, 지난 주에 처음으로 송도를 방문 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 송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서울과는 굉장히 다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송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고층 건물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송도는 스마트 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 국제 도시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송도에 갔을 때 우리는 사람들 간에 놓여있는 거대한 경계를 발견하였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 공항에 근접한 도시로서 송도는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한 도시가 국제적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를 전부 연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질문을 좁혀야 합니다. 올해는 리서치를 하는 해입니다. 아직 어떤 작업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리서치를 한 후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공통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후 새로운

도시 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쩌면 내년에 예술가들을 송도로 초대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규 여러분의 도시 내 예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여러분들 도시의 아젠다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도시 내에 있는 아이디어와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여러분은 도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으며, 도시 및 예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오늘 미팅을 하기 직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한국 내 도시들 뿐 아니라 쿠알라룸푸르 등의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송도 내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는 한국 최초의 스마트 시티인데 몇몇 전문가들은 충분히 스마트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하겠지만, 많은 아시아의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포부를 가진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무엇을 스마트 시티라 규정할 수 있는지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도시에 편리함을 더하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송도는 구조 상 사람들이 이웃과 연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안 송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카이 탁(Kai Tak)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이 탁은 한 때 공항이었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과 예산이 이곳에 투입되었습니다. 박지선 피디님이 송도가 충분히 스마트 하지 않다고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노스 포인트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봤던 캐나다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퀴사이드(Quayside)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로 제가 읽었던 이와 관련된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onezero.medium.com/how-a-band-of-activists-and-one-tech-billionaire-beat-alphabets-smart-city-de19afb5d69e>

사실, 퀴사이드는 큰 지원을 받았던 구상안이었습니다. 시작이 아주 화려했는데, 구글이 뒤를 받쳐 줬으며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와 캐나다 정부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청신호가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이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이런 프로젝트가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 건설이 되고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나면 이웃에 자리하던지 이웃의 옆에 붙어있던지 상관없이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고 거리낌 없는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당연히 예술, 문화, 인간성이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소만들기를 할 때 보통 개발자 측에서 굉장히 뛰어난 생각을 지닌 사람을 고르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들을 선정해 도시 계획을 이들에게 전부 맡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스터 플랜에 의해 정해진 대로 그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돈이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터무니 없는 개발이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저에게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커피와 설탕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가 도시라면 예술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커피에 녹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대접한다면, 저는 굳이 '달콤한 설탕이 들어간 커피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탕이 달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탕을 달콤한 것이라고 광고하거나 커피에 녹여 먹어 보시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와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 활발한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예술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술은

인간성의 가치를 옹호 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에 대해 동등한 크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합니다. 제 생각에 예술은 아주 훌륭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예술은 이야기를 하기 쉬운 주제이지만 도시 계획은 이야기 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술을 활용하며 이미 주변에 존재하는 시각적인 요소를 감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는 것에 빠져듭니다. 즉, 예술은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평등한 플랫폼입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가는 보통 디자인적 사고 방식을 사용하는데, 디자인적 사고 방식에 따르면 보통 가장 먼저 작업을 하게 될 동네에 찾아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모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디자인적 사고에서 가장 첫 단계는 문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한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잃습니다. 디자인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인다는 점에서 보면 마치 해커톤에서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한데, 동시에 많은 부분이 등잔불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보지 않는 것들이 생기며 단지 정해진 경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이러한 방식을 지양 한지는 이미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공공 공간 구상안이나 도시 설계사들이 차도를 통째로 막거나 한시간 정도 교통을 통제해서 보행자들을 위한 거리를 탈환하는 것을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이벤트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마치 단순히 카니발, 축제 등으로 여기며 경제를 위한 부속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내러티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 더 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이잔 말레이시아의 상황은 약간 정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팬데믹이 주 원인입니다.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제를 막론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30년동안 총리직을 맡았던 분들이 말레이시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였다면 말레이시아는 2020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야 했습니다. 8-90년대에 세워진 비전에 따르면 목표 달성 년도가 202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전 단계를 달성한 분야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이버자야(Cyberjaya)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이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지역 전체가 첨단 기술을 갖추기 위해 개발 되었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들은 이곳 저곳에서 진행되었지만 어느 정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 정도, 반절도 안되는 수준에 멈추어 있습니다. 많은 신규 프로젝트들이 또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아이디어 하에 시작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사실 발표되는 구상안의 수는 상당합니다. 도시 재생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어떻게 민간 분야의 건축가가 도시에 개입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분야에서 건축가가 참여할 경우, 보통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건물에만 집중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예술공간을 개발하는데 건물만 있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말레이시아전역에서 볼 때 비교적 작은 도시들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풀뿌리 움직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예술 커뮤니티, 독립 예술가들과 아주

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커뮤니티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도시와 도시 재생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고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가상 레지던시와 현장 레지던시가 혼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풀어 낼 수 있을지, 또한 물리적으로 한 도시에 머무르지 않아도 국제적 맥락에서 도시 재생과 도시 간 연결의 주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티드 시티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박지선 피디가 이야기 한 것처럼 상상력과 관련 된 사안인데, 저는 사실 지금 막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미지너티브 퓨처(imaginative future)'라는 미팅을 끝내고 나오는 참입니다. 이 미팅에서 저희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잃어가는 상상력의 위기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도 제가 이 미팅에 참석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도시 내 사람들의 상상력 회복을 위해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라는 개념은 매우 흥미로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팅도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경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는 굉장히 다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초오 저는 현재 평등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자주 평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 도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이완 도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오슝은 평등의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술 단체, 예술가, 축제가 예술, 공연, 창의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타이완은 이제 봉쇄령이 내린 지 한 달 정도가 되었고 저는 타이베이 및 여러 다른 도시에서 많은 프로듀서들과 미팅하고 있습니다. 가오슝의

예술단체들은 굉장히 전통적입니다. 대부분의 세미나나 이슈에 대한 논의는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가오슝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리서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가오슝의 예술가들이 이전에 도시와 예술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언제쯤 되어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지 궁금합니다.

현진 저는 도시 내의 다양한 동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의 동기나 도시에서 생겨나는 동기가 우리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지, 왜 도시를 파괴하는지, 왜 도시를 스마트, 글로벌 등의 꾸밈말을 사용해 정의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러한 동기들을 살펴보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안이 이야기 했듯이 예술은 우리를 평소의 행동, 시각, 사고 방식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발견하고 도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을 기존의 관점에서 이탈 시켜내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석규 박지선 피디와 저는 예전에 소도시에서 축제를 기획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예술 실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축제를 여는 것보다 예술을 통해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작은 도시의 경우 사람들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서로 연결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축제라는 형태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인구 구성원들 간, 세대 간의 단절과 도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계가 발견되고, 대도시에서 축제는 형식을 통해 사람들 간에 연결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의 형식보다 소규모의 깊은 맥락을 가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과 제안에 사람들이 이끌리며 그들 간에 서로 연결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이것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거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문화 축제를 여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중점을 두던 프로젝트 들입니다.

지선 저는 현재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나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 속 삶의 편안함과 편의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며, 예술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가끔 예술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예술은 없고 문화만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문화 속 예술은 과거에 있던 것으로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술은 오직 대중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와 행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도시 내에서 예술적 개입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주하도록 만들어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시 안에서의 예술의 역할입니다.

최석규, 임현진 피디와 '미래의 고고학자'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현재의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징후를 오늘날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닭뿔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닭뿔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가와 프로듀서로서 우리도 마치 미래의 고고학자처럼 우리의 사회와 도시의 모습을 탐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발자취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석규 전통적인 고고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릉이나 궁궐 등을 제외한 많은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나오는 것들 중 대부분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과거의 쓰레기 더미를 보고 과거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쓰레기를 보면서 고고학자들이 과거를 살펴보듯이 우리도 미래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잔님께서 이야기 하신 '이미재너티브 퓨처'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바꾼다기 보다는 오늘날의 도시를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고고학자' 아이디어의 배경입니다.

석규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할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어떤 관점에서 탐구할지 정하기 위해, 우리가 공유한 것들에서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통된 주제를 찾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선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다들 머리 속에 이것 저것 떠오르는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도시를 생각할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날 때 어떤 공통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중 연결되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질문을 모두 한 데 모으면 공통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글로 적는 것인가요? 말씀해주신 관점들을 모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몇 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모두에게 해당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이유가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굉장히 시의 적절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주제입니다. 2017년도 작업 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 주었고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동안의 작업에서 쌓여 온 유산이 이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왜 스마트 시티라는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왜 그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 예를 들어 사생활 보호라든지 디지털 자율성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구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지메일 같은 서비스나 널리 사용되는 업무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에 대한 답으로써 스마트시티는 우리에게 스마트 시티로 인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15 미닛 시티'는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는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큰 기계 장치의 부속품으로만 보는 것으로 산업화 이전에 우리가 대도시를 원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처럼 사람들은 부속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속품을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 예술은 현재 것처럼 벌어진 간극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주제 혹은 우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의 배경에 있는 동기를 찾고자 하는 시도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 아시아 프로듀서 두 번째 대화 •

일자 2021년 7월 7일

참석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이잔(말레이시아), 이안 령(홍콩), 린 푸(중국), 세카알릿(인도네시아)

석규 지난 번 미팅에서 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총 세 개입니다. 첫째 도시를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고, 둘째, 이안 프로듀서의 사례 연구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아시아의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지 논의 하겠습니다. 아시아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온 큰 목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머지 않아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논의 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주제와 시각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그럼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오늘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토론: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무엇인가?

지선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사는 도시 내의 건축, 환경, 공간, 경제적 구조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도시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은 물리적 연결성을 만들어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양극화, 세분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 공간과 사람들은 점점 더 단절되고 있으며, 도시 내에 자발적 빈민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본 지향적인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은 사람들에게 소비를 장려하고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편리성에 빠져들게 하며 마찰이 없는 사회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찰 없는 사회란 무엇일까요? 마찰이 없는 사회는 자본과 체제의 통제 하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물며 도시를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술이 도시 속으로 파고 들어 개입을 해서 창의적인 마찰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키워드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창의적 마찰'입니다. 저는 정부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마찰이 없는 사회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 예술이 창의적인 마찰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술의 침투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술로 어떻게 사회에 침투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예술적 개입, 네 번째는 가로채기입니다. 개입과 가로채기는 꽤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회사들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는 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의 컨셉트를 중간에서 가로채야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저는 항상 연결이 도시를 생각할 때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냅니다. 때문에 도시 내에서 하나의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 연결을 만드는 것, 한 동네와 다른 동네를 연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안 저의 관심 분야도 박지선 피디가 이야기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이번 리서치의 목적, 혹은 이번 리서치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정책 결정의 역동성 전반에 걸쳐 예술이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전략적으로 인간성의 생태계에 도움 줄 수 있는 자리에 예술을 위치시키고, 예술이 단순히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나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예술을 단지 경제적 동력이나 혹은 경제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예술이 티켓 판매를 이뤄낼 수 있고, 호텔이나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는 점차 새로운 시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팬데믹이 그 전환의 속도를 높여 모든 것이 서로 엮이면서 다제 간 예술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일해 온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깊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박지선 피디님이 말씀하신 키워드 중 '예술적 개입'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끼여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개입'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소외입니다. 예술에는 포용성의 힘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며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저는 제가 만들어 내는 것이 공포를 자아낼 정도의 소외나 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간에 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박지선 피디가 이야기 한 부분 중 정말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화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 머무르려는 것으로 사회적 진전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공동 주거는 제가 답을 찾아 보려는 주제인데, 이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고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외부로 나가서 어려운 대화를 시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술을 활용하거나 예술을 통해 관여 하려는 저의 첫번째 시도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혹은 합의의 기재를 정립하기 위해 예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상력이나 창의성과 관련한 예술을 통해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쏟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들으실 텐데, 저는 아직 갈등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는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어떤 갈등이 있는지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염두에 두며, 공격적이고 점진적으로 그들의 기대치를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이안 피디가 개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술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좀 더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한국 정부는 도시 재생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활성화에만 중점을 두었기에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 단체들이 활동가로서 대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리슨투더시티'라는 단체는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며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술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술이 차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예술적 개입'이란 다른 생각과 관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2019년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에 참여하기 위해 린츠(Linz)에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2030 살기 좋은 도시'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래에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11개의 선언문이 만들어졌는데, 이 선언문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술이 있는 미래를 위한 우리만의 선언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말레이시아의 맥락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도시를 실험을 위한 연구실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예술, 문화유산, 엔터테인먼트를 탐구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예술을 그런 식의 분류에서 탈피 시킬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의 개념을 하나로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슈나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흔히 문화 매니저나 예술 프로듀서라는 직업과 그 역할을 이해하는 모습은 잔혹할 정도입니다.

이잔 피디가 발표를 통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나,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대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술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도시를 변형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단위는 각 이해관계자 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

기반의 변형을 시도하는 접근을 할 때 항상 진행 되는 과정의 수는 굉장히 많고 또 진행이 되는 도중에 그 모습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관이 과정 기반의 측정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결과물이나 과정의 산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제를 들여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듈 중 하나는 문화와 변형에 관한 것인데, 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자료들이 몇 개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문화와 협력에 관한 모듈이 있는데, 협력과 관련해, 협력과 경쟁(competition), 즉 협력 과정 중의 경쟁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 분야 간 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논의를 할 때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초 문화주의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맥락에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다문화, 상호 문화, 초 문화적 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술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그리고 어떻게 지금 논의 중인 맥락을 탐구할 지와 연결 짓는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이잔 피디 감사합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초문화주의적 측면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나라로 한국의 인구분포는 그다지 국제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 몽골, 중국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보통 국제 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내 중국, 말레이, 인도 사람들의 인종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다인종의 분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잔 말레이시아의 상황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세 주요 인종이 아주 강한

민족 문화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서는 이주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교역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민족 문화가 강하게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현 세대에서 우리는 교차 문화와 초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론이 정말 많습니다. 때때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길게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상호 문화나 초 문화를 지향한다면 각 민족의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맥락에서 정치가 개입을 해 인종에 대한 여러가지 답론이 나오고 사안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균형이나 상호 문화를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선 이잔 피디가 예술이 항상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몇가지 덧붙이면, 한국 정부는 요즘 모든 도시들에게 ‘문화 도시’가 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모든 도시가 문화 도시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들이 문화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문화에는 예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로 분류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술을 엔터테인먼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역할이 그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또 다른 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이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린푸 박지선 피디가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ISPA, 국제 공연예술 협회에서 몇 년 전 처음 들었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논의 주제를 다루었던 세션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이리테인먼트(Irritainment), 즉 짜증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의 목적이 엔터테인먼트나 쇼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사람들이 즐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것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리테인먼트라는 단어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는 예술이 엔터테인먼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 정책에는 어떤 형태의 예술 프로덕션이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예술이 중국 문화의 가장 훌륭한 면을 고품질로 대변할 수 있는지가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중국도 상황이라고 봅니다.

석규 저의 여정은 축제 매니저로 일하면서 시작되었고,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축제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축제 감독으로 일하는 동안 아시아나우라는 컴퍼니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술을 생각할 때 대부분 축제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도시가 가지는 의미란 축제나 공연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시에 대해 가지는 주된 관심이었고 다른 관심은 크게 없었습니다. 도시는 예술이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지선 피디님과 제가 함께 일하던 시절에 저희는 몸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두었고, 움직임이 극장에서 만들어 내는 시각적 요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술 자체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었고, 예술에 무엇보다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실주의 연극이 아닌 것에 매혹되었고, 몸과 움직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만들었으며 공동체와 교류하였습니다. 우리가 문화부와 시로부터 큰 예산을 지원 받기 시작하면서 예술은 주로 도시 마케팅이나 문화 관광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저와 도시의 관계는 주로 제가 도시를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부터 영국문화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총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영국문화원의 큰 아젠다는 예술,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60퍼센트가 도시에 살고 있는 만큼 도시화도 큰 주제였습니다. 이 시기가 제가 도시를 정체성을 지닌 장소성으로 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단지 축제나 공연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 시기 이후로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 속 각 장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 예술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예술이 예술 자체보다, 사회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도시 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연결할 수 있을지

였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장소가 가지는 서로 다른 정체성과 예술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2019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팬데믹은 저에게 동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내가 사는 서울, 내 주변 곳곳의 동네를 많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 지역성(Hyper-locality)의 관점에서 저희 동네를 다섯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아케이즈 프로젝트(Arcades Project)와 파괴적 캐릭터(The Destructive Character)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트렐로에 공유하였습니다. 도시 공간에는 큰 길에서는 본 적 없는 조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거리와 길을 봐야 할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터 벤야민이 책에서 언급한 조각과 잔해는 상상력의 너머에 있는 것인데, 물체는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 다른 것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저의 관점과 시각, 저 스스로 정의하는 예술의 역할을 찾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커뮤니티와 문화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 저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아젠다를 커뮤니티에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의 슬라이드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축제와 '커넥티드 시티' 등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다면 다음 분에게 발언을 넘기겠습니다. 상하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린푸 감사합니다. 회의록을 통해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던 첫 번째 회의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참석하기로 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이 주제를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으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자라면서 들었던 정부의 슬로건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매일 같이 “一年一个样，三年大变样(일년일개양, 삼년대변양)” 즉 “매년 다른 모습, 3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 다시 말해 “3년마다 변혁을 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이제 사라지고 없으며, 제가 태어난 집도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건물들이 해체되고 동시에 재건축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간 그러했는데, 우리는 예술과 문화가 창조 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웨스트 펀드(West Fund), 서부 기금이라고 불리는 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웨스트 가우룽 문화 지구에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 펀드는 아마 웨스트 가우룽 대비 10배 이상의 규모로 아직 건설 중입니다. 완공 되면 아마 10개의 예술 박물관과 10개 정도의 극장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 돔 형태의 신축 극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매달 나타납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왜 이런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도시 거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문화부와 관광부가 몇 해 전 하나의 부서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문화 관광'이라는 단어가 크게 유행 했습니다. 두 부처가 통합 된 후로 전국에 걸쳐 갑자기 문화 마을이 나타나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극장 마을, 오페라 마을 등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소위 문화 장소만들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살아 남은 프로젝트 몇몇을 제외하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트렌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비교적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부분은 저의 고향 상하이와 관련 있는 현상입니다. 상하이는 크게 발전해 왔으며 탈중앙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어렸을 때 쇼핑을 하려고 하면 인민 광장이나 쉬자후이 지구 같은 상업지구에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더 이상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 이동해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위 중심지가 도시 전역에 걸쳐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래서 다양한 영화관, 상점, 식당 등이 위치한 몰 같은 상업, 문화 시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곳에 가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굳이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혹은 동네에 대한 감각이 더욱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흥미로운 사례가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하이에는 5-60년대에 건설된

건물이나 동네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工人新村(공인신촌)”, 즉 노동자 주거지역이라 불립니다. 모든 건물들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이 두세 개 있는 아파트로 지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공호를 커뮤니티 센터로 바꾼 공간이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지역 중 한 곳에 있는데 굉장히 풀뿌리적으로 구상된 프로젝트입니다. 커뮤니티 지역민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자신들만의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권력이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만들거나, 종이 공예, 집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트렌드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 된 후, 사람들은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긴급함이 있었고, 그 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도시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디오투도 있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렐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저도 린푸 피디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저의 주된 관심사 또한 도시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동네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상하이 보다는 작은, 과천이라는 도시인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 하곤 하던 아파트 키즈(Apart-kids)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키즈란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8-9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자란 고향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자리를 차지한 곳으로 시골 풍경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을 한 아파트 건물들이 가득 찬 도시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렸을 적 기억 속 건물, 놀이터 등은 전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억하려 하면 배경에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주공’이라 불리는데, 주공은 한국 주택

공사의 줄임말입니다. 주공은 자신들이 건설한 아파트 건물들의 아카이브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이 움직임, 아파트 촌과 아파트 키즈를 아카이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연계해서, 도시 공간을 되찾는 데에도 관심 있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제거 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를 남기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무엇이 남겨지고 무엇이 사라지도록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술의 역할은 미래 도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술의 렌즈를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투사하며, 과거와 미래를 예술의 이름 하에 하나로 엮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의 3S라는 오래된 정치적 컨셉트입니다. 이 컨셉트는 80년대와 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S란 스크린, 스포츠, 섹스를 뜻합니다. 당시에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였으며 영화, 스포츠 행사, 성적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함으로써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가 아직 도시 내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며, 만약 그렇다면 문화의 이름 하에 그 모습을 감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질문입니다. 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논의하는 주제와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싶습니다.

츠오 지난 번 미팅 후에 제 생각의 요점과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적어보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깊게, 철학적으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가오슝 내에 위치해 활동 중인 지역 예술가와 공연 그룹, 비영리 단체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가오슝에 있는 예술가들과 그룹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간 상호작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과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논의를 한 뒤,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룰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한 더 훌륭한 상상력이 무엇인가입니다. 10년에서 20년이 지난 후 미래에 도시와 예술을 위해 더 훌륭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 갈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번 미팅 후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제가 관찰하는 바를 공유하고 싶은데, 정부의 정책과 예술 정책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 지역 정부는 사람들에게 이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합니다.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유인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예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예술에 노출 될지 누가 결정을 하는가입니다. 또한 음악이나 노래는 예술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지역 정부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콘서트 티켓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 주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잔 말레이시아 정부도 백신 접종 센터에서 버스킹을 위한 무대를 세웠다고 몇 주 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예술가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데려 온 이 버스커들은 문화 예술 관광부의 공무원으로, 예술가로 종신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례 연구 - 홍콩의 노스 포인트(North Point in Hong Kong)

이안 오늘 발표는 제가 최근에 예술과 아이디어에 대해 한 축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주제가 15분 도시였는데, 공동 주거라는 우리의 주제와 완전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축제에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을 논의 했었는데 왜 우리가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는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해 본 것으로 제가 이 곳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중 몇 분은 방문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희 홍콩아트센터는 예술 허브로서 43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주로 컨템포러리 예술을 증진하며, 모두가 예술에 접근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센터는 운 좋게도 도시 재생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프로젝트가 디자인되고 구축 된 방향성에 대한 맥락을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구호는 '상상하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우리는 이 구호에 충실하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단지 마케팅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프로그램에 이 정신을 구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위치한 행정 지구는 홍콩 노스 포인트입니다. 홍콩에 있는 섬으로 한 때는 홍콩 섬의 최북단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노스 포인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5분 도시'를 이야기 할 때, 왜 우리가 이 15분 도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의 이면에 항상 어떤 아젠다나 환상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린푸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 계획은 일반적으로 산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데 뭉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중심지에서 비슷한 거리를 두고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곳 저곳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길 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가입니다. 린푸님과 임현진 피디님이 이미 질문을 하셨듯이, 도시의 활용성, 효율성, 이동성을 극대화 시켜서 나오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식의 빠른 변화를 겪을 때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담론이나 정책 결정의 일부가 아닐까요? 저는 지난 번 미팅에서 짧게 말씀 드렸듯이 예술과 인간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15분 도시(15 minutes city)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시에 살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좁은 공간에 파고 들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 생각에 팬데믹이나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사회적 회복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정부 체계의 부족함이나 불충분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온전히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지 재난에 대비해 집에 식품이나 음료를 비축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우리의 이웃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은 도시화 및 예술의 역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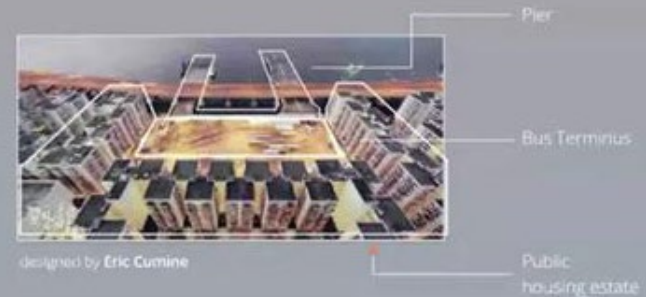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미지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이미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스페인에서 예술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경관과 하나로 섞이며 통합됩니다. 가로등을 포함해 거리 위에서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이는 예술적 개입이나 공공 예술 장소만들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혜택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미적 경험으로, 이것이 거리에서 보행 가능성을 항상 시키는 핵심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5분 도시를 이야기 할 때 보행 가능성의 우선순위는 차나 기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예술이 즉각적으로 미적 경험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첫 번째 논점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 정체성을 정의하는지 대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거나 그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싸구려 변호사 서비스나 약품의 광고라면 그러한 광고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보는 이로 하여금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상적인 얼굴이나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광고들이 모두 이런 광고라면 자존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 개발이나 외모를 가꾸는데 충분히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경관에서 보는 것들에는 사회적 금지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그러한 동네에 유산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노스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이 1950년대부터 노스 포인트가 자리해 온 장소입니다. 에릭 큐민(Eric Cumine)이라는 건축가가 건설하였습니다. 이 분은 수상 경력이 있는 유명한 공공 주택 프로젝트 여럿을 만들었습니다. 노스 포인트 부지를 디자인 하였을 때 그는 15분 도시를 달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세웠었습니다. 지도를 크게 보면서 그가 세운 비전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명확하게

Take a look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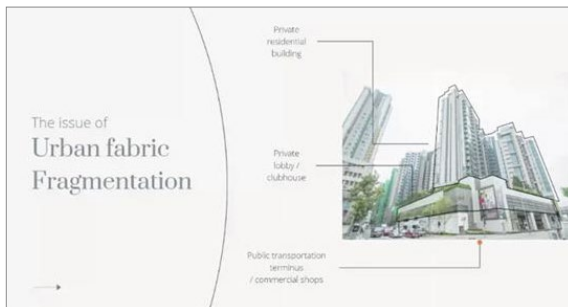
The legacy of North Point Estate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의 중간 위쪽에 보이는 항구가 빅토리아 항구입니다. 왼쪽으로 공공 선착장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자동차 선착장이 있습니다. 두 선착장 모두 사람들이 홍콩 섬에서 가우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버스 터미널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 지구는 U자 모양인데 대중 교통 인프라를 둘러싸는 모양입니다.

길 위를 살펴보면 여러 가게, 상점, 식료품 가게, 유치원, 놀이터, 공공 장소, 보행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동네에 존재하는데, 이는 탈중양화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실행되었던 전체론적 개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나 배에서 내리면 교통 환승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를 보면, 럭셔리한 주상복합 건물로 1층부터 3층은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아케이드와 나란히 5성급 호텔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된 특징은 보행자가 들어 올 수 있는 입구와 입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 주거지가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고, 로비와 클럽하우스는 중간에 있으며, 보행자 입구는 길거리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재생 혹은 재개발은 전부 도시의 경관에 벽을 쌓았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고가의 집들을 벽으로 둘러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이 지역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되거나 출퇴근을 할 때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5성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상층부를 벽으로 둘러싸는 사람들로부터 차단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이, 타이베이, 가오슝, 서울의 상황이 비슷한 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모습은 홍콩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발 회사들은 전부 자신들이 짓는 집을 상층부에 위치시켜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입주민이 그러한 주거 단지에 살면서 쇼핑을 즐기는 다른 일반인들과 섞일 필요가 없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최고의 디자인이라 여깁니다. 고상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용 출입구를 마련합니다. 사유화는 공간 투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단지의 또다른 측면도 있는데, 선착장은 여전히 이 곳에 있고 보행자 공간 전체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와 오래된 커뮤니티가 서로 분리되고 소외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몇 번 진행했는데 오래된 동네의 주민들은 “이 구역은 가지 않을 생각인데, 내가 전혀 그곳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이 곳은 새로 생긴 곳이라 전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소수 집단입니다. 이 보행로는 이제 다시 열렸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 사람들은 여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투쟁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 정의라는 이슈입니다. 이 표현은 저희 싱크탱크에 참석하셨던 예일 대학의 건축과 교수님이 쓰신 표현을 차용한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이 분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분이 이 이론을 만드셨습니다. 시민이 공공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그 과정에 시민 참여가 포함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예술에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함께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핵심적 능력을 갖추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 바로 이야기를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술적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경우, 그림을 얼마든지 쳐다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감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림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을 듣고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 합니다. 무언가에 합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미학적 경험으로 각자의 상상력이나 제 3자의 상상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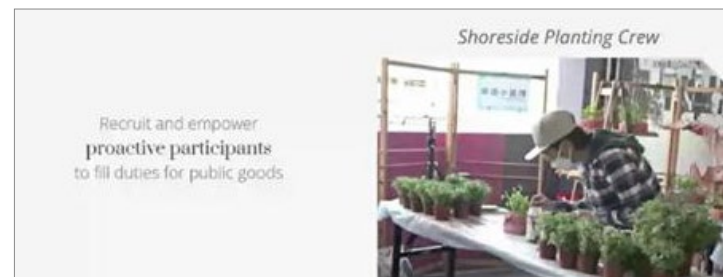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처음 한 일은 두 세대의 사람들을 짝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짝을 짓고자 한 사람들 중 첫 번째 그룹은 조기퇴직자들로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지만 여가 시간이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지식과 삶의 경험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도시학과 건축학 전공자로 막 졸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짝지어 현장 방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함께 돌아와 이런 저런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생활 공간을 거실로써 상상해보았습니다. 즉 공공 장소를 거실로써 상상해 본 것입니다.

이 두 세대를 한데 모아 도시 디자인 연구실을 만들어 세대 간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모아 한 작업은 디자인을 통합하는 것이었다기 보다, 디자인을 형성하는 행위를 통해 도시 현장을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 하는 원칙들을 열거한 도시의 현장을 말합니다. 박지선 피디님이 이야기 하신 선언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작성한 것은 디자인 개요였습니다. 이 디자인 개요는 도시의 현장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나중에 설계 디자인 제안서 오픈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상향식 접근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많은 위성 장소만들기 예술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네 주변에 구축해 놓은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든 얼마나 아름답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없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민은 공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소비자로서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일회성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맡아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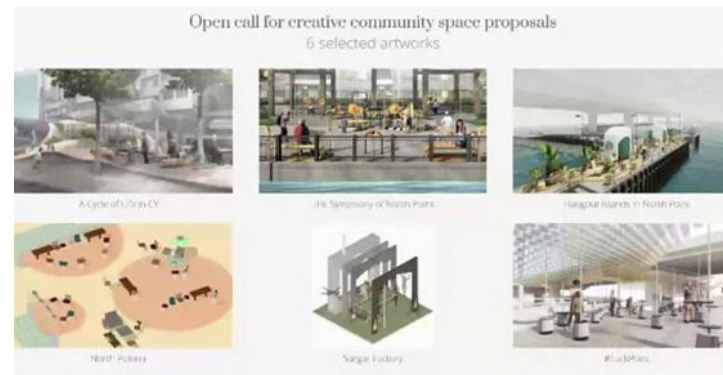
‘쇼어사이드 플랜팅 크루(Shoreside Planting Crew)’, 즉 해안가의 식목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상향식 활동의 일례로, 나무심기 팀과 도시 녹지 조성 팀이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경관 속에서 혹은 쉽지 않은 도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식물을 기를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을뿐 아니라 선착장 안에 작은 준비 공간을 공동으로 디자인 했습니다. 평면도 초안을 만들어 각 가족, 커플, 개인 참가자들에게 이 평면도를 디자인하고 나무를 심을 구역과 휴식을 취하는 구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도시 계획 아이디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도시 녹화의 과정에서 모두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프로그램에 녹여 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식물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혹은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 남의 구역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시작단계부터 공동 관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해안가의 소규모 녹지 조경을 공동관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공 장소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시민의식도 길러줍니다. 저는 이를 문화적 시민의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들을 비유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시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할 때 우리는 수평 축을 떠올립니다. 예술뿐 아니라 도시 계획, 건축, 조경 디자인을 포함한 특수 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은 어떠한 서열 구조도 없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 디자인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돌아가 나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디자인 자문 훈련에 참석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술가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밑그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누가 더 목소리가 큰 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고 기여를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평 축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모든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엮어주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언젠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산을 남기겠다는 식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참가자들이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도시 공간 공동 관리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훗날 도시 공간 옹호를 위한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을 활용해 사회적 유대감을 엮어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이 도시 재생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예술을 활용해 도심을 엮어 내기 위한 기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여섯 개의 창작 예술품을 실현해 내기 위해 저는 저희 팀과 거의 매일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미 선별되어 의뢰를 맡긴 상태입니다. 올 해 9월에 차질 없이 모두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 되었는지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린푸님이 관광부와 통합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신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문화 관광이라는 개념에 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빌바오 구겐하임의 유산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유행어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전설처럼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의 작업이 문화 관광차원에서 노스 포인트를 새로운 명소로 상표화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이곳에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던 저희가 작업 하는 기간은 짧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동네 만들기를 성취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길 원하며, 반향을 일으키며

동네의 필요에 부응하는 예술 작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사람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예술의 힘을 알게 되며,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옹호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보호하는데만 신경 쓰거나 그러한 편견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어에 '國家自掃門前雪(국가자소문전설)'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자신의 문 앞만 걱정 하고 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하나의 무리로서 우리의 문화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으로 공동 주거의 개념으로 옮겨가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연구 : Q & A 그리고 토론

석규 감사합니다. 아마 다들 발표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나 예술가로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발표해주신 예술프로젝트에서 홍콩 예술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안 저희는 이 작품들을 선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제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영국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ies)의 모델에 기반한 좀 더 예술적인 방식의 사고를 했습니다. 매해 여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장소만들기를 하고 편안한 대화를 하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 스크리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모델로 보고 노스 포인트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호응을 얻었는데, 아마도 동네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예술을 한다는 점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천막보다 좀 더 이목을 끌 수 있는 간이 구조물을 세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야기나 지적 교류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시작 했을 당시부터 옛 것과 새 것을 연결하려는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연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들이 격렬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장의 원리나 상업성에 기반 해서 운영 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리의 상층부에 위치한 럭셔리한 궁궐같은, 분리된 공간의 문제가 생겨난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는 한 때는 본 받을 만한 공동 주거의 모델이었던 사례를 층이 나뉜 모델로 대체 한 것으로 완전히 의도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마치 문화 예술 허브나 보행로를 위해 제곱 미터 당 60만 달러를 지불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격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것이며, 이런 현상이 홍콩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보행로를 디자인 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큐레이터이며 주 진행자로 모든 전문가들의 힘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홍콩 건축 센터(Hong Kong Architecture Center)와 이러한 아이디어 컨셉트로 시작했습니다. 홍콩 건축 센터는 비영리단체로 모두를 위한 건축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모두를 위한 예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양측 모두 뭔가를 만드는 것 보다 더 적극적인 단계를 밟을 때가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진보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사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앉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석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장르를 중심으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전통적으로 극장의 역할이라고 가정한다면, 홍콩 예술 센터는 전통적 아트센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해 주신 프로젝트는 예술가, 창작자, 건축가, 도시 계획 전문가 등과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였고, 예술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협업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예술의 미학적 관점에 중점을 두기 보다, 커뮤니티 관점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 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협업을 할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협업을 하시는 동안 겪으신 도전 과제나 방법론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지선 저는 지금 과학, 공학, 안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 하고 있으며, 예술, 과학, 기술을 이해하는 진행자도 이 협업에 참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고, 참여하는 모두를 지원하며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모두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끄는 중간자, 혹은 진행자가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센터 소속 프로듀서들이 모든 것을 다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안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여기에는 두 가지 계층 혹은 그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 분들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 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자존심을 털어내고 시작 해야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에 이들을 초청하는 단계부터, 이들이 초청을 받는 곳은 싱크 탱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자세를 낮추고 접근을 합니다. 기초적 이해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큰 방향성은 있는데 방법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30명 내외의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일대학 교수님도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이틀 간 고강도의 싱크 탱크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일련의 액티비티를 통해 자존심을 털어내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업체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을 아주 신경 써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션을 하면 참석자들이 모두,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책이 엉망이다”, “사람들이 문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불평을 다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점심 식사 후에 두 번째 세션을 할 때 좀 나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불만이나 의견 등을 모두 털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야 이들에게 진정 도발적 질문을 던져 이들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날이 되면 이들은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팀 모두가 같은 비전을 향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몇몇

핵심 멤버가 브리핑을 하며 “이것이 예술을 대리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예술과 차별성을 두려 합니다. 또한 문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예술 축제도 아닙니다. 무언가 사람들을 위한 작업이지만 커뮤니티 예술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싱크 탱크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따짜꼬짜 사람들을 작업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를 전부 하도록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자존심과 비전을 정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우리와 협력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싱크 탱크가 끝나고 난 후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누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되짚어 봅니다. 건축가 분들 중 색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 중 일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비나 태양빛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섭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발표를 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즐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싱크 탱크를 통해 이들의 기질을 파악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석규 피디가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상당히 자기 주도적이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인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핵심 가치를 받아들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러한 가치를 전파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보편적 가치로 퍼뜨릴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도시 녹색화 측면에서 우리는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성과지표 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심 정원을 만들거나 굉장히 미학적인 건축물에 사람들이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의 생각이나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훌륭하게 구축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효과를 내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2단계 예산을 투입하여 디자이너 및 예술 집단을 참여시켜 구조물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을 보행로에 팝업 정원으로 꾸며 이곳에서 1단계 참여자들이 심은 작은 식물과 허브들을 전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굉장한 공공 예술 전시를 큐레이팅하겠단, 예산이 많으니 이것 저것 해보자, 맞춤형으로 주목 받을 수 있는 공공 도심 정원을 만들자,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의 가치와 공동 주거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자 등 이런 식의 큰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한 전략과 로드맵입니다.

현진 '공간 정의'에 대해 참고 자료를 더 공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론이나 논문 등이 있습니까? 공간 민주화는 들어 본적이 있는데, 두 개념이 유사한 접근을 하는 것인가요?

이안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더 드리려면 제 교수님께 여쭙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 정의와 공간 민주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공간 정의는 대중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개념입니다. 바우하우스 시대 혹은 산업시대의 도시 계층을 살펴보거나 혹은 린푸님이 말씀하셨던 '공인신촌' 내 건물을 살펴보면, 구획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거리는 단순히 한 점에서 다른 점을 연결할뿐입니다. 보행 가능성, 녹지, 공유, 앉기 등의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노인, 어린이 안전, 위생 등의 측면이 부각 되면서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행로와 관련해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떠올려 보시면 건물의 오른쪽에 나무 덩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는 보기 좋을지 몰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보행로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앉을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불친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림이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며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 디자인입니다. 공간 정의는 이러한 논의에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 민주화란 좀 더 상향식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모두를 동일한 출발선 상에 위치시키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게 할 것인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가끔은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하는 목소리란 효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민주적 논의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가 진보적 혹은 실행 가능한 옹호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또 다른 뉘앙스로 남을뿐입니다. 이는 "아,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동네의 특정 장소에 양금이 쌓인 사람들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트렐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와 관련 링크를 리서치 카드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욕 퀸즈에 있는 코로나 플라자 프로젝트 청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과 관련해, 런던 올림픽 선수촌의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 분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또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자원을 마련할 지, 이러한 재원을 활용해 공원 내에 문화와 예술이 자리할 수 있을 지, 또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도 예술의 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의 공공 예술 기금과 공공 예술 쇼케이스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며 잘 적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논의에 대한 담론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규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도시 건축과 미디어 건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누가 도시 내 스크린(Urban screen)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시 내 많은 건물들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과 카드를 돌리는 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도시 내 스크린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도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자본, 광고 회사, 신문사 등이 이런 스크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의 및 공간 민주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던지는 큰 질문은 미디어 건축에서 도시의 스크린을 누가 소유하느냐입니다. 최근에 큰 관심을 받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상하이나 홍콩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고 스크린들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딜레마로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예술은 시간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가치를 두는 지는 30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술과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할 때, 혹은 커뮤니티와 갖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나 오랜 지속성을 보장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시간에 기반한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술은 있지만 예술품은 사라지고 없거나 변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가진 큰 질문은, 예술과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술 자체 보다는 사람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이안님의 경우 커뮤니티와 작업을 하며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원 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시간 기반 예술 작품의 경우 오랜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을까요?

이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겪으며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술가와 처음 만나 이야기를 할 때 받는 첫인상과 관련해, 저는 큐레이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혹은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유형의 예술가와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선택을 하는데, 제가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와 비슷한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어, 자존심을 접어 두고, 사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라는 등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고릅니다. 또 다른 점은, 저의 기준점을 낮추고 탐색 범위를 확장하면 예술 집단주의를 보게 됩니다. 예술 집단주의는 예술가가 작업할 수 있도록 허락할뿐 아니라 다양한 학제 간 사람들이 모여 예술적 접근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세사르 하라다라는 예술가에게 작업 의뢰를 했는데, 이 예술가는 홍콩 메이커베이(Makerbay)의 설립자입니다. 산업 단지 내 한 건물의 세 개 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메카 문화, 즉 기계 등에 열광하는 문화에 푹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생태학과 지역 생물다양성입니다. 디자이너 겸 과학자 겸 예술가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말도 안되는 꿈을 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트렐로에 코펜하겐 도심 지역에 위치한 한 항구 내 수영장의 사진을 올려 놓았는데, 노스포인트에도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와 완전히 똑같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연결 하고 과거의 유산을 기념하며 빅토리아 항에서 다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꿈을 그려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굴을 기념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세사르는 지역산 굴의 품종개량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굴이 어떻게 12시간 만에 진흙탕 물을 정화하는 지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12시간 만에 물탱크 전체가 정화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는 물에 떠 다니는 굴 연구소를 만들어서 보행로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라우 파우 산이라는 홍콩과 선전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굴 양식을 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떠다니는 예술 연구소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세사르는 이 예술 연구소를 굴 모양의 떠다니는 공공 예술 구조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굴을 양식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굴이 물을 정화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렴. 그러니 그냥 굴을 먹지만 말고 얼마나 유익한지 생각해 보렴” 등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멀티미디어 예술가와 함께 영봉(泳棚, swimming shed - 사람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리 모양의 선창)을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유도 없고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이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청 과정이 끔찍할 것 같은데, 아마도 “꿈이 있고요. 영봉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실제로 수영을 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고 교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로 쪽 밀고 나가면 실현 할 수 있는 꿈입니다.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코펜하겐을 보세요. 거기서는 실현되었습니다.”라는 식이 되겠네요. 1930년대와 비슷한 자재인 대나무를 사용할 것입니다. 대나무로 영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물에 떠 있는 예술 작품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둘을 함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큐레이션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보고 “아, 큐레이션을 통해 대단히 훌륭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함께 꿈을 꾸는 것이고 빅토리아 항에서 다시 한 번 수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 아시아 프로듀서 세 번째 대화 •

일자 2021년 7월 30일

참석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츠오 한치에(대만), 이잔(말레이시아), 이안 령(홍콩), 린 푸(중국)

사례연구 : Connected City

석규 2017-18년에 진행했던 커넥티드 시티 프로젝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린 토론을 해봐야 할 또 다른 주제는 “아시아의 도시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사례가 이 주제를 확장토론 할 수 있는 일종의 워밍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영국 문화원에서 3년간 일했고, 그 동안 이 커넥티드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박지선 피디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참여하였습니다. 영국 문화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및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영국과 한국을 연결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맥락에 대해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영상호교류의 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주제 접근 방식을 설계했는데, 그 중 하나는 예술과 도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0~80년대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도전과제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돌아보면, 모든 초점이 성장과 발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정부는 민주화가 되었고 정치적 상황은 변했습니다. 서울시장은 특히나 민주화 운동에

몸을 담으셨던 분으로, 공유와 공존, 그리고 시민의 시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도시를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였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경제 성장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에서 문화는 국가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즉 민족주의나 전통이 그 핵심주제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문화는 주로 관광, 국제주의 및 창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문화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생활 문화, 일상 생활 문화, 커뮤니티 참여, 도시 재생 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상당히 최근인 2000년경부터 일어났습니다. 70년대 세종문화회관, 80년대 예술의전당 등 대형 건물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과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주요 축제도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을 포함해 한국 전역에 걸쳐 4천 개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 후 2010년부터 예술, 문화, 도시의 주제가 트렌드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공유 도시(Imminent Commons)”를 주제로 던졌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성장과 개발보다 커뮤니티와 어버니즘(Urbanism)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의 70-80년대는 모든 도시 인프라가 개발된 시기로, 경제적 관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의 많은 상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도시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도시의 아이코닉(상징적인) 건물들에 대한 담론이 점점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서울 내에서 더 많은 도시 재생의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뉴욕 하이 라인(High Line)의 서울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로입니다. 938m 길이의 고가로인데, 서울역 주변의 옷 공장의 제품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남대문 시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배경입니다.

이제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국문화원은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제목을 "크리에이티브 퓨처스"로 결정하고, 도시 재구성을 위한 예술과 기술의 역할을 탐구하고 커뮤니티와 어떻게 연결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커넥티드 시티를 시작할 때 저는 박지선 피디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리서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내 예술과 기술의 개입, 두 번째는 도시 내 문화의 역할 및 재생이었습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영국 내의 접근 방식도 취했습니다.

영국 리서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 문화에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영국에 위치한 매우 혁신적인 컴퍼니인 아티초크의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루미에르 런던(Lumiere London)이라 불리는 그레이트 파이어 오브 런던(Great Fire of London)에 바탕을 둔 작업이었습니다. 관객의 상상력과 관련된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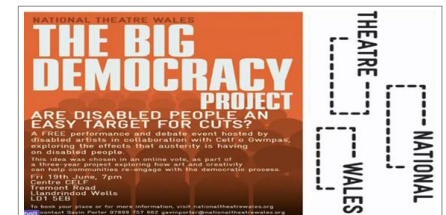
이 사진은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인데, 예술가들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도심공간에 만들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열린 미래의 도시 축제(Festival of Future City)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러 사례를 조사했는데, 도시 맥락과 관련해 어떤 포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포용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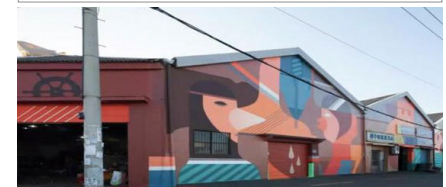
첫 번째는 웨일즈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Wales)이 3년 동안 진행한 빅 데모크라시 프로젝트(Big Democracy Project)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와 관련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항상 커뮤니티와 협력했습니다. 여러 다른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웨일즈의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터너 상을 받은,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가 국립극장의 감독과 협력을 했습니다. 19,000명이 사망한 제2차 세계대전을 기념한 작품입니다. 10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이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잊혀진 사람들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 영도에 있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영도는 부산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매우 공동체 지향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조선소와 그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대평동 해양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웨일즈 국립극장



대평동 해양 도시 재생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넥티드 시티는 2017년부터 영국문화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디자인센터와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영국문화원,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된 방향은 도시 내 예술과 기술의 개입, 도시 내 문화의 역할 그리고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은 서울의 관점이나 틀이 어떻게 '성장'과 '발전'에서 '공유, 공존, 협력'으로 바뀌는가였습니다. 커넥티드 시티에서 우리의 목표는 예술가와 프로듀서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작업방식을 개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재구성하고, 재탐험하고, 재상상하고, 재 연결시킬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서울의 공유, 공존,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공공 참여를 위해 우리가 창작인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작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실제로 커뮤니티 및 공공 분야와 어떻게 교류할 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울의 건축, 환경, 공간, 경제적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런던, 뉴욕, 서울과 같은 글로벌 도시들이 비슷한 빌딩과 건축물을 개발하면서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는 가운데, 서울의 지역적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의적 접근을 개발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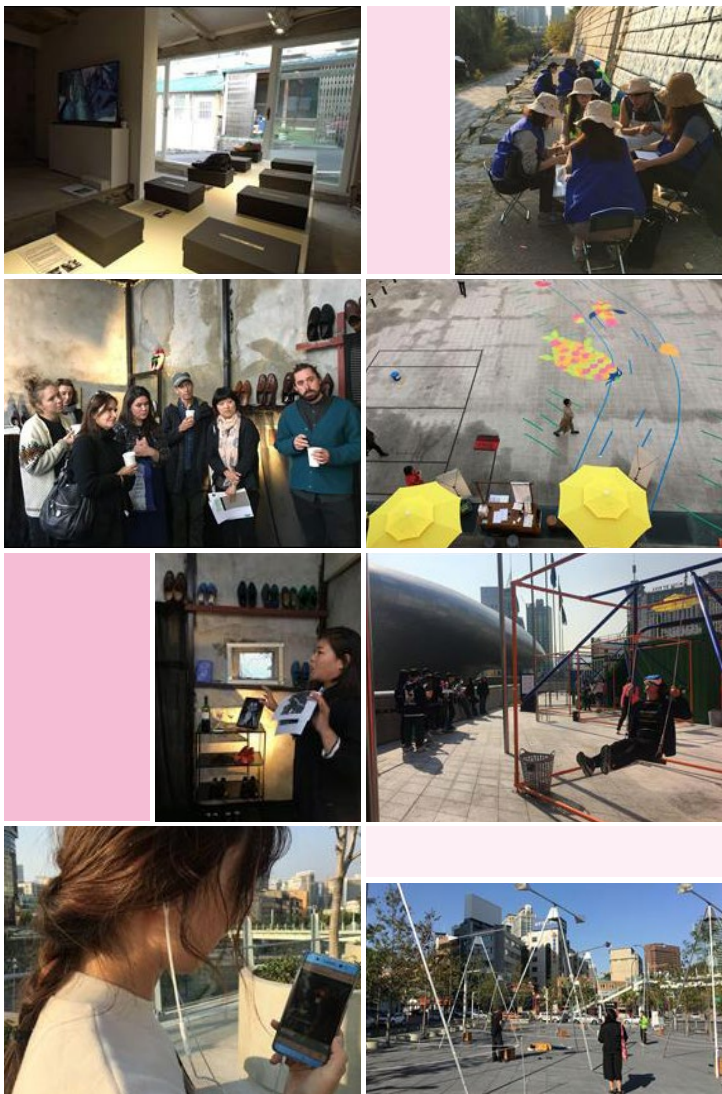
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술이 단순히 생활에 편의를 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그 방향을 전환해 삶, 예술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지난 번 미팅에서 이안 프로듀서가 15분 도시라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기술은 삶을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의 유일한 역할일까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공 부문, 도시의 맥락, 도시 재생 및 커뮤니티를 핵심 분야로 정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의 질문들과 핵심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뮤직시티 프로젝트는 GPS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도시를 걸어서 돌아다니면 도시의 공간을 음악과 걷기로 경험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폰으로 연결된 기술이 도시의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메이커시티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체에 관한 작업입니다. 동대문, 서울역 등의 주변에 소규모 제조 업체들 중 일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두, 수재화 장인들의 거주 지역도 있고, 의류 재단 등의 작은 공장들도 서울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리서치 레시던시를 통하여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박지선 피디닝, 도시건축비엔날레 팀이 처음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플레이어블 시티는 영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컴퍼니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아날로그 기술이 어떻게 도시 지역에서 매우 재미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는지 살펴본 작업입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협업 할 영국과 한국의 예술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연구를 한 한국예술가도 있었습니다.



저와 박지선 피디는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래밍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퍼포밍 시티는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거리라는 공간에서 거리극, 연극, 서커스, 무용을 만나는 방식이 아닌 공공공간에 개별적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위의 사진 중 하나는 코러스(Chorus)라는 영국 예술가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주선과 같은 설치물과 이상한 소리를 사용해 특히 밤에 도시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도심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게 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선보인 VR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결합하여 공공 장소를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VR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어처 오브제를 도시의 공간에 배치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고 놀라운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어떤 장소의 작은 사물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명의 예술가가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소에 걸어 다니면서 관객들에게 숨겨진 작은 미니어처를 돋보기로 발견하며 이야기 하는 형식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즈(Sound Systems)는 설치미술작품 공간에서 사운드와 움직임의 만남이라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영국의 예술가가 서울의 온갖 소리, 건설 소음 등에 대해 리서치 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 스케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댄서 겸 안무가인 송주원씨와 장소 특정 무용 작품을 공동 창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젊은 관객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업으로 스토리텔링 시티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도시의 젊은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면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웹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해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이 작업은 와우북 페스티벌과 함께 협력으로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에는 창작자(Creatives)의 다양한 역할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창작자란 창의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술가, 프로듀서, 기획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술가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술가들은 연구자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할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역할은 의사소통 전문가의 역할과 비슷해집니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예술가는 더 도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혁신가가 되어야 하며, 상호 문화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술가는 항상 새로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작자는 그 역할이 과정 속에서 정의되는데, 그래서 결국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점은 창작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야기 전체를 다 쓰는 전통적인 극 창작 방식 보다 더 다양하고 집단적인 방법 혹은 공동창작으로 창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의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않고 장소 반응형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야기, 다학제간 접근 방식, R&D 중심 프로세스, 보다 몰입적이고 상호 작용을 하는, 문화 간 협업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큰 도전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도시 문화 개발 프로젝트는 어떻게 다양한 도시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시아 도시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특히 한국은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를 문화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책은 매우 인기가 많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사한 도시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위험성이 도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마다 다른, 도시의 지역성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큰 도전 과제는 도구화였습니다. 결과 지향적 접근 방식은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도시 브랜드 또는 장소 마케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큰 행사로서 기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도구화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정부가 주도하는 작업을 지양하고 풀뿌리 문화 기관이나 독립 조직을 더 지원할 수 있을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풀뿌리 기관과 정부 주도 작업 사이에서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마지막 도전 과제는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유권을 공유하고,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개발하는가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이 보통 2-3년간 제공되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생각했을 때, 제가 낸 답은 커뮤니티가 주도를 해야한다고였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는 다른 문화적 예술적 관점을 시도하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신들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는 현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것과 예술가의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참여 작가 중 임지영 작가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일상 생활을 할 때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예술은 일상 생활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도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피디와 제가 발견한 사실 중 가장 큰 사실은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와 대규모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진 것입니다.

커넥티드 시티 질문과 토론

지선 커넥티드 시티의 주된 개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을 장소를 방문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도시를 지나서 사람들을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꼭대기까지 걸어가면 도시의 경관과 도시의 경계선, 도시의 높낮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시에서 다양한 종류의 축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축제는 보통 큰 광장이나 큰 장소에서 개최되는데, 우리는 축제가 도시 전역으로 분산되기를 바랐습니다. 오로지 예술가만 이렇게 큰 장소에서 열리는 축제에 초대 받아 작업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시티를 시작할 당시, 우리가 생각한 본래의 컨셉은 SPEED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진 도시의 브랜드화나 장소만들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창의성과 예술을 도구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답변이나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시티에서 예술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또한 이 문제가 이 프로젝트의 영국 파트너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대국, 패권, 정부가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는 아시아 국가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나라의 문화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석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단 공공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할 때, 왜, 어떤 이유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통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들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정 형태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예술가, 풀뿌리 단체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간에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서로 매우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주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일종의 브랜드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항상 소규모 프로젝트를 도구화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단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질문은, 예를 들어 알토펬스트 같은 경우, 예술가들은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자신들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프로젝트, 작업, 예술적 도전 과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작업 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로써 수행할 것인가입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이라면 프로젝트 지향적으로 작업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작업을 본인의 여정으로 본다면, 그것이 도구화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도전 과제를 관리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발견 하고, 정부 정책이 요구하는 바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언제나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한국과 영국 사이에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기관에도 위계질서가 있기는 한데, 하지만 한국과 큰 차이는 영국은 NPO 즉 국가 포트폴리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 3년 이상 혹은 5년 동안은 안정된 동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는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분명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 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에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술적 지속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영국의 조직들은 최대 5년 간 이 두 가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지 1년 동안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술적 지속 가능성이 최대 5년, 10년 정도 지속된다고 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1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다음 해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국 조직과 한국 조직 간의 큰 차이입니다.

지선 질문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커넥티드 시티 작업을 하는 동안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커넥티드 시티는 영국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뮤직 시티, 플레이어블 시티, 메이커 시티 등 많은 하위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라 할 수 없습니다. 참여한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를 이해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파트너들 중 일부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도시에 적용시켰고, 그래서 그러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일할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디자인 하는 것이 서로의 문화, 도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의 경우 양측의 삶과 도시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새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커넥티드 시티는 장기적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내에서 우리의 삶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엔 연결을 만들 때는 일이 더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도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서치 및 레지던시가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임현진 피디의 질문에 대해, 이탈리아의 알토 페스트 감독인 지오바니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체계(Frame)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벗어나서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체계에 속한 경우, 체계가 원하는 바를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양 측 모두 다 만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한다면, 체제 밖으로 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명백한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정 수의 프로젝트 기반 작업을 하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항상 흥미로운 발견 지점, 배울 점, 훌륭한 개입, 지역사회와의 훌륭한 연결

등을 발견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체제 내에서의 작업을 모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당혹감을 느낄 때도 있고 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체제 밖에 있으면서 새롭고 색다른 접근 방식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이안 커넥티드 시티는 아주 훌륭한 다층적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영국문화원이나 서울시가 정한 이행 사항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여러가지 겹쳐진 층 사이에서 두 가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메이커 시티와 플레이어블 시티인데, 오늘날 굉장히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커 시티와 플레이어블 시티는 수동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작업 하는 것을 거리 위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수동적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능동적이고 공격적인데, 왜냐하면 동대문 시장의 거리 위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블 시티는 장소만들기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지나가며 화려한 의상을 입은 채 모여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었는데, 원하면 그냥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고 참가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쓱 걸어 들어가서 판 위에 뛰어 오르면 됐습니다. 어린 시절 하던 놀이나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어디서나 놀 수 있고, 놀이터의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우리가 예술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임현진 피디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것을 격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제안을 격상시킬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기술과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즉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 버스도착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든 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정할 수 있을까요? 예술과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주된 목표입니다.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인간성이고,

인간적 손길이고 단순히 편의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삶의 틀 안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면, 기술을 통해 아낀 시간을 어디다 써야 할까요? 사회활동을 더 하기를 원하나요? 운동을 더 하기를 원하나요?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나요? 앉아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 앉아있어야 하나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행동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예술을 옹호하는데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저는 오늘 아침 미팅을 하기 전 예술과 기술에 대한 에세이 작성을 마쳤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다이 위드 미(Die with me)”라는 흥미로운 메신저 앱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메신저의 흥미로운 점은 배터리가 5% 이하일 때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앱의 개발자들은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에 사용자가 이 메신저를 열어서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직접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온라인 지향적이 아니라 오프라인 지향적인 앱입니다. 저는 이 사례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술이 사람들을 실제로 연결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신저가 정말 많지만 이러한 메신저들은 전부 실제 만남이 아닌 디지털 연결을 만드는 데만 사용 된다는 사실을 이 앱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예술가가 이 앱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석규 예술 및 기술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와 같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박지선 피디가 우리가 어떻게 서울의 여러 다른 부분을 연결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편의성을 위해서 연결한 것이 아니었는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커넥티드 시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나도 생경한 지역인 창신동이나 서계동에는 가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의 상징이 된 빌딩이나, 분수 등을 방문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도시의 이면을 보기 위해 서울의 뒷골목을 찾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도시 내에서 시간을 초월한 연결을 만들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들을 선택해 기술이 어떻게 둘 사이에 연결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소, 사람, 시간을 연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도시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 모두 소비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과, 제조업이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골목길이나 작은 지역에서 과거를 현재의 시간으로 끌어 오는데 기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선 피디님은 인간성과 예술 및 기술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지만, 제가 배운 것들 중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적 연결이었습니다.

지선 최석규 피디가 말씀하신 부분에 몇가지 덧붙여보면, 몇 주 전 제 친구 중 한 명이 마찰 없는 사회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찰 없는 사회는 서유럽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컨셉트입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마찰 없는 사회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접촉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이상향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불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아무 것도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와 저는 예술가들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마찰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예술가들이 이용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랜덤 GPS(Random GPS)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앱도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앱을 만든 예술가는 GPS 시스템을 해킹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입력하면 랜덤 GPS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들을 무작위로 정한 장소로 안내해 이들에게 여러 도시와 경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을 예술가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찰 없는 사회의 개념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도시의 연결: SPEED

석규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는 아시아 도시를 연결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 연결을 만드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각자 아시아 도시를 어떤 주제로 연결하고 싶은지, 어떤 관점에서, 왜 연결하고 싶은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었던 SPEED는 아시아 도시들이 빠른 경제 발전을 겪어 왔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인프라는 급속도로 개발되었지만 정치, 사회적 구조의 급변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얻은 만큼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 것은 아시아 도시들이 빠른 경제 발전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의 배경이 된 콘셉트였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도시를 초국가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SPEED는 약자인데, S는 SPACE, P, Population, E, environment, 다음 E, Economy, D, Digital technology를 의미합니다. 이면에는 어떻게 하면 아시아 도시들 간에 연결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SPEED에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다학제 간 접근 방식이며, 마지막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의 참여입니다. 도시가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도시와 관련해, 도시를 위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 도시, 수도, 스마트 시티 등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또한 서울, 타이베이, 도쿄, 베이징 등의 아시아 도시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도시들은 어떤 맥락에서 연결될까요?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분야의 창의적 협업입니다. 다학제 간 접근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APP의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들이 아시아의 도시를 연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의 컨텐트포리 맥락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아시아의 예술가 및 프로듀서와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3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해에는 리서치와 워크숍을 위한 해입니다. 둘째 해는 개발을 하고 셋째 해는 여러 대상 도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된 파트너는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입니다. 자금 지원 모델은 여러 지역 기금의 혼용 모델입니다. 파트너 예술가는, 4년 전에 만든 문서라서 당시에 생각했던 파트너 예술가 여럿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도시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본 바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고려해 본 도시들은 타이베이, 홍콩, 도쿄, 서울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제2의 도시 혹은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아시아 도시를 연결하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SPEED를 소개하였습니다.

지선 스피드를 통해 아시아의 도시를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는 영국문화원에서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와 최석규 피디가 처음 시작한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정부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독립 프로듀서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위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던 작업을 멈추고 영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위임업: 아시아의 연결을 위한 토론

츠오 작년부터 작업해 온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컨셉트는 우리가 어떻게 도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 위무영 센터의 댄스 클럽 플랫폼에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는 가오슝에 살고 있는 두 가정과 아이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 할 것이며, 현재 워크숍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시아 도시들이 공유하는 비슷한 아이디어와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는 아시아 도시라면 모두 비슷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아 극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도시의 가정과 어린이들에는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오슝을 다른 아시아 도시와 어떻게 연결할 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아시아적 맥락에서 가족과 자녀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 츠오님의

이유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시아 내 가족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츠오 저의 키워드는 가족과 아이들 보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도시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상황도 반영됩니다. 이 키워드는 아시아 내 사람들을 연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시아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원과 숲을 조성합니다. 자동차와 교통은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보호인데, 왜냐하면 지난 몇 달간 댄스 및 도시와 관련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선 저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연결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소외되어 있는 것보다 함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매우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매우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내 문화적 환경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단거리 협력은 아시아와 유럽 간 또는 아시아와 북미/남미 간 원거리 협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아시아 도시와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과거와 현재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아시아 도시 내 사람들 사이에 몰이해와 미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사회적 연결 외에 또 다른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연결은 예술적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서 왜 아시아인들이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린 저는 박지선 피디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PP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내에 충분한 연결과 대화가 없기 때문이며,

우리가 충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공유한 사례 연구는 커넥티드 시티라고 불리지만, 영국과 한국 간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많은 연결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노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공유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개발 과정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겪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과 동일하게 빠른 경제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왜 우리는 매일 12시간씩 일하는지 생각하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좀 쉬고 싶어 합니다. 비디오에 나온 영국 예술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매일 서둘러 일터로 향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모임을 가지러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술은 우리에게 멈춰 서서 이러한 행동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술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시적인 평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비디오에 나온 한국 예술가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메이커 시티를 주도한 예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술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주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팅 전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었는데, 이 분이 말씀하신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색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공통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었던 또 다른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에 관한 생각입니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전부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진은 푸젠성 샤먼 시의 주요 상업 지구 내 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97년 샤먼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은 2017년 샤먼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정부가 길거리에 있는 모든 표지판과 광고판을 획일화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샤먼 1997



샤먼 2017

상하이의 거리에서도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상점은 서로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상점이지만 같은 스타일의 동일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각 간판 위에 작은 레드 와인 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달아둔 광고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위해 단순히 획일성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오래된 스타일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는 한 도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발표 하신 내용 중 세계 모든 대도시가 비슷한 모습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현상은 한 국가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큰 나라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사진만 보서는 어떤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점점 모습이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는 도시간 모습이 유사해지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도시의 모습이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으며 정부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옛 것과 새 것 간의 대결 구도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것을 뒤엎고 새 것을 만들 때 기준이나 표준이 무엇인지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슈는 재 도시화나 재생의 문제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저에게 아시아의 국제적인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국제공동제작 작업의 다른 형식을 만들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투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도시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함께 연결해서 만들고 그리고 예술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물리적 이동성 동시에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박지선 피디와 저는 아시아의 작은 골목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길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아시아 도시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작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보자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하이나 서울에 있는 작은 골목을 조사해서 온라인에 게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술가에게 창의적인 작업의 연결 기회뿐만 아니라 재정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도시들을 구조, 체제, 재정 등의 측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색다른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저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즉, 유럽이나 북미와는 다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홍콩에 갔을 때, 저는 도심 지역에서 많은 토tem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아파트와 빌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도시 텀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 토tem들 중 상당수가 파괴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아시아 도시에는 제조업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물건을 생산해 내는데, 도시는 점점 더 소비지향적이 되어갑니다. 자라와 H&M, 대형 쇼핑몰, 식당들을 도시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정체성을 생산 도시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를 현재로 불러올 수 있을까요? 린님이 언급하셨듯이, 옛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들이는 태도가 만연한 것일까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그리고 홍콩을 방문했을 때, 저는 과거에 속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도시에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사점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작업을 기반으로 저희의 고유한 정체성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진 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커넥티드 시티 프로젝트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정말 작고 저는 모든 곳에 다 가보고 싶습니다. 린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역사를 공유하며, 아마 미래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는 아시아 도시들이 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저는 아시아 내 섬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서로 연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유의미한 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 관람했던 전시회 중 정말 좋았던 전시회의 링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404805/jeoung-jae-choulfor-love-and-peace/>

한국예술위원회(ARKO) 전시관에서 열린 전시입니다. 한국 예술가 정재철은 아시아의 실크로드와 그 위에서 비단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실크로드를 재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려진 상업용, 판촉용 배너를 국내에서 수집해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크 로드 위에 있는 도시들로 배너를 가져가 다양한 구조물을 오브제로서 만들고 이들을 공공 장소에 설치하여 해당 도시의 사람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사람들이 그들의 공간과 생활 방식 속에서 이 배너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가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실크로드가 컨템포러리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반향을 수집할 수 있을지 조사했습니다.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미지에서 그의 작업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서로 연결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본 후, 저는 예술이 세계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보여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주거적 격차 등과 같은 우리 사회 내의 격차를 다루거나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술은 박지선 피디님이 앞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층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다른 이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자신만의 접근 방식을 통해 바라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격차는 박지선 피디님이 말씀 하셨던 몰이해나 가치의 무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시의 속도로 인해 중요한 가치들이 더 무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말레이시아에서 2030 프로젝트를 목표로 세우고 사람들이 달려 들었던 것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시아 도시들 간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도시들이 무엇을 공유하는 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도시화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시아 정부들은 도시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도시가 저개발 되었는지, 발전되었는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개발의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계속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관점을 보면, 마치 정부는 개발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술이 이런 상황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이끌어 내거나, 상황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아카이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사고가 또 하나 있는데, 이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모두들 “일 안하고 어디 가세요?”라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올바른 일입니다. 지당히 해야 하는 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이자면 “편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예술이 그런 휴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그런 종류의 휴식, 취미,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현치화에 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세계적 관점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관점에서 어떻게 탐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서로 간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또한 저는 예술과 예술가들이 인간의 호기심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은 관람을 하러 온 사람의 호기심 속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꿈을 꾸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도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사치가 됩니다.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금전적 여유가 있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티스트나 프로듀서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 이들에게 사치가 아닌 환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함께 꿈을 꾸고, 꿈을 꾸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줄까요? 예술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예술가의 현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성과 감각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선 다음 미팅을 위해 각자의 도시와 도시 내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신의 도시에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도시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도시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도시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도시에서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가? 등의 질문입니다.

일자 2021년 9월 17일

참석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츠오 한치예(대만), 이잔(말레이시아), 이안 링(홍콩),
린 푸(중국)

아시아 도시 리서치: 중국

好公社(호공사, Nice Commune)

린 첫 번째로 소개할 프로젝트는 '好公社(호공사, Nice Commune)'입니다. 상하이 소재 통지대학이 커뮤니티 공간을 재개발한 프로젝트로 통지대학은 도시 디자인과 건축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호공사, 즉 좋은 공동체는 상하이 북부 지역에 가장 큰 주거 지역 중 하나인 공인신촌(工人新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인신촌은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복합 단지입니다.



사진 속 모습이 주거 복합 단지의 모습입니다. 상하이 내 위치한 이런 식의 노동자 주거 단지들의 수는 100개가 넘습니다. 오래된 주거 단지들은 60년대에 지어진 것들로 사진의 단지는 아마도 8-9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알도 시빅(Aldo Civic)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Memphis 그룹(Memphis Group)의 공동 설립자로, Memphis 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학파입니다. 알도 시빅은 몇 년 전 상하이로 이주 후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왼쪽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오른쪽은 컨퍼런스 룸 중 하나의 명판인데, '가십, 두뇌를 흔드세요'라고 써있습니다. 중국어 번역이 굉장히 웃긴데, 상하이 지역어로 하면 영어 단어 가십(Gossip)과 완전히 똑같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엉리한 언어 유희로 상하이 지역어를 사용해 지역 커뮤니티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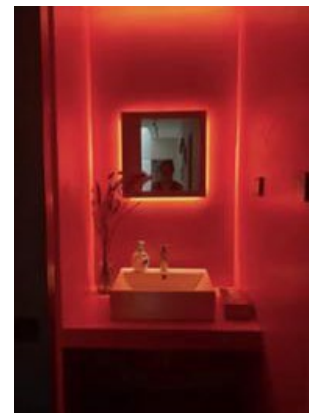




사진 속에는 최근에 진행 중인 활동들이 적힌 게시판이 있는데, 여러 워크숍이 열립니다. 수공예에 중점을 둔 활동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이 공간 주변에서 찾은 포스터인데 '동네 주민들이 행사 조직에 참가하도록 하세요'라고 써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수혜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시키세요'인데, 지역 주민에게 권한 이양을 한다는 생각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실 상하이에는 동네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 센터는 다른 곳과 달리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통지대학 건축학과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예, 댄스 클럽 등을 포함해 노인이나 아이들이 갖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서예가 새겨진 판입니다. 사실 모든 글자가 다 같은 한 글자로 가정을 의미하는 '家(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한 글자가 여러 다른 형태로 쓰여 있는 모습인데, 가정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수백만 개의 다양한 버전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하래합작사는 방공호를 커뮤니티 센터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보다시피 앞의 단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공간은 주거 단지 안 초 지역성이 느껴지는 공간에 위치하여 있으며, 상하이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사진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闲下来合作社
(한하래합작사, Free-Down Space)



이곳은 공간 전체를 새로 꾸미면서 여러 색깔을 더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방공호였기 때문에 출입문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친해지기 위한 팁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이웃들 중 아줌마, 아저씨 등을 아무나 붙잡고 인사를 한 다음 상하이 지역어 표현을 한 두개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웃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라든지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하의 총 면적은 1,100제곱미터로, 이 큰 공간을 10에서 12제곱미터 정도의 공간 30개로 나누었습니다. 독서실과 거실은 쉬면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공간은 테마에 따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미팅룸과 스터디 룸에 사용되었는데, 이 공간들은 사전에 사용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테마는 스튜디오 공간으로 예술가나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공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굉장히 인기있는 중국 소셜미디어플랫폼인 小红书(소홍서, Xiaohongshu, 작은 빨간색 책)와 파트너를 맺고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XXX 我熟'(아숙, Wǒ shú)이라 불리는데, '나는 XXX에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진에 있는 종이에 '나는 지속 가능성에 익숙합니다. 3D 프린팅을 하려면 연락주세요'라고 적혀있고, 아래에는 이분의 소홍서 아이디인 Dossy SUnn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진에는 굉장히 오래된 재봉틀이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물건이기도 한데,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죠.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 기계를 두 개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한국 피자 맛 피자 봉지를 잘라 친환경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30개 정도로 나뉜 공간 중 하나로,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카페는 사진 속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 이름을 따서 '마오마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분의 아들은 36살인데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한하래합작사 안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 카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판매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이 분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달 렌트로 약 600위안, 즉 100달러 정도를 낸다고 했습니다. 상하이 어디에서도 이런 금액으로 이정도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진 속 화장실은 아마도 이제까지 가 본 화장실 중에 가장 멋진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방공호로 쓰이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을 할 때 원래 있던 건축물의 요소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보면 마치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한하래합작사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디자인센터인 더 빅 피쉬(The Big Fish)가 구상한 프로젝트입니다. 풀타임 직업이 따로 있는 다섯 명의 건축가가 시작 했는데, 이들은 모두 커뮤니티 재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하래합작사 공간을 2021년 3월에 개방하였고 6월에 중국 내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이미지를 연상하기 쉬운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와는 달리 이 센터는 버려진 공간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다섯 명의 건축가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방공호는 거의 10~20년 간 버려져 있었고 누구도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과 지역 커뮤니티 사이에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 낸 것은 정말로 영리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권한 이양을 한 것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이라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위atch 플랫폼을 운영하여 자신들의 활동과 새 소식을 게시합니다.

위의 두 프로젝트는 상하이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컨셉트입니다. 상하이에는 최근 이런 프로젝트들이 꽤나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우수 사례들이 곳곳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재생된 커뮤니티 센터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에는 최근 새롭게 시작된 도시 디자인 축제가 있는데,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축제의 중심 주제는 15분 생활권을 다루고 있으며, 더 빅 피쉬 커뮤니티 디자인센터도 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축제에는 다섯 개의 테마가 있는데, 훌륭한 삶, 훌륭한 배움, 돌봄, 일입니다.

이안 이들은 공공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상하이로 돌아온 유명한 건축가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리노베이션을 한 것인지, 혹은 콜렉티브의 형태로 공간을 공동 운영한 것인지,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린 호공사는 통지 대학교의 교수인 이탈리아 건축가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상하이에 이주한 이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통지 대학의 도시 디자인 학과가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재생은 통지 대학이 항상 중점을 두어 온 아젠다로, 저명한 건축가가 통지 대학에 온 것이 좋은 계기가 된 셈입니다. 통지 대학에서 지역 정부에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행정 부서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반겼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역 행정 부처의 관리 하에 있으며, 통지 대학에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카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며 운영합니다. 방공호 역시 건축가 콜렉티브인 더 빅 피쉬가 버려진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더 빅 피쉬의 시간과 기술을 사용하여 공간이 리노베이션 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에 임대료 수입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제는 여러 지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초기 자금, 명성 혹은 기술 등을 가지고 와야 지역 행정 당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고, 공무원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부담을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놀랍다고 생각한 것은 지역 행정 당국의 일반적인 행태와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작업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석규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이나 리노베이션 등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문화 예술과 연계 하는 작업을 하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큰 재정적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은 보통 상업적 혹은 개별적 부동산 개발자입니다. 이들이 한 지역에서 식당이나 디자인 샵 등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큰 인기를 얻게 되면 정부도 그 지역에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순서가 예술가와 활동가인데 다만 이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모이게 되면 풀뿌리 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상하이나 중국 전역에서 재생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술, 문화, 디자인, 커뮤니티적 요소를 주입하는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마카오 근처에 도시, 주하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제가 받은 인상일 수도 있는데 도시 내 많은 문화 공간들이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개발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문화를 사용해서 스튜디오 아파트 같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업적 개발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정 소득수준을 갖춰야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하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특히나 더 대부분이 상업주의와 자본에 의해서 개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이 그랬던 것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관찰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분야가 문화와 예술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커뮤니티 개발을 하는 것일까요?

린 맞습니다. 주하이에서 관찰하신 바는 사실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상하이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문화적 투자라는 측면을 더해야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극장이나 박물관을 짓습니다. 박물관이 극장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가끔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극장도 짓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한데, 예술 프로젝트를 추가하면 이것이 판매 할 때 더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셀링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지에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의료,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말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하이뿐만 아니라 상하이, 베이징, 청두 등 모두 그런데 청두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청두에서 개발 된 부동산 중 가장 비싼 부동산은 중심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데 다수의 극장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누가 주도하는지 물으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드린 두 가지 사례를 보고 놀랐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있는 지역은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쇼핑몰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저 주거 지역입니다. 별로 흥미로운 곳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야 갈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옵니다. 이 두 프로젝트의 이면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판매를 위해서 문화적 요소를 더해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안 호공사 프로젝트와 그 곳에서 일어나는 액티비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료에서 요가, 요리 강습 등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상하이 내 중산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액티비티들로 구성되나요?

린 중산층 액티비티라고 하시면, 요가 같은 액티비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안 요가, 요리, 시 낭독, 재즈 음악 같은 액티비티가 구성되나요?

린 중산층 액티비티를 아마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직되는 액티비티 뒤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중 대부분이 젊은 교수진이나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는데 그래서 그 주제가 이 세대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형태의 노동자 주거 단지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아마도 삼분의 일 정도가 비교적 젊은 노동 인구로 상하이 출신이 아니지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하이에 와서 이 곳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주민의 60퍼센트 정도가 아이를 기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설계할 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합니다. 보통 요리 강습은 젊은 층을 위한 것인데 비교적 젊은 노년층이 참가하기도 합니다. 중산층의 활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점은 조직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크기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방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조직되는 액티비티들은 요가, 요리, 수공예, 보석 공예 등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리 강습이 가장 중산층 액티비티인 것 같습니다. 유기농 음식이나 브로콜리 샐러드 같은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평범한 주변 동네에 있는 다른 액티비티 센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액티비티들입니다.

이안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역 당국에 구성하려는 액티비티가 중산층 액티비티라가 여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프로젝트를 조직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을 얻는 것이 더 쉬운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상하이나 다른 도시에서 재현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린 상하이에서는 이런 모델이 아직 개발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5년간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축제 같은 경우 올해로 다섯 번째 열렸으며, 커뮤니티 관여와 권한 이양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협업 하면서 각 행정 구역에 새로운 색과 새로운 어조를 더합니다. 올 해는 상하이 내 두 동네가 집중 조명 될 예정입니다. 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두 동네로 한 동네에는 보라색이 배정되었고 다른 동네에는 붉은 색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구성과 동네가 연상시켜주는 이미지에 기반한 것입니다. 색을 지정하면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없다면 이런

동네들은 전혀 주목 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하이에는 수천 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안 저도 그러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블랙 엔젤 그룹이 코펜하겐에서 진행했던 수퍼 키튼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의 축제 기간 중에 열린 포럼에서 블랙 엔젤 그룹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들은 수퍼 키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의 예산 지원 기관에서 그 발표를 보면서 색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대담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이 특정한 표식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동네나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반드시 색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색을 건축물의 표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룹들을 초대해 그들의 문화적 상징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물을 집중 조명하거나, 오픈 콜을 통해 일본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문어의 이미지를 사용한 놀이터를 디자인 하도록 합니다. 이는 수퍼 키튼과 비슷한데, 수퍼 키튼은 약 10년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부분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팬데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예산 지원 기관은 소규모 행정 구역에 그 지역만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에 다시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홍콩 관광 공사가 접근을 해왔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한 작은 지역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충 보면 모든 지역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냥 전부 홍콩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지역이 팬데믹이 끝나서 국경이 열리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며 관광하길 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동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식당을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을 찾고 있으며 우리에게 해법을 물었습니다.

린 더 빅 피쉬 콜렉티브를 설립한 다섯 명의 건축가들의 이력을 읽어보았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들은 모두 미국과 일본의 건축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입한 아이디어는 아마 그 지역에서 수십년 전부터 개발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 온 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큰 간극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지역의 맥락에 맞게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상하이 토박이로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충격적이지만 커뮤니티 센터로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버려진 시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매력도 없는, 절대 방문할 일이 없었던 장소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잔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발표였습니다. 몇 주 전 이안님께서 발표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제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쿠알라룸푸르의 맥락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것들과 관련해, 지역 당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일종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논의를 할 때마다 매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 항상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맥락에서는 예술인과 정부의 관계가 크게 단절되어 있어서 서로 거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독립 예술인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작업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사업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다양한 인종 그룹들과 예술 형식에 따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국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사안이 무엇이든 상관 없이 항상 엄청나게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신 사례들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석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저희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정부 주도 개발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지만 항상 대중성, 도시 정체성, 도시 이미지, 커뮤니티를 위한 재정적 혜택 등에 중점을 둡니다. 개별적 목소리는 언제나 빠져있습니다. 또한 임대주라면 무사하겠지만 임차인일 경우 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독립 예술가나 콜렉티브 그룹들이 2-3년 후 쫓겨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속 가능성 이슈가 생깁니다. 주하이이를 보면 물론 자본주의적이지만, 중산층이 티켓을 사지 않으면 구조가 지탱되지 않습니다. 정부나 공공 분야가 개발을 주도하지 않으면 항상 정치적 이슈가 생기거나 개인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잔 저도 언제나 빠져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정치적인 논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츠오 타이완에는 15년째 버려져 있는 많은 옛 군부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퇴거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층입니다. 정부는 뭔가 아름답고 문화적인 것을 건설하려고 이 곳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정부에서 한 군 부지를 정해 예술 레지던시를 진행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누가 군 부지에 있는 레지던시에 입주 할 지 정하기 위해 많은 예술가들을 인터뷰 했습니다. 정부가 내건 조건은 예술가들이 3년간 자신들이 이주하는 건물을 수리하고, 그 후 5년 동안 그 공간을 커뮤니티 예술이나 공연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수리하고 리노베이션을 한 후, 정부는 이들이 여기에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건물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바꾸고 나니 정부는 이 곳을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켜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결정에 항의하고 있으며 그 곳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축제, 커뮤니티 프로젝트,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와 예술가들 사이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석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도시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선 많은 아시아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빠른 속도로 발전 되었다는 점, 유사한 방식의 근대화를 겪었다는 점, 도시 고유의 문화가 하이브리드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즉 도시의 고유한 문화는 굉장히 전통적인데, 식민지를 겪으며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외부의 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 도시 내의 건축물,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가 동시대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근대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시아 내에서 식민지화를 겪었던 도시라면 찾아 볼 수 있는 비슷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의 문화는 상당히 혼합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평행선을 그리며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안 제가 트렐로에 적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박지선 피디가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서구 열강 혹은 서구의 식민지 모델을 받아들인 세력의 영향을 일정 수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왜 우리 도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열세를 만회하고자 했고, 이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미 일정 수준의 자본을 쌓아 올렸지만 생각을 바꾸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혹은 더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과 관련해서도, 이제 사람들은 서로 더 연결되기를 원하며 골목길을 찾아가고, 거실로 들어가 식사 하기를 원하지, 대형 식당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강매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요점은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저는 삶의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급진적 변화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 탄소 발자국, 해수면 상승 등은 실존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에 정말 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시 기간이 끝나고 예술 작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치 체계 전반에서 생태, 업사이클링, 재활용을 옹호합니다.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내러티브입니다. 노스 포인트에서 일하며 배운 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내러티브가 있다면 언론이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 피치나 광고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언론, 신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디어가 문화계, 비 문화계, 소비자 중심 및 소비 기반 플랫폼에서 몰려듭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인기 있는 사이트, 온라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축제에 참여해서 예술 작품의 사진을 찍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제가 감지하고 있는 기류로, 지속 가능성에 큰 중점을 두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석규 이안과 박지선 피디의 이야기에 대부분 동의 합니다. 거기에 밀집도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이나 서울 같은 초거대 도시는 아파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의 초거대 도시들의 밀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군사 정권 혹은 독재 정권을 경험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세대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이 경험은 아시아 사회 속에 개인 주의와 권위 주의 사이에 갈등을 표출 시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 사람이 사고의 중점을 커뮤니티에 둘 것인가 자기 개인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내 쇠퇴한 제조업 단지화 화려한 소비적 상업 지구가 크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홍콩에서 한 에어비엔비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이 숙소가 위치한 곳은 홍콩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볼 수 있었고 낮과 밤이 이루는 대조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들이 아시아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석규 두 번째 질문은 살고 있는 도시만의 독특함이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반 농담이지만, 한국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한 편입니다.

지선 저는 서울과 다른 아시아 도시가 상당히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몇 일 동안 조용한 전통적인 마을에서 24시간 열려있는 시장, 복잡하고 화려한 도심 한가운데의 인디음악이 모여 있는 곳과 깊은 자연이 있는 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경험이 시공간적으로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도시들도 늦은 밤까지 깨어 있습니다.

린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알프스 산 근처에 있는 그르노블이라는 작은 마을로 대학으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이 곳에서 2004년부터 2005년 까지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트램 노선이 하나 추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떠났을 때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에 살던 사람이 상하이를 떠났다가 15년 만에 돌아온다면 아마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아시아 도시들 중 많은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하이 지역어를 상하이만의 독특한 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잃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지역어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전히 대부분 상하이 지역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집에서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상하이 지역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다른 상하이 토박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북경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이 지역어 단어는 좀 우습거나 진지하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홍콩이나 광저우에서 사람들이 광둥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는 광둥어 뉴스 채널이 있는데, 상하이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공식 미디어 채널은 북경어를 사용합니다. 몇 년 전에는 상하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티비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후 중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베이징에서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아이들은 상하이 지역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2-30년 뒤 한 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라질 위험에 처할 언어입니다. 제 친구들 중 다수가 상하이 토박이인데 이들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상하이 지역어를 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북경어로 가르치기 때문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상하이 지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려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대답은 북경어로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상하이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어를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안 린 프로듀서가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홍콩에서는 아직 광둥어가 공식어로 사용됩니다. 학교나 티비 드라마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펄뿌리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광둥어가 공식적인 문어로 사용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광둥어는 구어로만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둥어는 문어로 사용되어도 굉장히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서신도 광둥어로 작성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광둥어는 기본적으로 격식을 차릴 필요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둥어의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접근을 통한 발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손 글씨, 주석 달기, 소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광둥어를 문어와 서신에 사용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는 광둥어를 지지하는 내용을 출판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훌륭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티비 광고들, 예를 들어 위랩 은행 (Welab Bank)이라는 신규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 광둥어를 지지하는 교수님을 인플루언서로서 협력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은행의 광고 촬영에서 광둥어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광둥어를 쓰지 않으면 은행의 판촉행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는 가슴에 크게 와 닿아서 보면 즉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현진 한국은 대부분의 도시가 소위 ‘문화도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 때문입니다. 자신의 도시를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도시라고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시를 문화 도시로 홍보하기 위해 이미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가 똑같은 전력을 세우고 똑같은 접근을 하며, 정작 도시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도시 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작업은 공공 장소, 공공 공연장, 커뮤니티가 모이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작품을 선보입니다. 포항은 한국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바로 위인데,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 도시에 큰 철강 공장이 세워졌는데, 철강 공장에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축구팀 포항 스틸러스로 매우 유명합니다. 저는 예전에 축제를 조직할 수 있는 광장을 찾기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같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장 대신 로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들은 다닐 수 있지만 사람들이 걸거나 모이지 못합니다. 도시에 광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도시가 마치 거대한 로봇이나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중이 모일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습니다.

이안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려는 포부를 지닌다는 사실이 문화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가 제공되는 등의 혜택이 있나요?

현진 이전에 문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지선 피디의 언급이 떠오릅니다. 왜 예술 도시는 없고 문화 도시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석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이런 움직임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도시가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려면 건물, 인프라, 축제 같은 하드웨어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축제는 인프라로서 도시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 해 요즘 더 긍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작은 지역 동네, 지역적 맥락 및 정체성에 집중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지선 피디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도시가 똑같은 한 가지 색을 띤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커뮤니티, 문화 정체성, 문화적 맥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문화'라는 단어의 뜻은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 그룹이나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안의 질문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주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향후 5-10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작품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도시가 잃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선 제 생각에 도시에서 우리의 기억이 담긴 장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들도 사라지지만 특히 어린 시절 기억이 담긴 장소들이 더욱 많이 사라집니다. 이전 미팅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자랄 때 소공연장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대부터 시간을 보냈으니 꽤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대학로에서 길을 잃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순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수십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았던 곳들 중 많은 장소들이 더이상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가 집과 길, 건물에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면, 사람들의 기억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린 지선 피디가 이야기 한 것을 저도 똑같이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다닌 유치원도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도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렸을 적 추억의 장소는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저에게 익숙한 장소들, 제가 자라면서 시간을 보낸 장소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저희 세대가 가장 심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에 자란 사람들인데,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 주 전 개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새 쇼핑몰이 있는데, 이 쇼핑몰을 만든 사람들은 쇼핑몰 안에 상하이의 옛모습을 닮은 몰입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집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태어난 집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프, 만두,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현실에서는 철거를 하면서, 동시에 향수를 느끼는 경험을 팔기 위해 모조품을 짓는 아주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안 린이 사람들이 향수를 자아내기 위해 재현과 복제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덧붙여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센트럴 마켓(Central Market)이라 불리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수산 시장이었던 장소인데, 이제는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일단 접어두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입구에 빨간색 램프 30개를 두었는데, 이 램프는 옛날에 손님들이 계란을 살 때 계란이 신선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에 빛을 비춰보려고 사용하던 램프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시장에 이 램프를 예전과 같이 만들어 입구에 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도용(cultural appropriation)하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문화적 전유 혹은 문화적 도용이라는 표현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관습, 문화, 보석 등을 가져다 쓸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춤추는 용이 맘에 든다" 혹은 "보석이 맘에 든다" 혹은 행복이 쌍으로 온다는 '희(囍)' 자가 맘에 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홍콩에서 태어난 건축가들이 자기 자신의 문화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때 인기 있었던 것을 그대로 차용해 시장 입구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가져다 놔는데,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애초에 시장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니다.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볼 수 있는 유명 상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명 상표를 단 대형 브랜드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커녕 상장물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는데 이는 새롭게 개발된 상업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향수를 짜내서 미래를 위한 자본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유일한 목적은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들은 고소득자들만이 갈 수 있는 비싼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고급 식료품점을 차려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에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런 현상은 이 건물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수성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는 건물을 다시 찾고 싶어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과거를 문화적으로 도용한 모습뿐입니다. 이 기사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 시장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석규 새롭게 개발된 시장에서 좋은 점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공간에서 여전히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든 것이 서로 뒤엉켜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제가 기억하는 예전과 같은 원색적 질감이나 뒤엉킨 다양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일까 거짓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일까요? 이안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 닿습니다. 서울에는 여전히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지선 피디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작은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 왔습니다. 한국어로는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마치 미로 같아서 밤에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 잘 비치지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개발과 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공간들은 사라져 가고 있고 여기에 담긴 기억도 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지선 피디님과 저는 아시아의 도시와 도시 속 골목길을 가상 공간에

아카이브 할 수 있겠다는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골목길을 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술적 개입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쩌면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지선 저는 서울과 송도라는 두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은 제 고향인데, 린이 이야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과거 속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동생과 함께 놀던 집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저의 추억이 쌓여 있던 많은 곳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송도는 계획 도시입니다. 바다 위 갯벌에 건설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과 삶이 쌓였던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는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을 때도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석규 이만 마무리를 짓고 다음 미팅에서 질문과 생각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 아시아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아이디어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선 우리 프로젝트는 리서치를 주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수문화재단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한국에 초청 할 수가 없지만, 어쩌면 내년에 예술가와 프로듀서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APP 회원들과 리서치를 나누기 위한 오픈 포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송도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예술가들 두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픈 포럼에 참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자 2021년 10월 15일

참석자 박지선, 임현진, 최석규, 츠오 한치예(대만), 이잔(말레이시아), 이안 링(홍콩)

- ❶ 아시아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❷ 본인 도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 ❸ 도시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나요?
- ❹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무엇을 잃고 있나요?
- ❺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 ❻ 프로듀서로서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 ❼ 거주인으로서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석규 오늘은 첫째, 주제 관련 논의를 하고, 둘째, 도시 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아시아의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본인 도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무엇을 잃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프로듀서로서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거주인으로서 도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 “도시가 무엇을 잃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 있나요?”에 대해 내용을 좀 더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린(Lin)이 공유한 사례의 경우와 비슷한 감성을 홍콩에서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전체주의적 가치에 큰 우선순위가 메겨지며, 도시 계획에서도 큰 무게가 실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정책 및 정부의 모든 측면이 개발 및 경제적 가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가 얻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사실 GDP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홍콩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구도에서 볼 때 가치를 보유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몇 년이 지난 후에 가치가 상승합니다. 홍콩 부동산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재정 조달이 쉬운 부동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 중 처음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본인은 10%를 선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미 홍콩 부동산 가격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10%도 상당히 모은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 영국으로 이사한 친구들이 있는데, 영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60-70%의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미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80-90%가 보통입니다. 일부 개발업자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5%까지 낮춰줄 지도 모릅니다. 목표와 부채의 내러티브를 살펴봐도, 모든 것은 그러한 목표나 목표를 위한 지시 사항에 길을 내주는 것이 논리적인 행동이라 나와있습니다. 문화 전문가로서 우리는 공간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와 같은 공간을 사용해 많은 예술 프로그램, 리서치, 미팅 등을 조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성의 개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 듯이 가치 패러다임이 인간적 가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 수익 창출, 금전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도 중시하는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홍콩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인간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라, 재능, 혁신, 그리고 대도시가 주는 기대감에 이끌립니다. 저는 정책 입안자들과 가끔 지원 기관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어 노트 포인트(Via Nord Point)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예술 및 문화 기관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찾거나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가치 체계를 옹호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쉽사리 그러한 제품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밤 저녁식사를 하면서 들은 믿기 힘든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문화적 유용입니다. 공연의 주제부터 말씀해보겠습니다. 이 공연은 컨템포러리 오페라로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홍콩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룬 성공을 축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화유산 건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뀐 곳에서 필리핀 출신 오페라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100명을 초청해 초연을 했고 대부분의 관객은 부인이 아시아 출신 여성인 백인 가정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석규 이야기 나눠 주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내 지역민의 가치가 외부인 방문자의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맥락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거주자들의 가치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인들은 맥락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안 질문을 받고 나니 저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 부류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입니다. 업무 차 홍콩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부동산을 사거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도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과 후 무엇을 할지 찾고, 새로운 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지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즉 내부인의 중심적 관심사는 확실히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내집마련은 졸업 후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온 가족이 이를 위해 지원을 해줍니다. 저를 제외하고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른 사람을 만나보신다면, 그 사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90~95% 받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문화 기관 종사자로서, 제가 목표로 하는 관객층은 내러티브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을 갖는 세 번째 부류인 개발업자와 자금 지원 기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진보적인 자금 지원 기관들이 원하는 바는 정부 정책과 사회 및 시장의 현황 사이에 간극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저는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일정 비율을 한 관리 체계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만일 우리가 옹호하지 않는다면, 돈을 내거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갈 부동산입니다. 그러한 부동산의 작은 비율을 완전히 다른 관리 모델에게 할당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올림픽 선수촌의 모델과 비슷한 것입니다. 50%는 개인 소유이며 나머지 50%는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집단으로서 이 부동산 주변에서 자신들을 위한 액티비티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레 강습, 임산부 댄스 교습, 요가, 영화 상영, 연극 창작 등을 조직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문화 행사는 주거 지역 내에서 진행되므로 거주민을 위한 방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센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행사들을 조직했지만, 물론 자신들의 웰빙에 중점을 둔 행사를 조직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저는 런던 올림픽 선수촌에 방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런던 올림픽 선수촌에서 레지던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캠프, 하이드파크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잘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사는데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현재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미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들, 제 뒤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뿐 아니라 이들 가족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제가 옹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화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주거 공동 관리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예를 들어 전등이 나갔다가 쓰레기 처리가 안된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규 위의 질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다면, 두 번째 아젠다로 넘어가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도시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츠오 저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9월에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는데, 2분 정도 늦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는데, 딸아이가 정문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고, 선생님과 저는 제 딸이 어디를 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학교를 둘러본 다음, 딸아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갔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갔더니 딸이 혼자 집에 온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찾았는데, 주차를 하려고 지하로 내려가니, 주차장 입구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울음을 그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차고를 통해 건물로 들어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도시가 무엇을 잃는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마을에 살았습니다. 학교에 걸어가는데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등교길은 정말 안전했습니다. 주변에 자동차나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다니는 것을 보고 누구도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6살이고 혼자 집으로 걸어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서 사회가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를 하도록 지원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고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어제 가오슝에서 일어난 큰 화재입니다. 이 화재로 46명이 사망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많은 상점과 영화관이 있는 매우 유명한 백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점은 더 이상 없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여성이 모기를 쫓으려고 피운 불이 사고로 번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이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공연예술 프로듀서로서 가오슝 아이들과 제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프로젝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잔 저는 우리가 논의했던 주제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약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4년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총리 선거가 한 번 진행되었지만, 이 선거 후 지금까지 총리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고,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는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의도나 정치적 상황 전개에 대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의 실무자들은 예술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독립 예술가들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문화 예술 관광부 소관입니다. 이 부처에서 우리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창조 경제의 아젠다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예술가들을 위한 예산 전체가 창조 경제 소관 하에 배정되었습니다. 문화경제개발국, CENDANA의 관리 하에 있으며, 이 기관이 독립 예술가들의 모든 예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문화부는 완전히 발을 뺐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문화예술관광부와 접촉이 없으며 창조 경제 관련 부서들만 상대합니다.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조직되는 모든 행사가 젊은 예술가들만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경제 아젠다 하에 제공되는 예산은 베테랑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물론 창조 경제 관련 부서의 노력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젠다를 통해서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예술계에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이상 몸 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초심자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예술가와 예술 작품들은 전혀 듣지도 보도 못한 분들의 작품인데 왜냐하면 이 예술가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베테랑 예술가는 프로그래밍에 포함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산이 작은 것도 문제이고, 베테랑 예술가들의 경우 그들이 구축해온 작업 방식에 맞추려면 작업 준비를 위해 요구하는 바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 경제 관련 부서는 자신들의 콘텐츠와 예술가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고, 이것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계속 되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이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베테랑 예술가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을 해서 이제 막 예술가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젊은 예술가들이 득세를 하는 가운데, 30년 이상 작업을 해온 진짜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예술 행사, 예술가 및 예술 그룹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색다른 구상안과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얻기 위해 요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남 아시아 국가의 상황들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예술이 아닌 과학 관련 부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처는 예술과 과학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하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토키오 스튜디오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이를 이유로 저는 과학계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처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큰 그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규 한국과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조 경제나 장소 마케팅이 때때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관계. 커뮤니티 예술, 도시 예술 보다는 도시 개발에 중점이 놓입니다. 우리는 예산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데, 그들이 연결을 하려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은 다양한 연결이 만들어지며 다양한 자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프로듀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잔 창조 경제 관련 부처에서 예술에 자금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이 현재 예술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술가를 위한 유일한 플랫폼 및 채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지원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관광문화예술부는 이 구도에 남아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창조 경제 기금은 예전에 기재부가 관광예술문화부에 제공하던 예산과 동일한 원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예산을 창조 경제 관련 부처로 이동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제 이 돈이 문화 예술 지원금 전부이고 이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문화예술부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에게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석규 방금 이잔 피디가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해야 할까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함께 일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일회성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모델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결할까요?”라고 질문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커넥티드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APP멤버들에게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 나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서로 다른 도시 구조 등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표에 기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연대지만, 아직 행동이나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아시아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안 제가 다음 주에 참여하는 도시 재생 포럼을 위해 준비 중인 형식을 제안해도 될까요? 하이브리드 형식입니다. 아침에는 강연식 발표를 하고, 오후는 워크숍을 하는

형태입니다. 워크숍은 1-15명 정도로 구성되며, 2일 동안 4가지 유형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조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형식을 우리의 맥락에 맞게 사용하면 참석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워크숍의 진행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이 경우, 참가자들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금을 생각하는 역할이나 혹은 기재부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노력에 대해 생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 "말레이시아 예술가들이 관광부의 내러티브를 사용하는 데에 열려 있습니까?"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화 산책, 소리 산책, 사운드 앱 개발 등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앱은 도시 경관을 다시 디자인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구상안을 한 번 그냥 소리 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예술가들이 그러한 측면을 고려할 만큼 개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의료 분야를 살펴볼 정도로 우리가 개방되어 있나요? 아니면 관광 분야나 다른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정부측의 생각이 포기 단계에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활동 범위를 넓혀서 다른 분야와 연계해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이를 정의해야 합니다. 심층적 교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잔님이 질문을 적어 설문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답변을 15분 정도 들어 작성하고 나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형식입니다.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통찰력을 빌린 것입니다. 소규모의 워크숍을 여러 개 조직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1일에 우리 리서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일방적인 강의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워크숍 형태로 하자는 것입니다.

석규 행동을 이끄는 작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연결은 행동 기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안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개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다양한 자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서 가상 공간이나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홍콩이나 수라바야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도시 내에서 물리적으로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메타버스에서 전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대와 공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협력도 중요합니다. 연결 방식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이안님이 하이브리드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자원을 가져오는 것도 프로젝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선 10년 전 한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정부 기관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그들은 소위 공정한 교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컴퍼니와 협력하려면 영국 측과 저희가 동일한 규모의 프로젝트 예산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내에서 협력하고 연대를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각국과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각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모든 자원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그 자원을 재구축하는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시아 내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은 유럽과 협력하는 방법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지선 피디가 중요한 요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행동 하는 것에 대해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신 키워드가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역할 #도시

#유동성 #시 #안전 #창작 #존재 #지금 #회복력

지선 예술의 역할과 관련해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입니다. 저는 예술이 우리 도시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아시아의 현대 도시들은 경직되고 관료적인 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도시에 유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시입니다. 예술이 도시와 도시 내 사람들을 더 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아시아 도시 중 일부는 민주주의에 앞서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는 다양한 증오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사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 이웃들 사이에 증오와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층간 소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음으로 인해 한 가정과 그 위층 이웃 간에 잔인한 폭력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술이 개입해서 이웃들 간에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도시를 안전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의 세 가지 키워드는 유동성, 안전, 시입니다. 예술의 힘이 도시를 유동적이고, 안전하고 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도시와 관련된 독자적인 연구를 몇 가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강남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고 주로 강북에서 지냅니다. 제 연구는 제조와 소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지역을 다섯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을지로입니다. 이곳은 소규모 금속 공방과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가동 되고 있습니다. 리슨투더시티(Listen to the City)라는 그룹이 여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들이 웃는다(Elephant Laughs)라는 또 다른 그룹과 이 지역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술이 서로 다른 시간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규모 작업장들을 보면, 70년대와 80년대를 떠올립니다. 예술이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종로입니다. 보석 세공과 판매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고 허름한 스튜디오 스타일의 방이 많이 있는데, 이는 홍콩에서 볼 수 있는 방들과 비슷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한국판 체스인 장기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작은 바 같은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이들을 위한 공간 중 다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사람, 사물,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지로

종로

창신동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작은 직물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커넥티드 시티 프로젝트 발표 중에 언급했습니다. 대형 도매시장인 동대문에 옷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서계동과 만리동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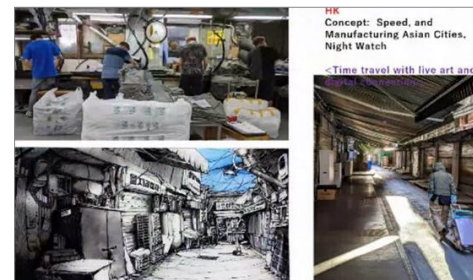
창신동



서계동, 만리동



코펜하겐 걷기



제가 밤에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 몇 개를 보여드립니다. 박지선 피디가 유동성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을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예술가 또는 운동가가 이곳의 커뮤니티와 협업 할 때 생기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술은 커뮤니티와 연결을 한다기 보다 커뮤니티를 대상화하거나 단순한 자원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술의 역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키워드는, “창작, 존재, 지금(make, exist, now)” 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을지 라는 사안입니다. 사회와 도시에는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시티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도시의 소비 중심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절대 제조업 중심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사람들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할 때, 이렇듯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에 대한 리서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행사나 축제를 할 때 항상 대규모 행사, 대규모 소비, 대규모 관객 등 모든 것이 대규모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로만 연결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에게 더 큰 중점을 두는 작은 연결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밤에 더 자주 산책하고, 자정 무렵이 되면 자취를 감추는 것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밤은 매우 음산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저는 예술이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핑크 레지던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가들이 서울에 방문해 제 집에 머물면서 리서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연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 박지선, 최석규 프로듀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키워드 하나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회복력입니다. 제 생각에 예술과 도시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회복력일 것입니다. 초오와 박지선 피디가 언급한 도시의 안전이 이 개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인프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면 더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편견이나 사회적 역학의 또 다른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과자 옆집에 산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느낌은 단지 우리가 차별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의사, 교사, 회계사 같은 특정 유형의 사람 옆에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초오님이 아이들이 혼자서 학교를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혼자 학교를 했던 기억과 혼자 운동장에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은 우리가 관리 모델에 의존했다는 점, 쉬운 선택지를 골랐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예술이 이 부분을 가능케 한다면 어떨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예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며, 함께 사는 사람들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최석규 피디가 정확히 짚어 준 부분,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선 오늘 미팅 시작 전 최석규 프로듀서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Black Mirror)를 발견하고 한 에피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죽은 채로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기억과 정신을 디지털 공간에 업로드해서 디지털 세계에 존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죽음이라는 무지의 공간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난 장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각자 도시의 여러가지 면모를 모아 디지털 공간 속 메타버스에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 추억 속에서 세 가지만 골라서 넣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골라, 이들을 모두 모아 우리만의 아시아 메타버스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워크숍과 관련 제가 생각해 본 아이디어입니다.



오픈 워크숍

Open Workshop

- 146 1부 Part 1
- 194 2부 '송도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과 질문들'
Part 2 Artist's Perspectives and Questions on Songdo
- 282 3부 '워크숍' Part 3 Workshop

오픈 워크숍

- 일정 : 2021년 11월 30일(화) 11:00-13:30
- 장소 : 온라인 Zoom(meeting)
- 참여인원 : 외부 20명(2개 그룹으로 운영)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발제자/토론자
모더레이터 : 박지선			
1부	11:00-11:05	소개	
	11:05-11:20	[발제1] 도시와 예술 -홍콩 노스포인트(North Point)를 중심으로	Ian Leung
	11:20-11:35	[발제2] 국제도시에서 문화와 예술의 위치와 역할	최석규
	11:35-12:00	[토론] 도시, 예술, 아시아 도시의 연결 키워드를 중심으로	E-Jan, Lin Fu, 박지선, 임현진
모더레이터 : 최석규			
2부	12:00-12:40	송도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과 질문들	김보람, 송주원, 임현진, 박지선
	12:40-13:10	[워크숍] #지속가능한도시 #매니페스토 (MANIFESTO)	소그룹
	13:10-13:30	[공유] 그룹별 토론 내용 발표	



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커넥티드 시티-송도 프로젝트> 오픈 워크숍 전체 녹취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Open workshop

- Date: November 30, 2021 (Tuesday) 11:00-13:30
- Venue: Online Zoom (meeting)
- Participants: 20 outsiders (operated in 2 groups)
- Program

Part	Time	Program	Presenter/ Debater
Moderator: Park Jisun			
1	11:00-11:05	Introduction	
	11:05-11:20	[Agenda 1] City and art - Focused on North Point, Hong Kong	Ian Leung
	11:20-11:35	[Agenda 2] The position and role of culture and art in an international city	Choi Seok Kyu
	11:35-12:00	[Discussion] Focusing on keywords connecting cities, art, and Asian cities	E-Jan, Lin Fu, Park Jisun, Yim Hyunjin
Moderator: Choi Seok Kyu			
2	12:00-12:40	Artist's perspective and questions about Songdo	Kim Borahm, Song Juwon, Yim Hyunjin, Park Jisun
	12:40-13:10	[Workshop] #Sustainable City #MANIFESTO	Subgroup
	13:10-13:30	[Share] Presentation of discussion results by group	



Scan the QR code above to view the full transcript of the open workshop of <Connected City-Songdo Project>.

첫 번째 발제

이안 령 (Ian Leung) / 프로듀서, 홍콩 아트센터

저는 오늘 홍콩의 최근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홍콩아트센터의 퍼블릭 아트 홍콩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 개발에 힘 쏟고 있고,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최근 홍콩의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콩아트센터는 43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완차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NGO로서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술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 중에는 저희를 유지하게끔 도와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홍콩아트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장, 영화관, 다양한 예술 시설이 위치해 있는 복합 예술 허브공간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리허설 룸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 예술, 공연 예술의 여러 분야를 다루고자 합니다. 관객 개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트센터를 위해서 관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아트 신 전체를 생각하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플랫폼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역예술가들을 국제적인 예술 신에 소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TR 지하철에서 진행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역 같은 경우, 2년 전에 개관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참여 작가는 charcoal 페인팅 작품으로 알려진 램 텡-팡(Lam Tung-pang)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하철역에 그림이 그려진 벽화인데, 우측 페리선에 한 사람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패밀리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아트 컨설턴트 역할을 할 때, MTR과의 커미셔닝 작업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작업에 적합한 예술가들에 대해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Agenda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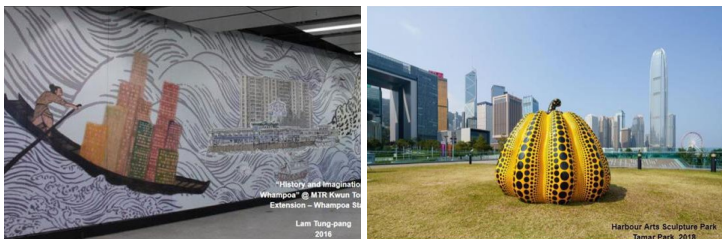
Ian Leung / Producer, Hong Kong Arts Center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latest art projects of Hong Kong. I work for the Public Art team of the Hong Kong Arts Center. In particular, I have been working hard to develop audiences with a keen interest in performing arts. There will be several related elements during my presentation about recent projects in Hong Kong.

Hong Kong Arts Center has 43 years of history and is located in Wan Chai. As an NGO, we do not receive government funding. I am not a civil servant, and doing works related to art. Some projects I am presenting helped us maintain the identity who we are. Hong Kong Arts Center is conducting projects in various fields as a multi-arts hub space being equipped with theaters, cinemas and art facilities of multiple floors. In addition, it has a black box and rehearsal room. The facility aims to offer a wide range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disciplines. I also think audience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Developing the audience is not only for the art center, but also for the whole art scene. The platform is another factor of consideration. We are working hard to introduce local artists to the international art scene in the future.

The first project to introduce it that of MTR subway. This station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two years. The artist, Lam Tung-pang who is known for his charcoal paintings

워크숍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워크숍은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의 방식에 있어서 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지하철역 등을 결정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했지만 커미션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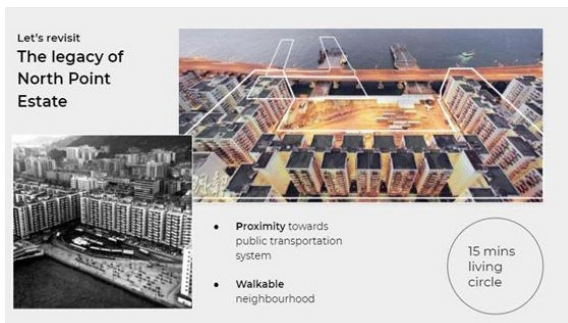
또 다른 프로젝트는 최근에 진행한 하버 아트 조각 공원(Harbour Arts Sculpture Park)입니다. 정부의 본부 바로 근처에 위치한 하버 아트 조각 공원에 조각들이 있습니다. 2018년 국제적인 작품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적으로 작품을 공공 싸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돛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할 수 있으며, 햇빛을 받고 바닷바람을 느끼면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제 생각에는 벽을 허문다고 해야 할까요. 예술 시장의 맥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술을 놓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것에 항상 주안점을 두어 예술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결국 타당한이었습니다. 두 명의 큐레이터가 작품을 담당했는데, 이 작품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당한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is is a mural painted on wall of the subway station. You can see a person on the right side of the ship. This was a venue for a family workshop before. Years ago, we also worked on commissions with MTR when serving art consulting. For that, we started researching artists that we thought would be suitable for the project. The workshop for families and children was conducted as a part of the process. I think the workshop is an example showing the method of work we want in the community. Only, the work was based on top-down approach in which the client made the decision including selecting the subway station. We did research because it was commissioned.

Secondly, the recent project in the Harbor Arts Sculpture Park. Harbor Art Sculpture Park is located near the government headquarters and is filled with a great collection of sculptures. In 2018, there was a suggestion that we should collect world's famous works of art, and make them enjoyed in Hong Kong. This picture is the embodiment of the idea. We didn't want the artworks to be protected for security rather, want to allow them to be enjoyed directly. This is a place where people can see the work while having a picnic on a mat. We created a space where anyone can spend time with the sunlight and sea breeze.

This is another project breaking down walls, in my opinion. We wanted to place art between people, not in the context of the art market by focusing on making art close to the general public. In other words, we tried to make art accessible. But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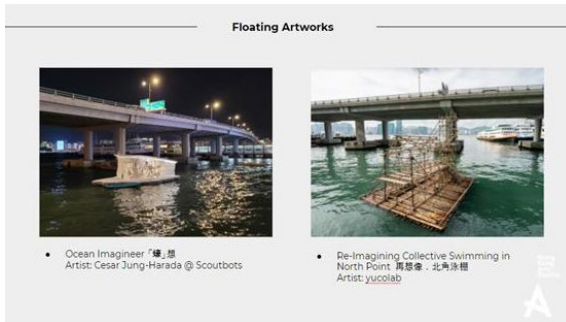
지금 보시는 것은 노스 포인트(North Point)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탑다운은 아닙니다. 이는 바텀업 방식을 좀 실험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노스 포인트 지역의 예전 사진입니다. 노스 포인트는 50년대 영국 건축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하고 건설, 설계를 했습니다.

노스 포인트를 보시면 교통, 출근 안전한 배가 선착장에 닿을 수 있는 구조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보시면 선착장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선착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 선착장입니다. 즉, 사람이 갈 수 있는 선착장이 있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선착장이 있는 겁니다. 보행 가능성도 높고, 1시간 안에 왕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분 도시(Fifteen Minutes City)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동하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럭셔리 생활공간과 쇼핑센터, 호텔 등이 많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부지에 사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층을 이동함으로써 쇼핑센터도 갈 수 있고 아케이드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wasn't enough. This project also adopted top-down approach. Two curators were in charge of the work, determining where each artwork would fit.

This is what we call "North Point project". Unlike previous projects, this one was not completely top-down style. It adopted experimentally the bottom-up method. What you are seeing now is a photo of the old North Point area.

North Point was built and designed with great precision by a British architect in the 50's. Current design considers almost everything from transportation and commuting to the structure that allows a boat to reach safely the marina. As you can see, there are two marinas, one is a car marina and the other is a public marina. In other words, there are two docks, one where people can go, and the other where cars can go. The possibility of walking is high, and the round trip is possible in less than an hour. So here comes the concept of a Fifteen Minute's City, meaning it is very convenient to move around. But there were also big changes, in terms of real estate in particular. As luxury living spaces, shopping centers and hotels are being



저희는 이매지니어(Imagineer), 상상하는 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요,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설치 작품의 수가 20개 정도 됩니다. 물에 떠 있는 예술 작품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유산을 연결하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940년대에 사람들은 이 빅토리아 하버가 있는 곳에서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술 해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다양한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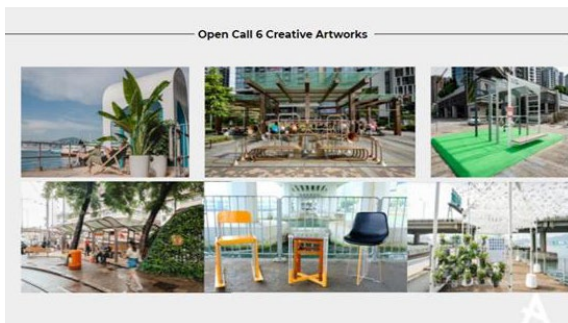
또 다른 프로젝트는 오션 이매지니어(Ocean Imagineer), 바다의 상상하는 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굴을 살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굴은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생물체로서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케미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굴을 사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constructed, another way of approaching must be taken to ensure accessibility for people living in the new estate. By suggesting the way of moving two floors, you can go to the shopping center and to the arcade conveniently from the real estate site.

We wanted to apply the concept of the Imagineer, meaning the imaginer. It can be said a very big project in a way. Despite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installations reached about 20, including two pieces floating in the water.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concept of linking heritage. It is said that in the 1940's, people swam in the location of this Victoria Harbour. It's unimaginable now.

There are various artworks created by the local community with the theme of art ha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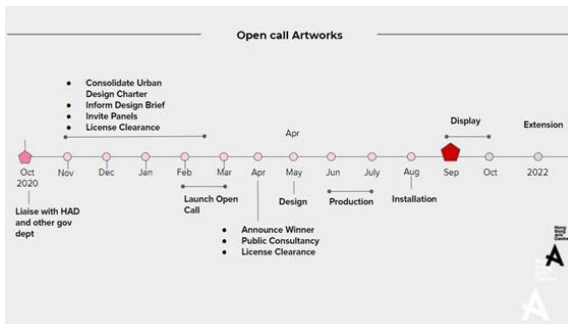
Another project is Ocean Imagineer, meaning the imaginer of the sea. The project is about oysters because they are efficient and organic creatures and purify the water. In fact, there is no need for chemicals for purification. We examine the idea of using oysters to make water clean.



다음은 오픈콜 작품입니다. 다양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는 레저 목적이 강합니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든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 만들기의 개념과도 관련 있습니다. 심포니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의 소리를 교류 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사진의 왼쪽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는 음식 폐기물 집합소입니다. 바이오 매스로 폐기물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 가스를 창출하게 되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옛날 의자를 사용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자를 사용한 프로젝트인데요. 도시에 이 의자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이미지를 보시면, 플레이스 메이킹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공간을 바꾸어서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도시 공간에서 가능한 많은 곳을, 많은 틈새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점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곳의 많은 상점들은 수 세대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Next is Open Call in a variety of contexts. Some have a strong recreational purpose. As a space to enjoy, they aimed at creating enjoyable spaces. It is also related to the concept of place creation. The artwork named “Symphony” is a medium that allows peop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t is also a device to which people can tell secrets. It is installed on a concrete floor. If you look at the lower left image of the photo, this is a food waste collection point. Here, food waste turns into biomass, generating biogas, an energy source. With this measure, the work can generate the electricity it needs. There is another project using old chairs that are no longer needed. They are placed across the city. At the bottom right, it is a photo of place creation. The concept of recycling was explored by transforming an ordinary space.



두 가지 타임라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커뮤니티를 어떻게 참여시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2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팬데믹이 시작 됐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 2021년 9월에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콜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단순히 아티스트와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건축가나 조직 설계자들, 엔지니어들과 함께 접촉합니다. 저희의 전문가단이 되는 거죠. 전문가 컨설턴트들을 모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이는 개방되고 평등한 플랫폼이 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의 디자인을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이 동네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보고 싶은지 함께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도시 워크숍으로 도시 디자인 현장을 만듭니다. 8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이드를 만듭니다. 노인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만나 이 동네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하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개요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도시 디자인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개요를 문서로 만드는 것이죠. 이후 오픈콜을 진행하고 76개의 제안서를 받습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전문가들, 건축가들, 예술 비평가들 등 15명의 대표를

We wanted to make use of as many places as possible in the urban space, and as many niche areas as possible. Many shops and the locals participated in the work, and many of the shops here have been operating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wo timelines in relation to how to engage the community. The project started in December when COVID-19 pandemic began. As you all may remember, after that, the event started in September 2021. Let me explain a little more about Open Call. For the project, we contacted not just artists, but also architects, organizational designers and engineers with expertise. They became our expert team, per say expert consultants. Often, they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t also became an open and equal platform. We did not just bring the community's design to us, we discussed it together what is important, what changes we want to see, and what changes we want to see in this neighborhood.

And, finally, we created the Urban Design Charter as the Urban Workshop. We had eight series, and through these we came up with guidelines.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ere brought together to research, survey, and interview the neighborhood.



선정하여 제안받은 76개의 제안서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각자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기관 리스트입니다. 홍콩 건축센터, 이노베이션 랩, 도시 디자인 연구소, 건축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이 저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이분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많은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비아 노스 포인트 페스티벌(Via North Point Festival)입니다.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회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을 초청합니다. 또 플레이스 메이킹 장소 만들기를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선착장에서 아트 카니발 페어도 진행합니다. 뮤직 퍼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세대의 연합을 만들고 많은 노년층도 초청하여 굉장히 생동감 있는 무용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낮이나 야간 시간에 진행되는 무용 페스티벌이 있고, 관객들이 동물의 역할을 하면서 연극을 하는 포럼 씨어터도 있습니다.

Then we run this workshop. The purpose of the workshop was to create this design outline. Documenting the design outline for this Urban Design Charter. After that, the Open Call was conducted, and 76 proposals were received. 15 representatives, including local artists, experts, architects and art critics, were selected based on the 76 proposals. Several generations gathered together to discuss. It was a place of sharing creative ideas that are very unique and out of box.

This is a list of organizations we are working with. We are working with Hong Kong Architecture Center, Innovation Lab, Urban Design Institute, Architecture Research Institute, and many others. All these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us, not only as the supporters of workshops, but also as active partners. A partnership plays a key role in the arts and architecture. Without their support, w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onduct as many as workshops.

The Via North Point Festival is made up of eight key elements. Not only works of art, but also various forums are in progress. All participants are invited to a joint banquet. The place creation continues for a month, and an Art Carnival Fair is held at the marina. Through the music parade, we create a coalition of different generations, invite elderly people, and conduct a very lively dance performance. Dance festivals are held during the day and night, and the forum theater offers the chance for the audience to play the role of animal acting. It also becomes a forum to discuss how to create such a public space together.



이는 공공 공간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지 논의하는 장이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을 진행 할 때 더 많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 또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공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화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관객들에게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제작하고 이 포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저희 과정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프로젝트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만드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커뮤니티, 공공의 이익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해안가의 식목일,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 관리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상하며 진행합니다. 우리는 공공 공간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함께 논의한 거죠. 즉, 그분들이 오셔서 단순히 신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환이 돼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We are very sensitive to this process because we regard it as an opportunity to collect more opinions and evaluate data for conducting a festival. So, we're prototyping and creating ideas for this public space and opening it up to more people. We don't just present diagrams to our audience, and actually allow them to create and utilize this format. They consider themselves part of our process. But one day this project will be over. So, we have to think carefully about the impact we make. One way is to create a sustainable community. What we want to create is a small community that shares the interest with the public. For instance, Arbor Day on the shore took the concept of co-management with the tree planting project. We did not negotiate with them, nor force or dictate anything. We provided only public space, and people designed the space by themselves. We discussed management methods together. In other words, they did not come to learn how to plant a tree but created the space as a part of the process.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을 NGO나 현지 학교에 기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러 NGO와 함께 협력하고, 자선 기관, 재단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어떻게, 어떤 물품들을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 거주, 함께 공존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민간 개발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와 지역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자들과 많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술이 많은 민간 공간과 공공 공간을 함께 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단순히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선

마지막에 예술이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부 이야기는 자료집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via-northpoint.hk/en/Welcome> to check it out and further discuss any point of interest ileung@hkac.org.hk <https://www.youtube.com/channel/UCz20dDmB8In4lfQ1vu3Z5vw/playlists>

We received a lot of good feedback while doing this last project. Some artworks are being utilized in different ways from the original utilization. These works of art can be donated to NGOs or local schools. In Hong Kong, we work with several NGOs,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several foundations, which I think is a good example.

I think it shows what kind of behavioral change art can bring about. I think the projects show how we can offer not just a public space, but also that educational knowledge, how we can recycle what items and how we can create sustainable communal living and coexisting communities. Recently we had a discussion with private developers in Hong Kong. I think we are in a very important second stage right now, in which we can do a lot of works with private developers as well as with the community and local partners. And art can fuse a lot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together. Art doesn't just point out something but can play a role in building communities together. This was my announcement so far. thank you.

Park Jisun

Thank you for presentation. It introduced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city and the collaboration to build partnerships and build new communities. I think it conveys very important meaning. It would be good to look into the details of such stories later in the resource book or the website.

<https://www.via-northpoint.hk/en/Welcome> to check it out and further discuss any point of interest ileung@hkac.org.hk <https://www.youtube.com/channel/UCz20dDmB8In4lfQ1vu3Z5vw/playlists>

두 번째 발제

최석규 / 프로듀서

송도를 처음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글로벌 시티 혹은 인터내셔널 시티와 연계하여 국제도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발표는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부자의 눈과 관점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두 번의 방문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안이 발표한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나 발견 지점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이라든가, 발견되는 지점에서 더 많이 들게 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컨셉추얼 프레임 워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도를 외부자의 시선을 볼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국제도시, 송도입니다. 외부자의 관점에서 국제도시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국제도시라고 불리어지는 세계적인 기준 혹은 표준에 대해서 조사 해봤습니다. 글로벌 국제도시지수, 국제도시전망이라는 지수를 통해서 이 도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컨설팅 업체인 커니(*KEARNEY, <https://www.kearney.com/global-cities/2020>)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커니에 의한 국제도시지수는 5개 항목으로 나뉘집니다. 기업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경험, 문화 경험, 정치적 참여 부분에 29개의 세부적인 척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업 활동 영역에서 보면, 기업의 유치수, 자본시장,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과 의과 대학의 숫자 등이 척도가 되며, 문화적 경험 영역에서는 공연 예술이 어느 만큼 그 도시에

Agenda 2:

Choi Seok Kyu / Producer

I am given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theme of an international city and the role of culture and art in connection with the global city or international city, which has been often repeated when discussing Songdo. The first thing I want to say is that this presentation is an opportunity to share our thoughts through two research visits, not from the perspectives of insiders living in Songdo, but from the outsiders. So, unlike the presentation of Ian, I am going to talk from the perspective of a very conceptual framework, focusing on curiosity occurred at the point of being discovered as an observer rather than specific examples and the point of discovering.

As you all know, when looking at Songdo from outsiders' eyes, the first word that comes to mind is the "international city, Songdo." Then one of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was what is an international city from an outsider's point of view, and what does it mean to have a truly international city in the future? So, I first investigated the global standards for what is being called an international city, which is Global City Index, based on data published by consulting firm *KEARNEY (<https://www.kearney.com/global-cities/2020>).

KEARNEY divides the International Cities Index into five categories and 29 subcategories in the areas of business activity, human capital, information experience, cultural experienc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business

풍부하게 있는가, 미술관, 박물관 등이 얼마만큼이 있는가가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뉴욕, 런던, 파리가 세계 국제도시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것은 아시아 도시 도쿄, 베이징, 홍콩이 4, 5,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도 2022년 발표에 의하면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영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글로벌 도시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무엇이고, 도시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면서 공공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티보다는 휴먼시티, 살기 좋은 도시의 삶의 질로 보고 이를 새로운 지표로서 지속 가능성과 타다운이 아닌, 풀뿌리 문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에 대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나 호주의 멜버른 등이 새로운 휴먼 시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송도 리서치를 통해서 바라본 도시의 국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컨설팅 회사 커니가 발표한 기준으로 송도를 바라봤을 때, 송도는 우리나라의 관문이죠. 국제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 누구나 국제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대학,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송도가 갖는 국제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 공간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의 공간성은 분명히 국제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의 국제도시적 장소성은 존재하는가? 이게 저의

activity, the number of companies attracting, capital market, and physical part as well as the number of foreigners in terms of human capital, the number of international-level universities and medical schools, etc. are the indicators. As for cultural experience, whether performance arts are abundant in the city and how many art galleries and museums are there are the bench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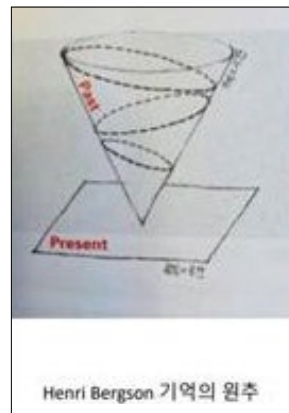
From that point of view, New York, London and Paris rank 1st, 2nd, and 3rd as the world's international cities. What is notable is that Asian city is growing rapidly in the field and Tokyo, Beijing, and Hong Kong occupy 4th, 5th, and 6th places. Seoul ranks 17th according to the 2022 announcement. Recently, however,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has raised new questions. The challenge to become a global city raises new questions about what a new investment is to become a city of the future and what value of a city can offer, drawing more attention to the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as a work to spread public values. Now, what become more important to us now is that the new standard of a human city, a livable city, was viewed as the quality of life than the title of international city. And grass root culture and humane life add importance as a new reference point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and top-down approach which were regarded important during the time of growth. For example, Copenhagen in Denmark and Melbourne in Australia are emerging as new human cities.

From now on,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internationality of the city based on research on Songdo. When looking at Songdo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즉, '송도라는 도시의 공간에 사람들의 경험과 삶과 애착이 녹아들어서 그 공간에 가치가 부여된 국제도시성, 송도의 장소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송도의 공간성과 창조성에서 세 가지의 발견 지점 혹은 질문 지점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계의 음유시인인 조환 교수가 '우리에게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도시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은 공간이 아니고 시간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공간을 보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과거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느낌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베고 송이 '기억의 원추'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현재 물질적인 공간이 여기에 존재하지만 이 원추 형태의 기억의 시간이 도시에 감동을 주는 게 그 핵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도의 경우는 과거 기억의 시간의 원추는 사실 굉장히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송도가 계획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원추의 꼭지 지점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드는 질문이 미래 도시 또는



Henri Bergson 기억의 원추

according to the standards announced by KEARNEY, Songdo is the gateway to Korea. It has excellent international accessibility.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it is an international city. And in the Free Economic Zone, global companies, international universities, and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located in Songdo. From this point of view, we see no doubt about Songdo's character as an international city.

When we talk about cities, we consider spatiality and placeness at the same time. The spatiality of the city of Songdo is clearly that of an international city. However, my first question is if Songdo has international placeness. In other words, my first question is how Songdo's placeness shall be created with people's experiences, lives, and attachments melting into the space of the city of Songdo to build on the value of international city. Let me talk about three points of discovering or question regarding spatiality and creativity.

Professor Hwan Cho renowned as a poet in the architecture world said, "When we talk about cities, we are moved by time, not space." In other words, when people look at space, they recall memories and go back in time in the past. It brings back memories of the past and conjures some feeling of the present.

This screen shows 'Cone of Memory' developed by the French philosopher Henri Bergson. It suggests that material space exists here, but what is touching is the cone-shaped memory of the past. In that sense, in Songdo's case, the cone of time of past memories is actually very shallow. Because Songdo is a planned new city, the apex of the cone is inevitably weak.

현재만 존재하고 미래가 더 중요한 송도이지는 않을까?입니다. 송도 어디를 가도 미래도시라는 이야기들이 송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 청라, 영종도를 연계시키는 미래도시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과거 기억의 시간성이 존재하며 현재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송도의 장소성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송도는 계획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송도는 세계적인 도시 디자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센트럴파크나 커널(Central Park, Canal)을 걸으면서 뉴욕과 베니스의 옷을 입고 있는 듯 아직은 잘 맞지 않는 어색하고 남의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디자인 모델들이 공간에 존재하지만, 아직 장소로서 이렇게 녹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송도가 갖고 있는 다른 데서 빌려온 도시의 공간성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 지점은 도시가 어떤 무대 세트 같다는 느낌입니다. 도시의 안과 밖에서 굉장히 다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에어비엔비나 호텔, 극지연구소와 같은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송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었는데, 실제 도시를 걸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 안과 밖의 다른 체험들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부터 차용한 디자인 또는 콘셉트가 어떻게 송도만의, 송도식 또는 송도형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장소성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도시 공간의 유기적 생태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술과 문화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였습니다.

세 번째 발견 지점은 도시의 생태계 환경이었습니다. 간척지로 만들어진

Then, another question arises, which is “wouldn't Songdo's future be more important?” Wherever you go in Songdo, the story of a future city was the core of Songdo. For example, it is emphasized the construction of a future city connects Songdo with the nearby areas of Cheongna, and Yeongjongdo. From this context, we cannot but have a question that how the placeness of Songdo should be created with its temporality of memories and time of present. So, I thought, “wouldn't the role of art and culture be very important here?”

Second, there is no denying that Songdo is a planned city. Songdo is modeled after world-class urban design. But as we walk through Central Park or Canal, we can't help but feel that something is off unlike New York and Venice and the scene is awkward and does not fit well. Such world-class design models exist in the space but have not yet been dissolved as a place, and I wonder who this can be addressed with creativity. The second point of discovering is that the city feels like some kind of stage set. It wa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inside and outside the city. Songdo, seen from within the same buildings as Airbnb, hotel, Korea and Polar Research Institute, was a very beautiful city, but the discomfort and awkwardness felt when walking in the city or experiencing empathy were very contradictory. The second question is contradiction between in and outside the city. How will a design or concept borrowed from the world's best city be made Songdo-specific, Songdo-style or Songdo-style? Perhaps in that sense, what is the organic ecology of urban space that exists individually in order to create the spatiality of the c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도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길들여져 새로운 자연을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은 굉장히 거친 자연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암도나 그 주변의 갯벌, 철새들의 이동 경로, 극지연구소 등의 국제 생태환경 관련 기구들을 방문하면서 그 도시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 구조와 생태적 조화를 찾아가야 하는가? 아직은 굉장히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서 있지만, 그것이 유기적 어떤 연계 구조를 찾지는 못한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느꼈던 질문이자 어떤 발견 지점은 간척지로 변화된 자연과 야생의 생태 자원이 공존하는 송도에서 새로운 친화적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도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생태환경 관련 단체 기관과 어떻게 연결 지점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지점에서 문화와 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도시의 국제성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경제 구조뿐 아니라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과 음식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와 예술의 국제성이라는 것들은 도시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면서 그 가치가 국제성을 만들어가는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송도라는 도시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송도의 국제성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예술의 역할과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개별적이고 중대한 세계적인 디자인과 문화의 가장 핵심 모델만 가지고 온 송도에서 이 매끄러움 혹은 하나의 음과 양의 조화가 아니라 좋은 것만 존재하는 이 도시 문화에서 어떻게 다양성이 얹히고 교차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factors in such a question is the link created by art and culture.

The third point of discovering is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city. A city built on reclaimed land has been tamed to some extent over time, allowing some new nature, and on the other hand, a very rough nature exist at the outskirts of the city. While visiting international ecological environment-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Iam Island and its surrounding tidal flats, migration routes of migratory birds, and the Polar Research Institute, we wondered how we can connect the structures and pursue ecological harmony with things that exist only in that city. They are very individual existences and no organic linkage between them. So, perhaps the third question and the point of discovering is "what is a new friendly connection in Songdo, where nature, which has been changed to reclaimed land, and wild ecological resources coexist?" and "how to create a connection with the ecological environment-related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that exist individually as a planned city?" At that point, the key task of the third question was whether culture and art could play a very important role.

So, to summarize, I think that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depends not only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economic structure, but also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value including diverse cultures, people, and food. So, in the end, I thought that the internationality of culture and art could be based on how much diversity and inclusion exist within the city, and how much the value creates internationality. From that point of view, what is the role of culture and art to create Songdo's

우리의 다양성이 다양하게 나열되는 상태라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이 교차하고 유기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얽힘과 교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거 시간의 연결성을 어떻게 만들고 과거의 송도가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굳이 과거의 시간을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 시간의 연결성은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4세기 백제의 중국과의 교류 역사에서 국제성을 보일 수 있는 능허대를 보면서, 예술이 과거의 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거나, 개항 도시 인천을 보면서 항구 도시의 국제성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거의 시간성 연결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 더 충실 하다면 스마트 시티, 미래의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을 토대로 예술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특히 구송도의 연구구 내에 다른 지역과 송도 도심과 송도의 주변 지역을 생각하면서 예술이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도 될 수 있고, 예술이 자연 환경과 도시 환경을 연결 할 수 있는 통로,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서 예술이 존재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리서치를 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실험을 해서 어떤 통로가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정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국대학교 윤태양 교수가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지각하고 인지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감동을 받는 것이 정동이라고 한다면 정동이라는 것은 물리적 운동이라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빌리티 시대, 정동적 변화와 윤리적 존재화: 순자철학을 중심으로>논문 중 발췌)

international character based on diversity and inclusion in the city of Songdo in the future? I thought of these four keyword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I would like to talk in terms of the role of art rather than very specifically what art can do.

First, how can diversity be intertwined and intersects in Songdo, where only good things exist without harmony of one yin and yang, because it followed models of global design and culture of significance individually? Rather than a state in which our diversity is listed in various ways, art should play a role of entanglement and intersection in order for various things to intersect and exist organically.

The second question is how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time and if the Songdo of the past is a space that exists in the present time and the future time, is it necessary to connect the past time? On the other hand, for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ime, technology and innovation would be important.

For example, looking at Neungheodae, which can show internationality in the history of exchanges in terms of history of trade between China and Baekje in the 4th century, I thought art could connect the past, and about how the internationality of the port city of Incheon can be connected as an open port city. As such, there was a possibility of connection of temporality in the past, but on the contrary, in order to be more faithful to reality, I wondered if it would be possible to connect with art based on smart city and future technology

예술과 문화가 인프라 구조, 시설, 도시 전략적 국제성과 진정하게 연결될 때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동이 일어날 때 진짜 도시의 국제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발견 지점입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송도와 예술의 역할 그리고 국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예술가들이 앞으로 하게 될 콘셉트 프레임웍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and innovation.

And the third keyword was the channel of connection. In particular, I thought that art should create a new passageway, considering other areas in Yeonsugu of Gusongdo, downtown Songdo, and surrounding areas of Songdo. Art would be a valuable passageway that connects people and people living in different spaces, a passageway that connects the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urban environment, and a passageway that connects the old city and the new city. If full-scale research is conducted in detail, a certain passage will be created with the imagination of many artists and their experiments.

Lastly, I thought of the keyword "affect". Yoon Taeyeong, a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said, "If we say that "affect" is that we are moved by experience, perception and independent thinking, then it is not just a physical movement." (Excerpt from the paper <The Mobility Era, Affective Change, and Ethical Existence: Focusing on Sun-Ji Philosophy>) When art and culture are truly connected with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strategic internationality of the city, and affective changes occurs that move people's hearts arise, the internationality of a real city will be created. This is my point of discovering.

As I mentioned at the outset, I talked about Songdo and the role of art and that of concept frameworks that artists will create in the future from an outsider's point of view, and rather than concrete examples of internationality.

토론

E-Jan, Lin Fu, 박지선, 임현진

박지선 무엇이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지, 도시의 국제성은 무엇인지, 예술과 문화가 도시를 국제적으로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공존하고 예술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술이 다른 영역에서 도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함께 만나게 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상하이의 다른 도시는 어떤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제도시 상하이에서도 예술이 굉장히 활발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그 안에서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하이가 국제도시라고 한다면 크게 반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석규 감독님이 발표에서 커니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봤을 때 상하이는 아마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을 하는데 이제 표현의 자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해당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걸음 물러나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상하이가 왜 국제적인 도시인가? 국제적인 도시가 무엇인가? 이는 역사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자기 스스로 '우리 국제적인 도시야'라고 말하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정말 국제적인 도시들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상당한 문화력이 있죠. 문화 역사 측면에서

Discussion

E-Jan, Lin Fu, Park Jisun, Yim Hyunjin

Park Jisun That was a presentation about what makes an international city, what is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what role art and culture can play in making a city international, what role does art play in coexisting in order for a city to become a sustainable city, and how art is partnering with different elements of the city in different areas. We had a lot of questions about how we could ever imagine meeting these goals. Because of time constraint, it is hard for us to talk about all of this today, but I would like to first hear about the cases in Kuala Lumpur, Malaysia and Shanghai. I think that art is playing a very ac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city of Shanghai. Please share you're your opinion of identity of an international city and the story of art within it.

Lin I would like to briefly talk about the first question. If I were to say that Shanghai is an international city, it wouldn't be very opposed. Mr. Choi Seok Kyu mentioned the five standards of KEARNEY, and I cannot agree more. I think Shanghai is probably the case in every detail of the standards except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 do not know much about.

I want to take a step back to point out an important factor that why Shanghai is an international city. Then, what is an international city? I think that history should also be looked at. Because when does a city start to say itself, 'We are an

강점을 가진 도시들이죠. 상하이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분명 강점이 있을 겁니다. 식민시대의 역사도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900년대 초기 역사를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가 나아가는 것 같아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심점이죠. 그리고 상하이는 재무의 중심점이에요. 49년도 전에 이미 재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무적인 중심점이 되는 것은 금융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방향성 또한 국제도시가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많은 토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최석규 감독님 발표에서 송도가 계획도시라고 하셨잖아요. 인간이 만든 도시인 거죠. 인간이 만든 유기성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상충되는 아이디어잖아요. 인간이 만든 유기성.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다 만드는데 유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띄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주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석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송도가 두 가지 인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볼 때랑 다르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안과 밖의 경험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던 시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옷은 잘 입었어요. 좋은 식당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심도 있는 대화를 그 사람과 나누기는 어려운 거죠.

international city? I observe that a true international city has a long history and profound culture. If you look at the top cities in the world such as London, New York and, Tokyo, they have cultural heritage. Cities with strengths in terms of cultural history. If you look at Shanghai, historically, it definitely has its strengths. I think we should also think about the history of the colonial era. It makes me think back to the early 1900s. And now I want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policy. I think the city is progressing in the direction the government wants. In the case of Beijing, it is a political hub while Shanghai is the financial center of the country. Shanghai was a financial center even 49 years ago. It was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Far East. Being a financial center refers to becoming a banking city. Once aga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nd I think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is important in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ity.

And I think this will invite more discussion. What I want to briefly point out is that Mr. Choi Seok Kyu said that Songdo is a planned city, in other words, a man-made city.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at the organicity is created artificially. These two ideas are conflicting, man-made and organicity. How can a man-made city become organic? Can you make it look natural? I thought the topic was interesting.

And Director Choi Seok Kyu said that Songdo gives two different impressions from the outside and from the inside. It looks like a very beautiful modern city from outside. However, there is a word that came to mind "soulless". It was like a well-dressed person I bump into in a nice restaurant, but having an in-depth conversation with that person is not possible.

박지선 쿠알라룸푸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도시와 협력하고 계시는 토카타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독립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는 이잔님의 의견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잔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자체가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함께 일상에서 노출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국제도시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단 다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실제로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정체성 자체가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이 관계를 보는 것인데요. 다문화와 상호문화주의 또 초문화주의의 관계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장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개별의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상호문화주의라고 했을 때는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문화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함께 섞이는 것입니다. 국제도시에서는 여러 방식의 문화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희가 문화를 생각 해볼 때 어떤 특정한 민족 집단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민족성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문화를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직업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최석규님과 이안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서 29개의 측정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 정말 그 말을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이런 언어 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문 분야의 언어라는 것이 있죠. 이런게 또 국제도시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화들과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언어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이

Park Jisun Now, we turn to Ms. E-Jan,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Toccata Studio and is collaborating with many cities in Asia as well as Kuala Lumpur as an independent producer.

E-Jan Malaysia is a multicultural country. As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 we are actually used to this. We are accustomed to being exposed in our daily life with different cultures. If so, what does it mean to me being an international city? First of all, it will be multicultural.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creativity, it pursues diversity, and in practice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any one identity from others because currently one identity itself contains multiple identities. What I'm looking at now is relationships. We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sm and transculturalism. I'm a bit expanding and looking at it. For me, multiculturalism is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 cultures. When it comes to interculturalism, cultures intersec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ransculturalism, everything is being blending together. 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se various types of culture together when looking at an international city. Also, when we think of culture, we're not talking about any particular ethnic group. We could share a certain ethnicity, but when we talked about this culture, it could be people from many different job backgrounds. Mr. Choi and Ian mentioned 29 indicators of the Global Cities Index in the presentation. So, if you look at those indicators, you'll see that there are several kinds of languages, not just the languages countries but also those of specific specializations. I think this can also become an element of an international city. How you

이렇게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일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중요한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선 우리가 국제성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방금 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다문화가 섞여 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섞이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획득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국제성이나 국제 교류를 얘기 하다 보면 이동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동성을 이야기할 때 그 이동성이라는 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문화가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가 이동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동하면서 그것들이 얹히는 거죠. 섞이게 되고, 그 섞임을 통해서 고유한 것들이 다시 새로운 것들 새로운 어떤 고유성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섞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는 처음부터 국제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나 사람들의 이동성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술가와 예술이 이러한 이동성들을 섞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홍콩도 옛날부터 국제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교류, 이동, 사람들과 문화의 이동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예술과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이 또 어떻게 촉진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ckle these cultures and languages would be an important factor of being an international city. I think that art can provide a solution in the process of tackling them. It may not be the one size fits all but be an important one.

Park Jisun In terms of internationality, we have just heard about cultures. In the case of Malaysia, it is a county of many cultures so, it naturally acquired some features of internationality, where a lot of different cultures are mixed, and cultural exchanges take place within it.

When talking about internationality or international exchange, mobility should be considered. Mobility means that when people move a lot, culture moves within it, and language moves with it, all of which are entangled. It is mixed, and through the mixing, the unique features are created, which in turn new things to give birth to internationality we call is created within it. Since Songdo began with the goal of becoming an international city from the beginning, I think it was created in a state where the mobility of various cultures and people causing mobility was somewhat eliminated. And it might be possible that artists and art can do something to promote the mobility. Hong Kong has been considered an international city for a long time. But I don't know what the current situation is there, thus I hope you can tell us what kind of exchange, movement, culture of people and culture are taking place and how art is facilitating them.

이안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진행형 더 나아가는 중입니다. 정치적인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바텀업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진정한 바텀업이 될 수 있느냐? 린님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유기성. 유기적인 특성을 찾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정성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석규 감독님 리서치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공간성도 중요하지만 장소성도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적 자본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뜨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여러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자본을 자본화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송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이 있고 모던 시티라고 들었는데요. 모든 도시가 이렇게 구축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심성 있는 태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것이 한시적인 것인지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 다수적인 측면, 인프라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을 하고 또 의미 있고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이러한 중요성에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통도 나오는 거죠. 5분만에 교통 수단 이런 것도 그다음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일자리가 없다면, 사회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파트에 가서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5년 여기 살고 또 다른 데로 이주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역사를 만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유산 그리고 인간의 발자국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ian In my view, it is progressing. I can't say much about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its impact, and I want to mention the bottom-up approach we are witnessing. Can we call this a real bottom-up? As Ms. Lin mentioned it is important to find organic characteristics, and authenticity seems to be important as well.

According to Mr. Choi Seok Kyu's presentation about research, spatiality as well as placeness is of importance. I think this should be connected. Also, civil capital was mentioned, and we often use the term "social capital". It is a buzzword. The term is often used when proposals come in. How can we capitalize social capital? How can you maximize efficiency?

I heard that Songdo is a modern city with many plans. I think there is an aspect that all cities are trying same things. In that, they are required to take cautious attitude toward the goal. How sustainable is modernity? I think we need to find out whether this is temporary or momentary. And like what E-Jan said, we need to consider diversity and the aspects of infrastructure. It is a space where those people live, work, and spend meaningful quality time. I think we need to dedicate some time to this value.

Only after that, a beautiful architecture can be created, and the traffic generated. The five minutes transportation system and others will follow.

What would happen if there were no jobs and no social life? You could just go to your apartment and watch Netflix, or you could live here for five years and move to another place. From my point of view, a great plan is not that make history. People

무엇일까요? 효율성을 바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선 이것이 문화예술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 분들도 계시고 재단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거나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서치에 참여한 임현진 피디도 국제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국제성이라든가, 그 안에서 예술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임현진 저는 국제도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사실 뉴욕이었어요. 뉴욕을 처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뉴욕의 발전된 모습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제가 아시아인, 한국인 또는 뉴욕에 처음 가는 사람인데도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길 가다가 '저 사람이 외국인이야'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국제도시라고 하는 건가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도에 어떤 외국인이 걸어 다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 송도가 지향하는 국제도시가 혹시 배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석규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포용성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도시의 다양한 레이어들을 겹쳐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종의 신념처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이나 속도나 자본이 말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들을 살피내도록 하는 것, 때로는 그 속도가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거나 일종의 기술 결정론처럼 도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굉장히 획일적인 결정들을 하면서

have to think about heritage and the human footprint, I don't think we should lose our purpose. We need to remember why we want a better quality of life.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wishing for safety? Why we want efficiency? I think we need to revisit the question about the ultimate purpose.

Park Jisun I think this is the problem culture and art can give the answer. There are artists and people of foundation who are currently active in Incheon. Please raise your hand or leave your questions or opinion in the chatting window if you have any. We will discuss on the matter. Produced Lim Hyeonjin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nd has been very active in international exchanges. So, I suspect Lim is thinking a bit about the internationality of this city and the position of art in it.

Yim Hyunjin Now, when I think of an international city,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New York. When I was in New York for the first time, what surprised me was not the much developed and splendid city of New York, but that I did not feel foreign at all, even though I was an Asian, Korean, a first-time visitor to New York. As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without anyone looking at me, there were not many people who recognized that as a foreigner. At that moment, I thought it is what we call an international city. But if a foreigner walks in Songdo, how do you think we will look at him or her? Given this thought, it is possible something is excluded from the goal of Songdo to become the international city. I think I've been thinking about it for a while. So, I was thinking about inclusiveness when listening to the Mr. Choi Seok Kyu. I believe

종의 다양성을 흠어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예술과 문화가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도시를 처음 접할 때의 그런 감각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술은 좀 더 직관적이고 굉장히 단순해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인터페이스에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게 만들건지를 실험하고 적용시키는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도시에 새로운 레이어들을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지선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홍콩의 이안님이 발제 때 많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탑다운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풀뿌리 방식의 바텀업과 같은 접근 방식이 국제도시이건 아니면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도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안에서 예술이 개입이 될 때 그 도시에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구축하면서 진행된 바텀업 방식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린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식 바텀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각예술분야를 돌아보면, 국영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만 5년, 10년 사이에 5개 이상의 민간 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영 박물관들은 좀 더 자유를 가지고

art can't be an absolute solution to everything, but can serve one of many layers of a city. For example, it can shed the light on factors growth, speed and capital may not consider. Art and cultures in it can be the media to hold diversity together when speed excludes certain parts, produces people who can't keep up with the flow of the city such as technological determinism or a very uniform decision. I've been thinking about the user interface for a while, and if I can understand that feeling when I first encounter this city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 think that good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anyone can enjoy because it is more intuitive and very simple. So, I thought it may be possible to experiment with and add art to user experiences or user interfaces during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make the city look a bit different and add more new layers to the city.

Park Jisun During the conversations, Ian from Hong Kong talked a lot about the top-down and the bottom-up method. In fact, it is true that many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done in Asian countries are being done top-down, but as the speakers have mentioned, a grassroots, bottom-up approach is very important for a sustainable city or an international city. I want to hear more about it. I guess in Shanghai top-down way is more common like Korea, and if there are any examples of bottom-up methods, how they are applied when building various communities in the city with the intervention of art.

Lin Not just in Shanghai, but all over China. But there is a unique bottom-up style in Shanghai. For example, if you look

있죠. 프로그래밍도 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콘텐츠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검열은 있죠. 또 많은 제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 2~3년을 보면 제가 본 것이 풀뿌리 운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풀뿌리 커뮤니티 주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안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것은 정말 긴밀하게 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연결되는 활동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하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국에서 큐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로컬 레지던트 큐레이터 그러니까 실제 큐레이터가 직업이 아닌 사람이 지역 주민들이 큐레이터 일을 하는 겁니다. 지역 활동을 큐레이션 하고 이웃들과 같이 기획을 하고 활동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시에서 이런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back at the visual arts field of the last 5 to 10 years, some state-run art galleries and museums received public support. Recently 5 or more private museums gain the support over the past 5 or 10 years. Private museums have a little more freedom. You can do programming more on your own. The government still enforces censorship but does not look at the content. There are also many suggestions. And looking at the last two or three years, I think what I've seen have been some grassroots movements empowering grassroots communities. I think it's very encouraging to observe the changes in the community. As Ian mentioned, these are activities that connect with the people of this community, which are very closely connected. Ten years ago, there was nothing like that in Shanghai, but we are seeing many new changes. It is not curated by any authority, but is really made by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For example, in this local community, local residents are taking the job of the curator instead of those who are professional curators. They curate local activities, make plans with neighbors, and become the main players. It looks like we're seeing a lot of authorization. These activities are taking place in the city of Shanghai. I think it's a very good trend. More and more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are participating in this direction.

2. 2부

송도에 대한 예술가의 시선과 질문들

김보람

아래 내용은 참여 작가별 프로듀서들의 리서치 질문과 정리 내용으로, 오픈 워크숍 발표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리서치 작업 소개

도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을까? 도시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는 도시와 뗄 수 없는 관계 맺음을 하기에 늘 흥미롭다.

‘무제의 열차’는 안산을 리서치하고 만들었던 작품이다. (2016년 안산거리극축제 창작지원작)

공연은 4호선 지하철에서 진행되었다. 관객은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플랫폼에서 헤드폰과 태블릿, 탑승 구역이 적힌 카드를 받고 지하철에 탑승한다. 관객은 헤드폰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 도시는 태어난 해가 기록되어있다. 1976년 12월 31일. 이후, 2년에 걸쳐 도시는 건설되었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자 시민을 받기 시작했다. 사람보다 먼저 도시가 된 공간들은 도시의 설계자로부터 도시를 제어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안산은 원래 있던 반농반어의 농촌지역을 철저한 계획을 통해 공업도시로 탈바꿈한 곳이다. 안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에게 추억의 공간을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공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사라지고 없어진 공간의 추억을 ‘공간의 유령’이라 칭했다. 관객은 안산을 가로지르는 4호선 열차 안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와 영상, 입체 사운드를 통해 ‘공간의 유령’들을 만나게 된다.

2. Part 2

Artist's Perspectives and Questions on Songdo

Kim Borahm

The following is questions and summary of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each producer, and part of the open workshop presentation is included.

Introduction to urban research work

What impact do cities have on human life? Are the people who live in the city making a difference in the city's system? The stories of the city are always interesting to establish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e city.

‘Untitled Train’ is a work based on research in Ansan. (2016 Ansan Street Theater Festival creative support work) The performance took place on the subway line 4. At the platform of Surisan Station on Subway Line 4, the audience receives headphones, a tablet, and a card indicating boarding area on it and boards the subway. The audience hears the following with headphones.

“Unlike other naturally occurring cities, this city has the year of birth, documented as December 31, 1976. Over two years since then, the city was built. It started accepting citizens when a certain shape is established. Spaces that became a part of the city before people were given the authority to control the city from the city's designers.”

Ansan was transformed from a rural area into an industrial city with the thorough urban planning. I asked people who have lived in Ansan for a long time to introduce memorabilia, and many said

<플러그인 시티>는 서울에 사는 시민 12명에게 일기 형식으로 적어준 3일간의 일상을 받아 재구성해 만든 가상의 마이크로 시티를 경험하는 작품이다. 관객은 입구에서 공연용 앱(APP)이 장착된 태블릿과 헤드폰을 받고 입장하게 된다. 마이크로 시티에 입장하면 칵테일을 파는 바와 5명의 인물이 사는 공간을 방문할 수 있다. 관객은 바에서 보안, 소통, 진실, 탈출, 권력이라고 이름 붙인 메뉴(도시에 관한 5가지 키워드로 만든 짧은 게임 + 시나리오)를 주문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국제도시 송도

송도의 첫 인상을 이야기하자면, 난감했다.

도시 리서치란, 도시를 몸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간의 접근법이 송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송도를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었던 질문은 이 도시를 어디에서부터 살펴봐야하는 걸까?

구글어스 프로를 설치하면 특정 지역의 지리적 변화를 연도별로 볼 수 있는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송도의 변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인천의 간척사업은 긴 역사를 가진다. 인천의 첫 간척사업은 1899년, 본격적으로 간척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부터이다. 외부의 시선에서 이런 도시의 변모는 봐도 봐도 신기하다. 위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땅이 넓어지는 도시. 확장되는 도시. 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척사업은 어떤 느낌일까?



<https://youtu.be/KwGgYL4v120>

the place had already disappeared. Memories of the vanished space were called 'the ghost of space'. The audience meet the 'ghosts of space' through live performance, video and 3D sound on Line 4 train that crosses Ansan.

<Plugin City> creates the virtual micro-city based on three days of 12 people living in Seoul and reconstructing it. At the entrance, the audience receives a tablet and headphones equipped with a performance app (APP). When entering the micro-city, the audience can visit a bar serving cocktails and the space where five people live. They can enjoy the performing art by ordering a menu from the bar labeled Security, Communication, Truth, Escape, and Power. (a short game plus scenario made with 5 keywords about the city)

International city of Songdo

Speaking of first impression of Songdo was difficult.

I used to think that city research is a time to create an impression of the city through the stories of people who live and experience the city, but this approach was not useful in Songdo. Every time I visit Songdo, the question I get repeatedly asked is, where should I start looking at this city?

When installing Google Earth Pro, the geographic change of a specific area is presented. I looked at the transformation of Songdo from 1985 to the present. The reclamation project in Incheon has a long history. The first reclamation project in Incheon began in 1899, and the full-fledged project started 1980. It is surprising to see such a transformation of the city from an external point of

송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직후인 2006년의 송도를 지도로 방문했다.
(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잘 정돈된 구획들과 건물들이 보이고 송도
매립지 끝 지점에는 세계 최초의 해상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위치해 있다.
이 지도를 보고 처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Describing the
performance of
a computer CPU
(central processing
unit) released by Intel

인텔에서 출시한
컴퓨터 CPU(중앙 처리
장치) 성능 설명



송도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꼈던 이상함이 지도를 보면서 많은 부분
이해되었는데, 스마트시티임을 강조하는 송도는 기능적으로 완성된
미래도시이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빠른 프로세스가 가능한 고효율
도시이다. 그러나 외부인의 시선에서 송도에 대한 인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편리하나 편안하지 않다.
- 너무 거대하다.
- 구역 간 간격이 넓어 마치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 사람 중심이 아닌 땅(부동산) 중심의 도시다.
- 사람들이 살면서 남기는 흔적의 역사가 없어 삶의 궤적이 보이지 않는다.

view. The city expand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and how the
resident felt about reclamation.

I visited Songdo on a virtual map in 2006, right after people
started living. (You can see it in the video above.) Blocks and
buildings were arranged, and the world's first offshore natural gas
production base was located at the end of the Songdo landfill.
That was the first impression I had when watching the map.

The strangeness I felt while visiting Songdo made sense on the
map. Songdo emphasizing itself a smart city, is a functionally
completed futuristic city with high efficiency of great performance
and fast processes. However, the impression of Songdo from an
outsider's point of view is as follows.

- Convenient but not comfortable
- Too huge.
- The space between the zones is wide, being designed
only for vehicles.
- Centered on land (real estate) rather than people
- No history of human traces, leaving no trace of life

Some traces could be found outside the downtown area of
Songdo.

You can enjoy the scenery we found with clicking the link below.

Aam Island, which was once a famous, is now just a small garden
in front of the tidal flat next to the highway. However, small sea
creatures can be seen inside the island. When climbing up the

송도의 도심 지역을 벗어나 외곽 지역을 살피면서 몇몇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발견했던 풍경을 감상 할 수 있다.



<https://youtu.be/yTEZDMBwloo>

한때 유명한 섬이었다는 아암도는 현재 고속도로 옆 갯벌 앞에 있는 작은 동산일뿐이지만 들어가 살펴보면 작은 바다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아암도 앞에 있는 갯바위에 올라가 살펴보면 가로세로 2-3m 쯤 되는 꽤 큰 물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낚시하는 친구들에게 줄 갯지렁이를 잡으러 온다는 한 남성이 개인용 야외 욕실(흡사 선녀탕(?)처럼 보인다.)을 만들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하루는 동인천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송도에 들어섰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나타나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바다 안개가 잠식한 듯 보이는 거대한 도시에 갇혀 이곳이 한때 바다였음을 체감하였다.

이 외에도 인천신항대로와 송도바이오대로 사이에 남아 있는 갯벌을 가면 꽤 많은 수의 철새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언제든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위태로움 사이로 먹이를 찾아 애쓰는 것처럼 보여 마냥 편히 즐길 수만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곳을 찾아와 낚시를 즐기는 이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와서 쉰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게 설명하기 힘든 어떤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송도의 또 다른 특징은 빈 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땅(곧 건물을 지을 땅인 경우도 있고 다리 옆에

seashore in front of Amdo Island, a fairly large pool of water of about 2-3m in width and length can be seen. I could see a man who came to catch midge worms to give to his fishing friends, making a private outdoor bathroom (looks like a fairy bath (?)) and enjoying the bath.

On another day was, I was on the way back to the dorm after watching the sunset in DongIncheon. At the boundary of Songdo, it became foggy in an instant, making it impossible to see an inch ahead. Trapped in a huge city that seemed to have been encroached by sea fog, I realized that this place was once the sea. At the tidal flat that remains between Incheon New Port Road and Songdo Bio-daero, you can observe a number of migratory birds. Nevertheless, meeting people who come here to enjoy fishing and people who say they come to spend time just to have a rest, I received a certain comfort beyond description.

Another characteristic of Songdo is that you can easily find vacant land. In the land that you don't know the owner (some are the land building will be built soon, and some others are of an ambiguous size located next to a bridge), you can almost always find a small farm. As I squeezed into the small land that would disappear and met creatures and humans who make their time for a while, I imagined for a moment what art could do in Songdo.

위치한 애매한 크기의 땅인 경우도 있다.)을 들어가 보면 반드시 텃밭을 만나게 된다. 사라질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시간을 잠시나마 만드는 생물과 인간을 만나면서 송도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상상해보았다.

스마트시티 송도를 해킹하라

송도에서 방문을 가장 많이 추천 받은 곳은 센트럴파크와 송도 현대아울렛이었다. 쾌적하게 꾸며진 곳이었지만 결코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관광을 위한 공간 같았다. 가장 오랫동안 편히 머물렀던 곳은 푸르지오월드마크 7단지(송도에서 위치를 설명할 때 주상복합 단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왜일까?)에 위치한 작은 상가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는 작은 골목, 작은 카페, 작은 식당 그리고 작은 공원이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단지 사이에서 발견되는 작은 심터 같은 공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송도는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도시이다. 어디를 가든 고속도로 같은 도로들이 앞을 가로막고 편의시설로 가득한 쇼핑 구역은 거대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도시의 시스템에 균열을 내어 사람 간 마찰이 있는 구역, 잠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도시의 시스템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해킹 송도'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물론 송도에는 페스티벌을 위한 공간(송도달빛축제공원역)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지정한 구역이 아닌 곳에 흠집, 불규칙한 동선, 흐름, 엇박자를 만들고 도시의 시스템에 균열을 내야 정해진 미래가 아닌 사람들이 만드는 미래가 있는 국제도시 송도가 되지 않을까?

해킹을 통해 이 도시가 깔고 앉은 자연이 들어올 틈새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Hacking the smart city Songdo

Central Park and Songdo Hyundai Outlet were the most recommended places to visit in Songdo. It was a pleasantly decorated, but seemed like a place for sightseeing that you could never stay for long. The place I stayed comfortably for the longest time was in a small shopping area located in the 7th Prugio Worldmark Complex (it is very inconvenient to describe based on th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number. Why?), which includes a small alley, small cafes and restaurants and a small park. Small shelter-like spaces found in the huge complexes were very precious.

Songdo is too inconvenient to get around on foot. Wherever you go, highway-like roads block your way, and the shopping area full of amenities is huge and endless. It looks same wherever you go that I feel like crack the system of this city to make a space for friction between people and take a break. The problem is the city's system isn't what I want. If so, how about hacking Songdo to make this possible?

Of course, there is also a space for the festival in Songdo (Songdo Moonlight Festival Park Station). However, wouldn't Songdo have the chance to grow into the real international city with a future by creating scratches, irregular movement lines, flows, and mismatches in areas that are not designated by the system and cracking the city system?

How about hacking to create a niche for the nature that this city can prosper?

- 몰래 살 곳을 찾기로 결심한 검은머리갈매기(솔찬공원에 가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들이 이미 송도에 몰래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기후변화를 피해 남극에서 탈출한 펭귄과 남극 갈매기(송도에는 극지 연구소가 있다.)
- 영종도(제비도)의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 새로운 경유지를 찾고 있는 철새 제비
- 인천 수산물 검역 센터에서 탈출한 바다가재와 가리비(송도에 살고있는 인천 검역센터 공무원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힌트)

등이 있을 것이다.

송도를 방문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었지만 가장 크게 받은 영감은 이곳은 아직 백지의 상태와 같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도시. 그래서 다양한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도시. 상상이 아닌 실제로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본다.

- The Saunders's gull decides to find a secret place to live (If you go to Solchan Park, you can see that those who are protected as endangered wildlife class II have already sneaked into Songdo to live.)
- Penguins and Antarctic seagulls escaped to escape climate change (there is a Korea Polar Research Center in Songdo).
- Migratory swallows are looking for a new waypoint due to the noise of airplanes on Yeongjong Island (Jebi Island)
- Crayfish and scallops that escaped from the Incheon Seafood Quarantine Center (Tips provided by the Incheon Quarantine Center officials living in Songdo)

Many emotions crossed my mind while visiting Songdo, and the inspiration I got was that this place is still blank, a city with many possibilities. So, it is a city where you can dream of various futures, a city that is open to the future, not in imagination.

송도/신도시 몸으로 읽어보기

도시를 걷는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낯선 행위가 된다. 보편적으로 시간과 역사의 층위가 자연지형과 한 몸을 이루어 설계되고 도시를 이루는데 송도는 계획도시, 신도시이다.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화된 도시 송도, 여기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과 공간, 신체의 축적이 필요하다. 리서치 과정에서 안무가이자 도시를 기록하는 댄스필름 감독으로 송도라는 도시와 신체의 관계를 고민해보았다.

도시공간무용프로젝트(www.11danceproject.com)에서 계속되어 온 도시와 몸, 몸과 장소의 관계성과 송도의 특성을 연결해 생각했다. 바닷물 위에 만들어진 송도의 지층을 상상하며 신체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지면과 마주하고 걷고 서는 '새로운 도시를 위한 신체'를 발견해 보고 새로운 도시를 살아가기 위한 신체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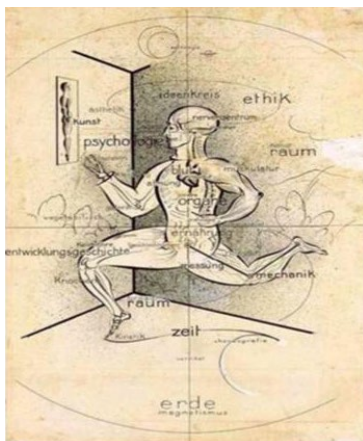


Understanding Songdo/New City with your own body

Walking through the city becomes an unfamiliar act from the perspective. In general, the layers of time and history are designed to form one body with the natural topography, and Songdo is a planned city and a new city. Songdo, a systemized city that has already been created, requires time, space, and accumulation of the body to get used to it. As a choreographer and a dance film director I thought about physical relations between the city and the body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 thought about conn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ty and body, body and pl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ngdo, which have been continued to search in the Urban Spatial Dance Project (www.11danceproject.com). Imagining the strata of Songdo created on the sea water, the joints of the body move naturally, and while walking and facing the ground, I discovered 'a body for a new city' and thought that physical exercise was necessary to live in this new city.

이 도시에 어떻게 몸을 맞출 것인가? 도시에 몸을 맞출 것인가? 몸에 도시를 맞출 것인가? 몸이 맞출 것이냐? 도시가 맞출 것이냐? 이미 만들어진 신도시에 몸을 맞추어 본다면 어떨까? 이 도시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상상하며 송도를 걷는 신체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움직이고 이동하며 발바닥이 지면과 마주하고 고층과 지층 사이를 걷는 것, 몸과 장소의 관계성, 즉 도시와 몸과의 관계성에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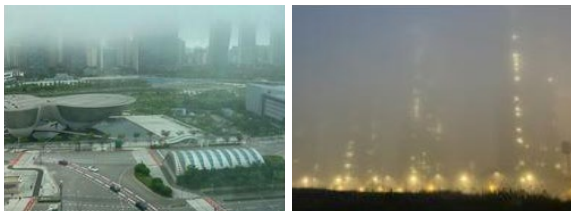
@Oskar Schlemmer, Man in the Orbit of Thought (Systematic Overview of Human Studies) 1928, Bauhaus Dessau Foundation

@오스카슐레머(Oskar Schlemmer) 사교의 궤도안의 인간 (인간연구의 체계적 개요) 1928, 바우하우스 데사우 재단

송도의 신체성을 찾아보고, 신도시에 닿는 몸의 감정, 나아가 신도시의 근육을 상상하고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도시공간에서 신체의 감정을 상상하고 질문하고 추적해 새로 만들어진 도시의 공간을 체험하며 몸의 지지대, 감각의 상태, 의식, 무의식 등을 발견하고 행동과 행위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리서치 하고자 하였다.

How can we fit into this city? Will you fit into the city? Will you fit the city to your body? Will the body fit? Will the city fit? What if you could fit your body into a new city that has already been created? I was walking through Songdo, imagining how this city will make me move. I thought about the joints of the body work and move naturally, the soles of the feet facing the ground, and walking between the upper and lower flo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place, and tha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the body.

I tried to fi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ongdo, and to imagine and study the emotions of the body that touch the new city, and furthermore, the muscles of the new city. In an urban space, I imagined, questioned, and traced the emotions of the body, experienced the new urban space, discovered the support of the body, the state of the senses, the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and tried to conduct and conduct research on 'movement'.



리서치 과정에서 송도에 몸을 디디자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닷물 위에 만들어진 도시라니, 물고기처럼 걸어야 하나 상상해보며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송도의 중력을 신체로 읽어보고 싶어졌다. 땅에서 곧게 높게 쭉 뻗은 아파트의 직선이 8차선 도로 위에 쭉 펼쳐져 나도 모르게 곡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걷는 사람이 몇 없는 넓은 거리 위에는 따가운 여름 햇볕을 피할 작은 그늘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도시에서나 보이는 전깃줄이 보이지 않으니 하늘과 구름이 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침과 밤에는 거짓말 같은 안개가 촘촘듯 나타나고 사라졌다. 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안개가 나타나고 사라지자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층빌딩은 옆으로 서있는 듯 무게감 없이 공중에 붕 떠있는 것만 같아 송도에서의 신체는 어떨까 궁금해졌다.



As I set foot in Songdo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t felt as if there was no gravity. It was strange imagining waking on a city built on sea water would be like walking as a fish. Then I wanted to feel the gravity of Songdo with my body. The straight line of the apartment building that stretched high and straight from the ground spread out over the eight-lane road made me think that a curve would be necessary. There was no shade to over the strong sunlight of summer in the city where people are rarely seen. There was no power cord visible from any city, the sky and clouds seemed to be farther away. In the morning and at night, fog appeared and disappeared like dancing to be felt like a fantasy. As the fog appears and disappears so much that you cannot see in front of your eyes, the high-rise building that reveals its presence seems to be floating in the air without a sense of weight as if it is standing on its side, so I wondered how the body would feel like in So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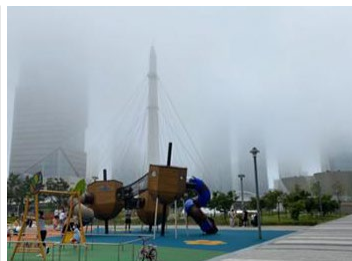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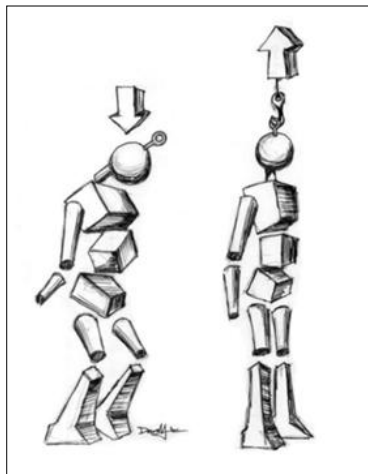
도시와 신체의 관계에서 중력을 인지하는 것은 곧 신체성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시간을 축적하는 것이 된다. 도시는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축적되지 않은 신도시, 무중력 도시처럼 감각되는 송도 신체들의 중력을 상상하고, 그 시간을 축적하는 신체적 방법의 연습을 리서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살아가기 위한 신체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골에서 적합한 신체는 힘 세고 무겁고 튼튼한 신체라면, 신도시에서 적합한 몸은 빠르고 가볍고 똑똑한 몸일까? 송도에 적합한 몸은 길쭉하고 유연한 관절을 어떠한 메뉴얼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일까? 신도시의 중력을 상상하며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끌어올릴까 생각하기 시작하니 뭔가 재밌어졌다.

@Alexander Technique images

@알렉산더 테크닉 (Alexander Technique)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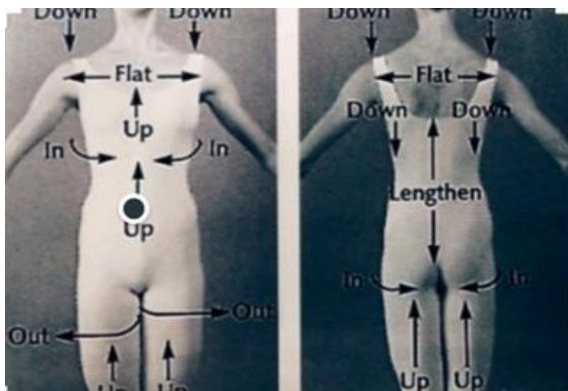
Recognizing gra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the body means recognizing the body, and the process is accumulating time. Cities are built with the accumulation of time. I imagined the gravity of Songdo's bodies, which feel like a new city, a city free from gravity, where sufficient time has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practiced the physical method of accumulating that time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research. And, the idea came up to me that we need some practice for the body to live in this new city.

If a strong body is required suitable for the countryside, then does the new city needs a fast, light, and smart body? A body suitable for Songdo is a body that can freely use elongated and flexible joints with what kind of manual? It became interesting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how to lower it and raise it by imagining the gravity of the new city.

신체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바닥부터 몸을 세울 때 발바닥, 다리, 골반, 척추 쌓아서 머리 끝, 몸 끝까지 신체를 바로 세우거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움직임(행위)을 통해 그 사이에 내 몸의 정렬이나 균형을 위한 행동들을 탐색해 보았다. 도시와 신체성에 대한 관찰자이자 행위자로서 '새로운 도시를 위한 신체 연습'을 상상하고 시도해 본다. 만들어진 도시에 살게 되었을 때 안무가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신도시에 자유롭고 재미지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리서치를 하였다.

리서치 과정에서 송도가 지향하는 '국제도시,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신계획도시, 스마트도시'라는 슬로건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몸의 신체의 메커니즘과 무브먼트의 특성을 상상하고 기초단위의 움직임을 시도하였다.

@Classic Ballet Technique (Seo Cha-young) _ Body alignment full up image
@클래식 발레 테크닉(서차영) _ 신체정렬 Full up 이미지



When I stand up from the soles of the body through a physical mechanism, I build up the soles, legs, pelvis, and spine to straighten the body up to the end of the head and to the ends of the body. These actions were explored and 'body practice for a new city' was tried as an observer and actor. I did research for a free, fun and healthy body in a new city, thinking about what questions a choreographer could ask when living in a city where it was created.

In the research process,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slogan 'International City, Future City, Sustainable City, New Plan City, Smart City' that Songdo aims, I imagined the mechanism of the bod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 and attempted to move at the basic unit.

Let's Practice Songdo!

송도/신도시 몸으로 익히보기

① 송도연습 Lev1/새로운 도시를 위한 신체 연습

1. 국제도시 연습

AM 8시 말하기 연습, 내부와 외부, 낯선 언어들과의 접촉, 낯선 언어들 연습해서 익숙하게 하기

아이우에오

2. 미래도시 연습

AM 11시 걷기 연습

발가락 10개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뒤꿈치 착착착 삼각형 만들어 디딘다.
배꼽을 발등 위로 가져간다. 엉덩이 닫고 가슴은 열고 정수리를 끌어올려
수직과 수평을 이룬다. 무릎을 들어올려 한 발 앞으로

3. 지속가능한 도시 연습

PM 12시 숨쉬기 연습

입으로 내뿜고 허파에 공기를 들이마셔서 갈비뼈 안에 숨 쉴 공간을 만든다.
12번 마시고 12번 내쉬고

4. 신계획도시 연습

PM 8시 곡선 연습

똑바로 서 있다가 휘청거리는 연습. 앞뒤 양옆 사선 - 척추 휘는 연습

Let's Practice Songdo!

Learning Songdo/New City with your own body

① Songdo Exercise Lev1/Physical Exercise for a New City

1. Practice for the International City

Practice speak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act with unfamiliar languages, practice and familiarize yourself with unfamiliar languages at 8 AM

A, ee, u, e, and o

2. Practice for the Future City

Walking at 11 AM

Making a triangle with ten toes, with big toe and little toe heel to make a triangle. Bring your belly button over your toes, close the buttocks, open the chest, and raise the crown to form a vertical and horizontal level. Lift your knees and take one step forward

3. Practice for the Sustainable City

Breathing at 12 PM

Exhaling through your mouth and inhale through your lungs to create space in your ribs to breathe. Inhaling 12 times and exhaling 12 times

5. 스마트도시

AM 00시 눈알 연습

하나둘셋 하면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크게 크게 이동시키며 스트레칭

Q 송도연습 Lev2/새로운 송도에서 신출귀몰하는 법

스마트도시의 감시체계는 귀신조차 신출귀몰 할 수 없게 만든다. 송도에 사는 신체는 CCTV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 새로운 송도에서 신출귀몰하는 방법 무브먼트 연구

4. Practice for Newly Planned City

Curve practice at 8 PM

Practicing standing upright and staggering. Front-to-back and side-to-side oblique lines and practicing spinal curvature

5. Smart City

Eye ball practice at 0 AM

Opening your eyes as wide as possible at counting one, two, three, and moving your pupils to the right and left, and stretch

Q Songdo Practice Lev2/How to come and go in the new Son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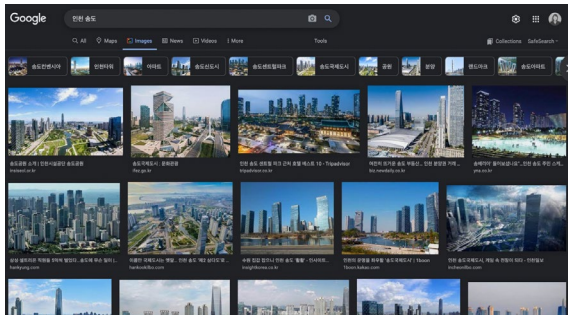
The smart city's monitoring system makes it impossible for even ghosts to come and go. The body living in Songdo can't avoid CCTV, so what can be done? Studying movement on how to get out of the new Songdo.

보이는 송도에서 안보이는 송도를 상상하기

0. 섬에서 육지로

송도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해 있다. 서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던 땅을 간척지로 조성하여 육지로 확장했다. 송도와 청량산 사이에는 안으로 휘어진 만입부가 유원지로 개발되어, 월미도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 해수욕장, 유원지가 들어서기도 했다. 지금의 송도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도시이자, 계획도시,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도시를 닮았을 송도가 리서치의 대상이 되었다. 송도를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들로부터, 어쩌면 이전의 송도의 경계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는 일들을 리서치 과정 중에 진행했다. 사라진 것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방식의 여러 연상들이 송도라는 도시에 흥미로운 겹을 더하는 장치가 되어주었다.



Imagining the invisible Songdo from the visible Songdo

0. From Island to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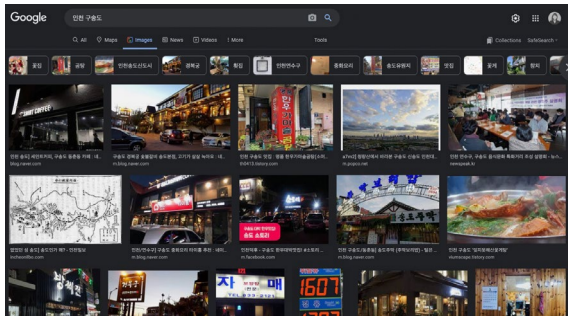
Songdo is located in Yeonsu-gu, Incheon. The land facing the West Sea was reclaimed and expanded towards the land. The indentation between Songdo and Cheongnyangsan was developed into an amusement park to become the Incheon's representative beach and park along with Wolmi Island. Today's Songdo is changing even faster.

Songdo, a cosmopolitan city, a planned city, and possibly a city of the future, became the subject of research. From the images that come to mind easily when thinking of Songdo, the boundaries of Songdo of the past were imagin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method remembering things that have been there rather than things that disappeared served as a media to add an interesting layer to the city of Songdo.

1. 검색 엔진 속 송도 풍경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정보와 이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곤 한다.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접하기 전에 구글을 통해 상상을 시각화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익숙해진 일종의 습관이다. 직접 송도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송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이해해보고자 했다.

구글은 ‘인천 송도’를 키워드로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송도의 모습이 이러한 이미지들과 많이 닮아 있었다. 신도시, 계획도시, 국제도시의 여러 요소들은 높은 스카이라인의 건물들로 대표되었고, 해당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로는 ‘송도컨벤시아, 인천타워, 아파트, 송도신도시, 송도센트럴파크, 송도국제도시, 공원, 분양, 랜드마크, 송도아파트’ 등이었다. 해당 키워드들은 ‘인천 송도 부동산’을 검색했을 때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구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도시 송도는 부동산의 가치로 살펴본 송도라는 도시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미지는 비슷한 패턴과 유형을 지니고 있었으며,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을 통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Songdo scenery in the search engine

Search engines often show intuitively what information people are looking for and how they perceive this information. Visualizing your imagination through Google before directly accessing new data is a habit that you have become recently accustomed to. Before looking directly into every corner of Songdo, I tried to understand how others look at Songdo based on the image of search data.

The keyword 'Incheon Songdo' was searched with the thought that its image of the past could be imagined. The image of Songdo that I encountered through the media was very not similar to actual image. Various elements of new towns, planned cities, and international cities were represented by buildings with high skylines, and the related keywords for the keywords were 'Songdo Convensia, Incheon Tower, Apartment, Songdo New Town, Songdo Central Park, Songdo International City, and Park, apartment lot sales, landmark, Songdo apartment', etc. These keyword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of a search for 'Incheon Songdo Real Estate'. Songdo searched on Google was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of Songdo based on the value of real estate. The images had similar patterns and types, and the elements of the city were arranged following a certain rule.

I thought that I could imagine the Songdo of past with searching the keyword, 'Gusongdo, Incheon.' The images displayed by Google presented different colors and landscapes from those of 'Sinsongdo'. Focusing on the articles on the food culture specialization street in Gusongdo, 'flower shop, meat soup,

어쩌면 이전의 송도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인천 구송도’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다. 구글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신송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색깔과 풍경들을 소개했다. 구송도의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한 기획 기사들을 중심으로 ‘꽃집, 곰탕, 인천 송도신도시, 경복궁, 횃집, 인천 연수구, 중화요리, 송도유원지, 맛집, 꽃게, 참치’ 등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표시되었다. 신송도의 이미지가 주로 푸른 빛깔을 띄는 하늘과 회색 혹은 은색을 띄는 건물의 모습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반면, 구송도의 색감은 이와는 달리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하였으며, 유형이나 패턴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2. 눈으로 마주한 도시, 송도

송도의 센트럴파크 한 쪽에 위치한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리서치의 첫 단추를 꿰었다. 개항도시 인천의 역사로부터, 물류의 허브의 역할을 했던 도시, 외국의 문화가 도시의 형태로 처음 자리 잡았을 때 인천의 모습까지 국제성이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근현대사에서 인천이 지니고 있던 국제도시로서의 중요성은 동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지 질문하여 송도의 여러 외형들을 살폈다.

송도로 진입하는 도로의 풍경은 제법 흥미로웠다. 아암대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서해바다를 향해 송도 신도시가 높이를 자랑하며 위치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산업단지들과 함께 낮은 높이의 건물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구송도가 있었다. 마치 도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도시를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었는데, 사실은 모두 인천시 연수구에 속해있다.

송도 주민들은 도시의 아스팔트를 걸어다니는 일이 많지 않다. 주거의 형태와 삶의 방식이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연결되는 매끄러운 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에 외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도 여유로운 공간을

Incheon Songdo new town, Gyeongbokgung, sushi restaurant, Incheon Yeonsu-gu, Chinese cuisine, Songdo amusement park, restaurant, blue crab, tuna' were also displayed as related search terms. Whereas the image of Sinsongdo was mainly unified with the blue sky and gray or silver color buildings, the colors of Gusongdo were more varied and complex,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a type or pattern.

2. Songdo with the naked eye

Research on Songdo started from the Incheon Urban History Museum located on one side of Central Park in Songdo. From the time when Incheon served the nation as an open port city, to the role of a logistics hub, to the time when foreign cultures first took the form of a city, there are several historical materials that can examine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ity on the city of Incheon. We look at whether Incheon's importance as an international city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still remains.

The scenery of the road entering Songdo was quite interesting. On the left side of Aamdaero, toward the West Sea, Sinsongdo was located proudly, and on the right was Gusongdo, together with industrial complexes and low-rise buildings. It looked as if two different cities were attached together around a road, but in fact, they all belong to Yeonsu-gu, Incheon.

Songdo residents rarely walk on the city's asphalt road. Since the residence is connected through a smooth passage from the underground parking to enjoy a comfortable space while minimizing friction with the outside. For this reason, it seemed that there were not many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Songdo. The smoothness of the city was used as a convenient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송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보였다. 도시의 매끄러움은 누군가에게는 편리한 삶의 방식이자 일종의 안전 장치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도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이 배워야 할 규칙이었다.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규칙과 약속은 누가 정했는지, 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궁금해졌다.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어 철저한 계획과 설계 하에 만들어낸 도시인 송도에는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물길이 나온다. 국제기구 및 주요 랜드마크들이 센트럴파크를 둘러싸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대신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공원이 있다는 점이 도시의 특징을 설명했다. 범죄가 없는 도시, 프랑스의 라 데팡스처럼 전신주가 없는 권역, 관리와 감독이 철저한 도시답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각 건물들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제법 넓은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었다. 그렇기에 골목이나 틈을 찾기보다는 쉽게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에 눈을 빼앗겼다. 이곳은 작은 존재들을 압도할만한 규모의 도시였다.

다만 도시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서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라는 특성과 날씨의 요건이 맞는 날이면 송도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운다. 송도의 곳곳을 마주하고 돌아오던 저녁 어느 순간, 송도 전체가 안개로 뒤덮였다.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보였던 아파트와 건물들이 순식간에 짧아지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쩐지 장농 속에 들어가 숨곤 했던 어린 시절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도시는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를 상상하며, 이 도시에 이전에 있던 것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way of life and a kind of safety device for some, but it was a new rule for those unfamiliar with the city to learn. Looking at the city, I wondered who made these rules and promises, and how citizens learned these things.

In Songdo, a city created under thorough planning and design with private capital invested, there is a waterway crossing the Central Par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landmarks surround Central Park, and the fact that there is a park symbolizing stability and peace instead of a plaza where people gather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s a city without crime, a district without telephone poles like La Defense in France, and a city with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everything was clean and immaculate. Each building was erected at a fairly wide distance without leaning against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looking for alleys or gaps, the large and majestic buildings drew attention. This was a city of a size that could overwhelm small beings.

However, the appearance of the city disappeared in an instant. If the weather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city facing the west coast are suitable, a thick fog will fall over Songdo. At one point in the evening on the way back from all over Songdo, The whole of Songdo was covered with fog. Apartments and buildings, which are too high to assume the height, suddenly shortened and disappeared as if nothing was there from the beginning. Somehow, I felt more at ease just like when I was a child and used to hide in the wooden closet. Wondering where this city started and where it disappeared, I started looking at the things that existed in this city before.

3. 지도로 마주한 도시, 송도

송도의 옛 모습을 상상하는 여러 구술 자료에서는 과거 갯벌이 있던 시절의 송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때의 송도의 주민들이 마주하고 살았던 송도는 지금의 송도와 다르다.

“동막 어촌계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동죽 작업을 실시하니 아홉시까지 어촌계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던 조개잡이를 한다는 기별이다. 회사원이 회사 가듯 우리는 방송을 듣고 갯벌에 조개잡이를 하러 갈 채비를 한다. 계절에 관계 없이 긴 소매옷에 긴 바지를 입고 수건과 모자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조개 담을 마대자루를 허리에 매고 까만 전화줄로 엮은 종태기를 들면 준비 끝. 종태기 안에는 네 개의 발이 있는 호미와 바닷물을 퍼 훑 묻은 조개를 닦을 작은 양재기와 빨간 고무장갑을 담았다.

가끔 입찰이 들어오면 상합과 가무락도 잡았다. 가무락은 가까운 무른빨에서 서식하고 상합은 동죽 서식지 보다 단단한 혼합빨에서 서식한다. 째쫂름하면서도 단맛이 날 정도로 맛있었으며 두어개 먹으면 시장기를 달랠 수 있었다. 동막갯벌에는 대맛이라고 하는 맛조개와 소라벌에서 만날 수 있는 황굴맛, 참맛, 소라, 피조개 등도 많았다. 봄이 되면 몇몇 아낙네들은 허리에 고무다라를 매달고 맛싸개라는 철꼬챙이로 맛조개를 잡기도 했다. 매일매일 잡아내도 많았던 맛조개다. 또한 낙지철이 되면 남자들은 낙지통을 매고 낙지를 잡았다. 경륜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백 여마리 잡았고, 필자는 몇 십마리 잡았다. 건강망을 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물에는 송어와 전어,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혔다.

정태명,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송도 갯벌 ... 그러던 어느 날’

3. Songdo on the old map

Several oral documents imagining the old appearance of Songdo said there was a tidal flat in Songdo. Songdo of the residents of at that time was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

“This is the announcement of the Dongmak fishing village. Today, we are catching Dongjuk, so please come to the fishing village office by 9 o'clock.” It was the message of the long-awaited shellfishing. Just as an office worker went to work, we listened to the broadcast and prepared to go shellfish hunting on the tidal flats. Regardless of the season, wearing long sleeves and long pants, covering your head and face with a towel and a hat, tying a sack to hold seashells around your waist, and pick up the woven basket called Jongtaegi with a black phone cord, and you were ready to go. Inside the Jongtaegi were a hoe with four legs, a small couture cloth for cleaning seashells with seawater, and red rubber gloves.

Occasionally, when a bid came in, he also caught up with Sanghap and Gamurak. Gamurak lived in nearby soft mud, and Sanghap lived in mixed mud that was harder than Dongjuk habitat. It was salty and sweet enough to taste, and eating a couple of them could lessen the hunger. In the Dongmak Tidal Flat, there were Daemat, and Hwanggulmat, Chammat, Conch, and Ark Shells. When the spring comes, some Women hung a rubber bowl from their waist and caught clams with iron skewers called Massagae. It was a delicious clam that I caught it every day. Also, during the season of octopus, men tied an octopus box on their body and caught them. A skilled fisherman caught a hundred or so a day, and I caught a few dozen. There were also people using fishing

현재 송도의 해안선은 굽은 직선으로 그려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주요 물류들이 오고 가는 항구를 비롯하여 여객 터미널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해안선들을 따라가며 송도의 해변 생태를 잠시 살펴볼 수 있었다. 인천의 다른 섬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리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기도 했다. 마치 유토피아처럼 생겨나던 도시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 자료들이 흥미롭게 도시의 탄생 과정을 설명한다.

지금의 송도는 여러 국제기구들, 교육기관 등을 앞장 세우며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항지였고, 상호문화가 교류하며 혼합되었던 도시였고, 사신들이 오가던 길이었다는 점을 상상하며 그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는 도시의 국제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계획도시가 지닌 한계가 유기적인 도시의 연결성,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창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점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net, and various fish species such as Mullet, Mackerel, and Blue Crab were caught in the net.

Jeong Tae-myung, Incheon Ilbo (<http://www.incheonilbo.com>) 'Songdo Tidal Flat ... Then One Day'

Currently, the coastline of Songdo is drawn in thick straight lines. I was able to take a brief look at the coastal ecology of Songdo by following the city's coastline that leads to the port where major logistics come and go as well as the passenger terminal. Although it is connected to other islands in Incheon by bridges, it was also divided by the bridge. Map data allow you to examine the appearance of a city that emerged like a utopia intriguingly explain the process of the city's birth.

Today's Songdo is talked as an international city with having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How can we judge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today if we can understand its historicity by imagining that it was an open port, The city where mutual cultures were exchanged and mixed, and that the envoys came and went? If the limitation of a planned city is that it lacks organic city connectivity and the ability to generate new things, how can these problems be overcome?

4. Songdo, we met by walking

A city designed around roads and buildings is difficult to understand based on walking. If cities before modernization were built in a way that people walked through roads, The new cities are more efficient in the construction and design of infrastructure for cars and buildings. Even though Songdo has good public

4. 걸어서 만난 도시, 송도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걷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화 이전의 도시들이 사람이 다니는 곳이 길이 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도시들은 인프라의 구축과 설계가 차와 건물을 중심으로 효율화되어 있다. 센트럴파크 등 수많은 공원을 자랑하는 송도임에도 각 공원에 이르기 위에 가장 좋은 방식은 차를 타고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걸어서 송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송도를 걷는다면 어떤 풍경을 마주할 수 있을지 리서치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송도는 다리 건너 구송도에 있었다. 사진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시장의 사잇길을 만났고, 이전에 해안가였던 곳, 송도 역사와 유원지터를 지나쳤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풍경이 바뀌었고, 차를 타고 계속 달려도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던 송도 신도시와는 다른 공간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만 존재하는 도시 신송도와는 달리 구송도에는 도시의 시간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골목마다 서로 다른 규칙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때로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자유분방함 역시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제도시를 표방한다는 송도에는 또 다른 국제성이 있다. 함박마을은 인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자, 국내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 거주 인구가 높은 지역이었다. 대부분이 고려인들이기에 함박마을의 골목에는 키릴문자로 쓰여진 간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의 중고차 수출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아랍계의 이주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곳의 거주민들에 대해 이웃들을 범죄에 대한 우려, 쓰레기 등의 환경 관리에 대한 우려 등 다소 일방적인 혐오나 오해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함박마을의 주민들과 교류나 연결을 상상하는

parks including Central Park, the best way to reach each park was by car. I continued to ask questions while researching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Songdo on foot and what kind of scenery I could face if I walked in Songdo.

The Songdo we could walk on was in Gusongdo across the bridge. As we walked along the path that the envoys walked in the past, we came to the streets between the traditional markets and passed the former coastal area, Songdo Station and Amusement Park. The scenery changed little by little each time I walked, and I was able to feel a different space from Songdo New City, where the same scenery was repeated even if I continued driving in the car. Unlike Sinsongdo, The city that only exists today, Gusongdo had the temporality of the city. Different rules existed in each alley, and there was also a sense of freedom that seemed to not exist at times.

Songdo, which claims to be an international city, has another international character. Hambak Village was the area with having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ers are living in Incheon and the third largest in Korea. Most of them are Goryeoin, so it was not difficult to find signs written in Cyrillic characters in the alleys of Hambak Village. It is said that there are many workers who work in the nearby implode for used car export and sale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Arab immigrants is also increasing. People here have a rather one-sided hatred or misunderstanding of their neighbors, such as concerns about crim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due to increases in waste. Some do not consider exchanges or socializing with the residents of Hambak Village even though they are close by. Like Sinsongdo and Gusongdo, this was a remote island within Gusongdo.

것은 드물어보였다. 신송도와 구송도가 그러하듯 구송도 안에서도 이곳은 외딴 섬이었다.

국제 업무단지, 국제 캠퍼스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도시. 송도를 소개할 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도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송도는 상호문화 간 교류를 도모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연결될 수 있을까.

5. 생태계의 관점에서 살펴본 송도

독립과 종속의 개념을 도시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송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도시라는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다공성과 창발성을 가정하여 송도라는 도시에 정주하는 것들과 기생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생태학의 관점에서 틈, 균열, 마찰이 주는 균형을 살피고 도시를 새로이 이해하는 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탐구해보기

- 독립 요소와 종속 요소: 기생하는 것들, 틈(아암도)
- 큰 세상 송도의 작은 생태계 찾아보기
- 어린시절 장농에 들어가길 즐기던 심리를 위한 작은 안식 공간 만들기
- 틈새와 구석, 보이지 않던 공간들을 잇는 지도
- 도시를 때로는 원경으로 조망하고, 때로는 근거리에서 관찰하기

International business complexes, campuses, organizations, and cities are often mentioned when introducing Songdo. But in the reality is that those who make up the majority of foreigners in Songdo are alienated from this discussion. If so, can Songdo promote cross-cultural exchanges, learn from each other, and connect?

5. Songdo from an Ecosystem Perspective

If we apply the concepts of independence and subordination to the city, how can we understand Songdo? Assuming the porosity and emergence of the urban organism, It is possible to conduct a study examining the things that reside and parasitize in the city of Songdo.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perspective on the city by examining the balance of gaps, cracks, and friction.

More to explore

- Independent and dependent elements: parasites and gaps (Aam Island)
- Finding the small ecosystem of Songdo, the big world
- Creating a small resting space we enjoyed as a child
- A map that connects gaps, corners, and invisible spaces
- Observing the city from a distance, sometimes from a distance

6. 존재하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송도

아이러니하게도 송도에는 해안선을 개척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잃어버린 해안을 다시 찾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공존하고 있다. 단절된 인천 송도의 해안을 다시금 친환경적으로 회복하여 자연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경기도 과천의 주민을 떠올리게 했다. 원래 어린시절 살던 집터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살던 곳에는 지금 홍학이 산다'고 답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생기기 이전 모습을 상상했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장점을 지닌 해양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송도에도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어족자원 역시 풍부하다. 이러한 송도의 환경이 과거의 것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금 해안선의 원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송도가 마주하고 있는 실천 과제 중 하나이다.

7. 리서치 레퍼런스(요약)

국제도시 송도

초기에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해외 유명 설계사 조감도를 수정 없이 바로 재현해 싱가포르 같은 느낌이었다. 전체 면적은 약 53.4km²로서 경기도 부천시와 거의 동일한 크기이며,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지는 않을 예정인데, 업무지구나 교육시설, 연구시설, 향만시설 등이 있고 녹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모든 국제기구가 이곳에 있다. 2020년 7월말 기준 외국인 인구는 3,584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많다. 송도국제도시의 계획은 9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입안 계획은 80년대 초반

6. Songdo to remember and understand the things that existed
Ironically, along with the movement to develop the coastline, there is also a movement to reclaim the lost coast. This is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marine ecosystem by restoring the cut off coast of Songdo, Incheon, again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This reminded me of a resident of Gwacheon, Gyeonggi-do, whom I interviewed on a previous project. From the story of an old lady, who answered, 'Where I used to live now is the home to the flamingos,' to the question about the house when she was a child. Then, I imagined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befor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was built in Gwacheon. Incheon claims to be a marine eco-city with the advantage of abundant marine biological resources compared to other regions. Endangered species of birds, including black-headed plover, live in Songdo, and fish resources are also abundant. One of the practical tasks facing Songdo now is to restor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coastline so that the environment of Songdo does not disappear.

7. Research Reference (Summary)

International city of Songdo

In the early days,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NSIC) reproduced the bird's eye view of a famous overseas designer without modification, giving it the image like the city of Singapore. The total area is about 53.4km², almost the same size as Bucheon-si, Gyeonggi-do, and the population is not expected to be large compared to the large area, because there are business districts, educational facilities, research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The proportion of green area in the city is high.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sted 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of Songdo. As of the end of July 2020, the number of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송도국제도시의 공용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하는 영어 공용화 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송도라는 지명

해방 이후 당시 송도라고 불렀던 지명은 두 지역으로 나뉘어 행정구역으로 송도라는 지명은 송도국제도시 이전에는 없었다. 이후 동춘동 해안가 지역이 매립되고 기존 내륙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며 흔히 말하는 송도의 지역이 옥련동+동춘1동 일부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신도시(송도국제도시) 개발 이후에는 구송도와 신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신도시도 정확히는 옥련동 근방이 아닌 동춘동 근방이라는 것을 넘어가면 안된다. 신도시 전체가 설립 초기에는 동춘동(동춘2동) 관할이었고, 후에 신송동, 동춘동, 송도동 중 주민회의에 의해 지명이 결정되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 사실이 이슈화되었다.

간척과 매립

착공 당시 매립지의 땅은 1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문학경기장 건설과 확장 도중 나온 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10공구는 인천신항이 한창 건설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선들 위주의 항구로 운영될 예정이라 이 지역 인근에 물류 단지가 건설될 것으로 보이며, 6, 8공구 옆으로 인천대교가 지나가는 자리 옆인 9공구에는 국내 최대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였다. 한국의 항구들 중에서는 최초로 국제 크루즈 노선의 모항이나, 개장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바 없다.

foreigners was 3,584, the highest among Incheon's Free Economic Zones. The plan for Songdo International City seems to have been made in the 1990s, but it is said that the plan was drafted in the early 1980s. It also considered designating Korean and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Songdo.

The title of the city, Songdo

After liberation, the name Songdo at the time included two regions with no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name Songdo did not exist before Songdo International City. After that, the coastal area of Dongchun-dong was reclaimed and apartments were built in the existing inland area, and the area of Songdo was reduced to a part of Ongnyeon-dong + Dongchun 1-dong.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Songdo International City, it is classified as Gusongdo and Singsongdo.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new city is also located in Dongchun-dong, not in the vicinity of Ongnyeon-dong. The entire new town was under the jurisdiction of Dongchun-dong (Dongchun 2-dong) at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and later, among Sinsong-dong, Dongchun-dong, and Songdo-dong, the nomination was decided by the residents' council, and this fact drew attention.

Reclamation and landfill

At the time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the land at the reclaimed land was estimated at around 100,000 won, and there was the rumor that that this was because stones from the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the Munhak Stadium were used. In Zone 10, Incheon New Port was under construction, and it would be operated as a port mainly for container ships. And the logistics complex is expected to be built near this area. The International Passenger

계획도시 송도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국제업무단지는 갯벌을 매립한 하안 도화지 같은 빈 땅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쏟아 부은 계획도시”라며 “기획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비전을 적용하고 뉴욕, 베니스,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의 장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의 건축과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위해 세계 유수 기업들을 참여시켰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의 지형을 본뜬 센트럴파크는 이런 종합적인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도는 편리한 수준의 정주 환경이 구비된 계획도시다. 국제학교, 국제병원, 공원, 컨벤션센터, 골프장 등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 30분 거리에 있다. 65층 규모 주상복합인 더샵 퍼스트월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아파트 건설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송도의 허파인 센트럴파크, 인천 MICE 산업의 핵심시설인 컨벤시아,

Terminal opened in the Zone 9 besides the Incheon bridge next to Zone 6 and 8. Among Korean ports, it was the first home port for international cruise lines, but it has not performed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terminal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 planned city, Songdo

An official from POSCO E&C said,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plex is a planned city where the imagination and technology of world-class experts are poured into empty land like white drawing paper which was created by reclaiming the tidal flats. It reflects the strengths of world-class cities such as New York, Venice, and Paris,” he explained. The world's leading companies were involved in the city's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design. Central Park, which introduced eco-friendly technology and modeled Korea's topography, is the product of such a comprehensive process. Songdo is a planned city with a convenient level of settlement environment. International schools, international hospitals, parks, convention centers and golf courses are all within a 30-minute walk. Starting with The Sharp First World, a 65-story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15,000 apartments have been built. With the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from the apartment construction, Central Park, the lung of Songdo, Convensia, a key facility in Incheon's MICE industry, and an Art center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Incheon's culture and arts were built. According to Geoff Manaugh's "A buglar's guide to the city", the backup key to control Songdo International City is strictly stored in an underground vault in a bank.

인천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할 아트센터 등이 건설되었다. 제프 마노(Geoff Manaugh)의 "도둑의 도시 가이드(A buglar's guide to the city)"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를 전부 제어할 수 있는 백업 키가 어느 은행 지하 금고에 엄중히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올댓 송도의 활약

기업 유치를 통해 본래 상업 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과 달리 아파트 공급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시에서도 인지한 것인지, 새로 매립하고있는 11공구에 계획된 모든 주거구역을 취소시키고, 전량 바이오 및 첨단 산업시설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몇몇 복합 상업 시설과 공원들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송도의 인구는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8만을 돌파했고, 송도를 출발해 부평과 부천을 거쳐 강북으로 직결되는 GTX-B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의 국제도시와 송도

홍콩의 경우 첵랍콕 국제공항 앞의 통청 신도시가 대표적이며, 말레이시아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대비해 푸트라자야와 사이버자야를 건설했고 공항 소재지인 스팅 쪽에 대규모 국제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두고 있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총괄하는 본래 뉴욕 출신인 게일 인터내셔널 사의 스탠 게일 회장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의 영원한 대형 녹지를 송도 국제업무단지에도 조성하자는 취지를 밝히면서 송도 센트럴파크가 가시화되었다. 설계는 송도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뉴욕 프리덤타워와 상하이의 상하이타워 등 세계 유수 랜드마크를 설계했던 KPF사에서 맡았다.

All that Songdo's performance

Contrary to the original plan to develop into a commercial city by attracting companies, The urband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the supply of apartments. Recognizing this concern, It is decided to cancel all residential areas planned for the newly reclaimed Zone 11 and to develop the entire area into the area for bio and high-tech industrial facilit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everal commercial complexes and parks. The population of Songdo exceeded 180,000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in December 2020, and interest in real estate is focused on the GTX-B, which starts from Songdo and connects directly to Gangbuk via Bupyeong and Bucheon.

Asia's international city and Songdo

In the case of Hong Kong, Tung Chung New Town in front of Chek Lap Kok International Airport is representative. Malaysia also built Putrajaya and Cyberjaya in preparation for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and plans to build a large-scale international new city in Spang, where the airport is located. Songdo Central Park became visible when Stan Gale, chairman of Gale International from New York, the US, who pursued the development of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Complex, and announced that he would create a large, permanent green space in the city center just like New York's Central Park. The design was taken by KPF, which designed world-famous landmarks such as Northeast Trade Tower in Songdo, Freedom Tower in New York, and Shanghai Tower in Shanghai.

마찰 없는 도시

- 송도가 만약 사람이라면 피부와 기관 모두가 매끄러운 사람과 같았음
- 도시에 처음 들어서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규칙적인 건물과 도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
- 에어비앤비로 들어가는 체크인 은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음
- 타 도시와는 다른 스카이라인, 건물들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세워져 있음
- 스마트도시, 미래도시의 정의를 살피기 앞서 살펴본 키워드 몇가지 #매끄러움 #포용성

매끄러움은 그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이다. 그것에는 저항이라는 부정성이 없다. 그것은 더이상 내가 맞서는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소통 또한 매끄러워진다. 소통은 정보의 원활한, 즉 마찰 없는 교환이 되어 매끄러워졌다. 매끄러운 소통에는 타자와 낯선 자의 부정성이 일정 끼어들 수 없다.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반응할 때, 소통은 최고 속도에 도달한다. 타자로 인해 발생하는 저항성은 동일한 것의 매끄러운 소통을 방해한다. 매끄러움의 긍정성은 정보와 소통과 자본의 순환을 가속화한다. -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2016, 문학과지성사

A friction-free city

- If Songdo were a human, both skin and organs were like a person with smooth skin.
- The first thing I saw when I entered the city was the regular buildings, roads, and arranged spaces.
- Check-in through Airbnb was all done without encountering anyone
- Skyline buildings are erected at a safe distance unlike other cities
- Keywords we looked at before examining the definition of smart city and future city #smoothness #inclusivity

Smoothness makes us satisfied. It has no negativity of resistance. It is no longer something I am fighting against. Communication also becomes smoother today. Communication currently is a frictionless exchange of information. The negativity of the other and the stranger can't intervene in smooth communication. When the same responds to the same, communication reaches its maximum speed. The resistance caused by the other prevents the smooth communication of the same thing. The positivity of smoothness accelerates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apital.

- Han Byungchul, 'The Salvation of Beauty', 2016, Literature and the Intelligence

An inclusive city is defined as "a place where everyone, regardless of property, gender, age, race or religion, is empowered to participate productively and positively in the opportunities that cities have to offer". A public city

포용적인 도시는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소'를 의미한다. 공공의 도시는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물리적으로 잘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각 도시 공간과 시설의 생산-점유-이용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열린 도시'를 추구하며, 좋은 도시의 정치적 기반이 된다. 창발적 도시는 '유무형의 유산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발전에서 의미를 가지며, 근본적 자산으로서의 유산을 지닌 도시'로서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움이 강조된 도시다. 또 회복 탄력적 도시는 '기후변화를 포함해 날로 증가하는 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예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도시가 재해재난의 충격 이후 물리적 복구, 경제적 회복, 사회적·심리적 안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조대연, '미래도시의 네 가지 열쇳말', 2019, 한겨레

pursues 'an open city that not only has physically well-equippe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parks, schools, water and sewage, and telecommunications, but also does not exclude anyone from the production-occupancy-use of each urban space and facilities'. It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a good city. An emergent city is a city that emphasizes more openness and freedom as 'a city whos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has meaning in the identity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has a legacy as a fundamental asset'. In addition, a resilient city is 'not only to reduce and prevent the ever-increasing risk of disasters, including climate change, but also to allow the city to effectively restore its original function through physical recovery, economic recovery, And soci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fter the impact of a disaster. A city that can be restored.

- Je Daeyeon, 'Four Key Words of a Future City', 2019, Hankyoreh

틈 없는 도시

- 규칙과 약속이 안전함을 보장하는 도시 송도
- 어쩌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마주칠 공간이 부재
- 그늘, 그래피티, 낙서, 쓰레기, 골목이 없는 도시
-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는 다양성도 연결해낼 수 있을까
- 구송도와 신송도 사이의 보이지 않는 막

틈새를 비집고 자리한 놀이의 공간

- RC카 경주장, 산책하기 좋은 갈대 숲, 다리 밑 낚시, 갯벌 목욕탕, 틈새 텃밭
- 창조적 마찰이 허용된 공간, 용도가 열려 있는 장소, 공간과 공간 사이의 장소
- 경로에 위치한 공간, 혼종적 문화의 자리
- 보이는 송도와 다른 송도

또 다른 송도 상상

- 신송도와 구송도 사이의 상호문화 교환의 공간, 방식, 시간 마련
국제도시 송도, 세계의 여러 거점과 연결되어 있으나 구송도(옥련동 일대)와는 단절. 남극과는 연결되어 있는데, 함박마을과는 이렇게 먼 국제도시 송도의 커뮤니티도 연결될 수 있을까?
- 도시를 낯설게 하는 새로운 시선 큰 도시의 큰 건물이 아닌 작은 틈과 사이 공간들 찾아보기. 사라진/있던 해안선의 자리, 개간된 도시와 개간되지 않은 땅 사이의 경계 걷기 신송도와 구송도 사이의 상호문화 교환 공간, 방식, 시간 마련
- 도시의 큰 건물이 아닌 작은 틈 찾기
- 공간과 공간 사이의 틈새 놀이 만들기

A city without gaps

- Songdo, a city where rules and promises are safe
- Maybe there is no time and space for different cultures
- A city without shade, graffiti, graffiti, garbage, and alleys
- Can bridges that connect cities also connect diversity?
- The invisible curtain between Gusongdo and Sinsongdo

A space for playing in the gap

- RC car racetrack, reed forest for a walk, fishing under the bridge, mud flat bath, niche garden
- A space where creative friction is allowed, a place where use is open, and a place between spaces
- A space located on the path, a place of hybrid culture
- Songdo different from the appearance

Another Songdo in imagination

- Provision of space, method, and time for mutual cultural exchange between Sinsongdo and Gusongdo, it is connected to the various bases around the world even to the Antarctica, but is isolated from Gusongdo (the Oknyeon-dong area), can the community of the distant international city of Songdo be connected to Hambak village?
- A new perspective that makes the city unfamiliar Look for small gaps and spaces, not large buildings in a big city. The location of the missing/existing coastline, walking the boundary between the reclaimed city and the uncultivated land, Intercultural exchange between Sinsongdo and Gusongdo, preparing space, way, and time
- Find small gaps in the city of large buildings
- Creating a niche between spaces

송도에 대한 첫인상

미래도시

도로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송도의 진입경관은 높고 거대한 아파트가 거인의 수문장처럼 보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미래적이며 신화적인 이미지.

Q 인간이 욕망하는 유토피아는 신의 세상에 존재하는가?

상상과 실체가 공존하는 도시

송도는 서해 갯벌 위에 지어진 도시이다. 2003년 송도에 처음으로 지어진 건물은 갯벌에서 진주를 캔다는 뜻의 '갯벌(Get Pearl)타워'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도시가 완성됨에 따라 송도의 해안선은 계속 변화를 겪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 땅이 없었던 곳에 지어진 도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바다의 기억 위에 지어진 도시!

질은 해무가 땅에 도착해 도시를 단숨에 지워버리는 안개의 도시!

질은 안개 속에 가라앉은 땅 위로 다시 드러나는 상상의(바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

Q 역사 위에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인간이 바다의 역사 위에서는 무엇을 짓고 상상할까?

스마트 도시, 편의의 도시, 유령의 도시, 마찰 없는 도시

송도에서의 이동은 매끄럽다. 소란스럽고 복잡하지 않고 주어진 규칙을 잘 따른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흘러간다. 스마트 도시의 통제 센터의 관리와 통제 속에 안전이 확보된 도시에서 시민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곳곳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선들과 목소리, 이

First impressions of Songdo

Future city

The view of entering Songdo from the far foot of the road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tall and huge apartment looks like a giant's gatehouse, as if entering a space and time of the future that has not yet arrived. Futuristic and mythological image.

Q Does the utopia that humans desire exist in the world of God?

A city where imagination and reality coexist

Songdo is a city built on the tidal flat of the West Sea. It is said that the first building built in Songdo in 2003 was named 'Get Pearl Tower', which means to dig pearls from the tidal flat. As the city progresses, Songdo's coastline continues to undergo changes.

A city built on an uninhabited place, where there was no land!

A city floating on the sea, a city built on the memory of the sea!

A city of fog, where thick sea fog arrives on the ground and makes the city disappear at once!

An imaginary city (with memories of the sea) that reappears on the land sunken in the thick fog!

Q What will human beings who build their homes on history build and imagine on the history of the sea?

Smart city, convenience city, the city of ghost and frictionless city

Movement in Songdo is smooth. It's not noisy and complicated, and if you follow the given rules, everything will flow naturally and smoothly. Citizens feel comfortable in a city which is safe under

도시에는 유령이 살고 있다.

성벽처럼 단단하게 쌓인 아파트와 도시의 건물들, 자발적 게토는 도시 속 사람들을 분리시킨다.

❶ 인간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면 우리는 최적화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는가?

하늘로 연결된 도시

높은 건물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물결치는 곡선의 스카이라인은 아름답다. 반대로, 두 다리로 걸으며 만나는 땅의 세상은 넓고 곧은 직선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 곧고 넓은 길은 보행자로 하여금 걷기를 포기시킨다. 인간의 몸과 길과 장소가 연결되지 않는 도시. 걸어서 길을 연결하기 어려운 도시

❷ 공간과 공간, 장소와 장소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도시의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은 어디에 쌓일 수 있을까?

생각과 질문 : 스마트 도시

송도 스마트 시티의 통제 센터는 콕핏(cockpit-조종석)이라고 불리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듯 도시를 조종한다는 발상을 담은 별명이라고 한다. 콕핏은 송도의 랜드마크인 G타워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에서 송도·영종·청라의 방법, 방재, 교통, 환경 시설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CCTV, 센서,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시설물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smart city control center.

Although there are invisible gazes and voices everywhere, a ghost lives in this city. Apartments, city buildings, and voluntary ghettos, which are tightly stacked like walls, isolating the people in the city.

❶ If we remove all obstacles that humans may feel uncomfortable with, do we reach the state of optimized happiness?

City connected to the sky

The wavy curves of the skyline seen through the window from the tall building are beautiful. Conversely, the world of land that meets by walking on foot has a wide, straight line. A straight and wide road makes pedestrians give up walking. A city where the human body and roads and places are not connected. A city that is difficult to reach on foot

❷ How are space and space and place and place connected? Where can the memories and experiences of the people of this city be accumulated?

Thoughts and Questions: Smart Cities

The control center of Songdo Smart City is called a cockpit, and it is a nickname that contains the idea of controlling the city as if you were controlling an airplane. The cockpit is located on the 3rd floor of G Tower, a landmark in Songdo. In this place, crime prevention, disaster prevention,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facility management in Songdo, Yeongjong, and Cheongna are integrated into one. All data on smart facilities such as CCTV, sensors, and Internet of Things are visualized here.

스마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절대적이고 보편적 정의는 없지만, 스마트 도시는 일반적으로 거주 적합성(livability)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이동성, 안전 및 보안, 경제 성장, 도시평판을 높이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한다.

리처드 세넷은 <짓기와 거주하기>에서 스마트 도시를 설명하는데, 타자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한 가지 방안은 현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모두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며, 테크놀로지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한다.(그가 긍정하는 스마트 도시는 닫힌 처방형의 스마트 도시가 아닌 열린 조정의 스마트 도시이다.)

Q 모두의 삶을 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Q 모두의 삶이 쉬워지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 스마트한 네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길 안내를 해 주고, 택시 앱을 통해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사전 결제한다. 물건의 구입과 결제는 비대면과 당일 배송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되고, 아파트 단지과 낯선 건물 방문할 때도 인공지능 지도도 있는 목소리에 따라 편리하게 안내된다.

우리는 운전을 하며 낯선 길을 헤매며 긴장할 일이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길 속에서 우연의 풍경과 조우 할 일 또한 없다. 도시의 정확한 교통 정보는 이동의 시간을 최적화 시켜주며, 덥고 추운 야외의 날씨에서 고생할 일이 없다. 하지만, 길과 교통 정보를 알기 위해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다. 이동의 효율성과 편리성은 모든 이동을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어 준다.

What is a smart city? Although there is no absolute and universal definition, smart cities are generally aimed at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ervices to make cities more livable, increasing the city's sustainability, mobility, safety and security, economic growth, and city reputation.

Richard Sennett explains smart cities in <Building and Living>, saying that one way to lighten the weight of others is to use modern technology to make life easier for everyone, and that technology will smooth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The smart city he affirms is a smart city of open coordination, not a closed prescription smart city.)

Q What makes everyone's life easier?

Q Is it possible to make everyone's life easier?

We live in smart cities or smart-oriented cities with smartphones. Smart navigation gives us accurate and efficient directions, and the taxi app allows us to hail conveniently and pays for a taxi. The purchase and payment of goods are conveniently conducted non-face-to-face, same-day delivery, or through kiosks, and when visiting apartment complexes and unfamiliar buildings, they are conveniently guided by voices that may be artificial intelligence.

We don't have to be nervous while driving and wandering on unfamiliar roads. But on the lost road, there is also no chance to encounter the scenery of chance. Accurate city traffic information optimizes travel time, and you don't have to suffer in hot and cold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은 편리하다. 점원과 고객은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고, 눈빛 교환도 없이 모든 과정은 부드럽게 처리된다. 온라인 주문과 새벽 배송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은 친절하 키오스크에 입력되어 있는 어떤 정보도 질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익숙해지며, 모든 서비스는 일방향으로 전개된다. 모든 정보와 함께 친절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틈을 찾기가 어렵다. 키오스크 주문 가게의 점원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 새벽에 문을 열면 제 시간에 정확히 배달되고 있는 물건을 보며, 전날 밤 늦게 주문한 물건들의 이동에 투입된 노동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에는 유령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크놀로지와 유령이다.

송도에서의 경험

에어비앤비 숙소 찾아가기!

온라인으로 예약과 결제를 마치고 숙소의 주소와 집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긴 매뉴얼을 받았다.

1단계 숙소가 있는 단지의 입구를 찾아야 한다. 다른 입구로 들어가면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입구를 통과할 때 주의할 점은 인터폰으로 정확히 동과 호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때 게스트 하우스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소통에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동과 호수만 이야기해야 한다. 인터폰을 누르기 전 몇 번을 연습한다.

2단계 지하주차장 진입. 같은 규칙이다. 인터폰에 다른 말은 일절 삼가고, 동과 호수만 말한다.

3단계 지하주차장의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하고, 안내된 자전거 보관소로 가 자전거에 보관된 아파트 카드를 획득한다.

outdoor weather. However, there is also no opportunity to talk to others to get directions and traffic information.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movement make all movement have a specific objective.

Ordering through a kiosk is convenient. The clerk and customer do not exchange a single word, and the entire process is handled smoothly without exchanging glances. With online ordering and early morning delivery, you can get what you need quickly and conveniently in any situation. However, customers are accustomed to not asking for any information punching data into the friendly kiosk, and all services are provided one-way. It is difficult to find a gap in the kindly provided service with all the information. The clerk at the kiosk ordering shop is visibl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invisible. When you open the door at dawn, you can see the items being delivered on time and on time, and the labor involved in moving the items ordered late the night before is not visible. There are ghosts lurking in the movement of people and objects.

What we need is technology and ghosts for everything to run efficiently and smoothly.

Experience in Songdo

Find a place to stay on Airbnb!

After making a reservation and payment online, I received the address of the dormitory and a long manual to enter the house.

Step 1 I need to find the entrance to the complex where the accommodation is located. If you go through another entrance, you cannot enter, so you must enter through the

4단계 아파트로 진입.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의 호수를 정확히 찾아 입실한다.

숙소 입실까지는 마치 게임과 같았다. 우리의 미션은 매뉴얼대로 길을 찾고 열쇠를 찾으며 숙소에 무사히 입실하는 것인데, 미션 수행의 핵심 요소는 마찰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애써 이방인이 아닌 척,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수행했다. 서비스는 일방적이고, 우리는 어떤 저항도 없이 마찰 없는 숙소 입실에 성공했다.

correct entrance. One thing to note when passing through the entrance is to tell the residence number through the intercom. At this time, if you talk about the guesthouse or other things, communication errors and problems may arise, so you should only tell the numbers. Practice a few times before pressing the intercom.

Step 2 Enter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t's the same rule. Refrain from telling anything else on the intercom, and only tell the residence number.

Step 3 Park in a designated place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and go to the bicycle storage provided to obtain the apartment card stored on the bicycle.

Step 4 Enter the apartment. Take the elevator to find the exact accommodation.

It was like a game until entering the dormitory. Our mission is to find the way according to the manual, find the key, and safely enter the dormitory, but the key element of mission performance is not to create friction. We tried to pretend we weren't strangers, and we did everything naturally. The service is one-sided, and we succeeded in entering the hostel without any resistance.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 마찰(friction)

빌게이츠는 “마찰 없음”이라는 용어로 사용자 친화적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사용자가 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마찰 없음이 사용자 친화적인 것이다. 스마트 도시는 마찰 없는 사회(Frictionless Society), 마찰 없는 도시(Friction-free city)로 대체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세넷은 <짓기와 거주하기>에서 마찰 없는 삶을 위해서는 타인들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 속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아우성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주거 공간, 쇼핑, 이동 등 모든 것이 테크놀로지로 편리하게 시스템화된 도시에서는 인간의 판단은 알고리즘이 대체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성과 효율성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잊어버린다. 일방향의 친절한 틈이 없는 서비스 속에서 우리는 저항력을 잃는다. 존 듀이는 저항과 장애물을 창조의 박차라고 한 바 있다. 마찰은 운동하는 물체를 방해하는 힘이다. 모든 물체는 원자단위로 보면 매우 거칠기 때문에 어떤 물체라고 마찰이 일어난다.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없다는 것은 개개인의 거친 표면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찰은 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항과 사유를 만들며 창조적인 비판을 생성한다. 마찰 없는 도시에서 우리는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Keyword

First keyword: friction

Bill Gates uses the term “friction-free” to describe user-friendly technology. In general, frictionless is user-friendly when the user doesn't have to think about why. Smart cities can be replaced with frictionless societies and friction-free cities. In <Building and Living>, Richard Sennett says that in order to live a frictionless life, one must withdraw from the cries of conflicting interest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others.

In a city where everything, such as living space, shopping, and movement, is conveniently systemized with technology, human judgment is replaced by algorithms, so we forget the question of ‘why?’ in convenience and efficiency. In one-way friendly service without gaps, we lose our resistance. John Dewey once said that resistance and obstacles spurs the creation. Friction is a force that opposes a moving object. Since all objects are very rough when viewed at the atomic level, friction occurs with any object. The absence of friction between people means that the rough surfaces of individuals disappear. Friction slows down, creates resistance and thought, and generates creative criticism. In a frictionless city, we may be losing our creativity.

두 번째 키워드 : 연결(Connection)

사람들은 도시의 누구와, 어디와, 무엇과 연결되는가? 도시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마찰 없는 사회와 도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를 테크놀로지의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며 삐걱거림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공간과 사무 공간들은 안전과 보안의 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 게토화되고, 사람들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연결된다.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문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을 받고 있는 구글플렉스는 사실 게토화된 공간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지만, 물리적 건물 안과 밖의 연결은 차단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장소를 연결하는 길

Second keyword: Connection

Who, where, and what do people connect with in the city? How are people in a city connected? A frictionless society and city smoothly connects people to people and people to places with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echnology, and creaking is not allowed. Residential and office spaces are systematized as a network of safety and security and become ghetto, and people are connected based o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Googleplex, which is envied as the world's best workplace that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play, is actually a ghettoized space that connects the world in a virtual space, but the connection inside and outside the physical building is blocked.

A road that connects people and people, people and spaces, and spaces

예술적 상상하기

송도 세렌디피티 : 도시 위의 도시 짓기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계획된 스마트 도시에서 '우연성'은 어쩌면 위험한 상상일 수 있다. 우연성이 차단된 스마트 도시 속에서 우연의 길, 우연의 공간, 우연의 만남, 우연의 사건들을 일으킨다. 이러한 우연성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지은 도시 속에서 구현된다. 예술가들은 송도에서 우연성의 공간들을 발견한다. 이 공간들은 창조적 마찰의 공간으로 기존 스마트 도시의 알고리즘과 질서 밖에 놓여있다. 도시를 지배하는 시스템에 가려진 유령들을 찾아내 드러내고, 도시에 새로운 장소를 창조한다. 세렌디피티를 연결하는 길들은 직선을 벗어난 곡선이며, 도시 위의 도시. 도시는 두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존재하며, 도시 위의 숨겨진 도시 송도 세렌디피티가 만들어진다.

도시에서 길 잃어버리기!

숨겨진 도시를 찾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직선 속 곡선의 길을 따라 걸으며 길을 잃어버려야 한다.

Artistic imagination

Songdo Serendipity: Building a City on a City

Serendipity refers to a significant discovery or invention made from complete coincidenc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scientific research, to make a significant discovery or invention from the results obtained by failure during an experiment. (Wikipedia)

In a planned smart city, 'contingency' may be a dangerous imagination. In a smart city where coincidences are blocked, coincidence paths, coincidence spaces, coincidence encounters, and incidents occur. This contingency is embodied in the city newly built by the artists. Artists discover spaces of chance in Songdo. These spaces are spaces of creative friction, which lie outside the algorithm and order of the existing smart city. Find and reveal the ghosts hidden by the system that dominates the city, and create a new place in the city. The roads connecting serendipity are curved out of straight lines, and the city above the city. The city exists with two layers, and Songdo Serendipity, a hidden city above the city, is created.

Getting lost in the city!

In order to perform the mission to find the hidden city, citizens must walk along a curved path in a straight line and get lost.

송도 웜홀 : 창조적 스마트 연결(연결 통로)

시공간의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고차원 구멍이라는 의미로 시공간을 잇는 '시공간 통로'

도시 속 웜홀 찾기

-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웜홀 이동
- 웜홀을 통해 도시 속 낯선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낯선 곳은 평소 내가 이동하지 않는 곳, 내가 바라보지 않는 곳,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으로, 웜홀은 도시에 새로운 관점과 시선을 부여해준다.
- 도시 속에 있는 것(곳) 속에 없는 것(곳)과의 연결(아시아 연결)
 - ①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쿠알라룸푸, 홍콩 등 아시아 도시의 오래되고 깊은 공원의 연결
 - ② 송도의 직선의 길 안에 구불구불한 아시아 도시의 좁고 구불 구불한 골목길 연결
-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 연결 허브(글로벌 연결)
 - ① 송도 내 국제기구 '극지연구소'를 통해 연결되는 남극과 북극
 - ② 송도 갯벌을 통해 아시아의 철새의 낙원지로 연결(홍콩의 마이포 습지 등)

Songdo Wormhole: Creative Smart Connection (the passage)

A 'space-time passage' that connects space-time in the sense of a high-dimensional hole that connects different points in space-time.

Find a wormhole in the city

- Wormhole movement using technology
- You can move to an unfamiliar place in the city through a wormhole. Here, the unfamiliar place is a place I don't normally use for transferring, a place I don't look at, and a place I never thought existed, and the wormhole gives the city a new perspective and perspective.
- Connection with what is in the city (place) and what is not in the city (Asia Connection)
 - ① Central Park in Songdo and connection of old and deep parks in Asian cities such as Kuala Lumpur and Hong Kong
 - ② Connecting narrow and winding alleyways in Asian cities that are winding in a straight road in Songdo
- A smart connection hub that can move to another space (global connection)
 - ① The Antarctic and the North Pole are connected through the 'Polar Research Institut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Songdo.
 - ② Connecting to the paradise for migratory birds in Asia through the Songdo tidal flat (Hong Kong's Mai Po wetland, etc.)

계획도시에서 도시 장소성 만들기를 위한 예술의 역할

Before : 송도 리서치를 통해 나는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 시간의 겹이 없는 도시, 현재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도시
펜티멘토(Pentimento)가 존재하지 않고 평면만 보이는 도시에서
펜티멘토는 무엇인가?
- 계획된 도시-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이 존재하는 도시에서 도시의
시간성은 무엇인가?
도시의 국제성 혹은 국제도시는 무엇인가? 펜데믹 시대에 물리적
이동성이 불가능하면 “도시의 국제성, 국제교류는 어떻게 존재 할
수 있는가? 물리적 국제성보다, 사고, 태도, 관점이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 도시 공간과 건축의 배치와 사람의 움직임과의 관계성
나의 관찰 : 서울 상암과 경기도 동탄이라는 도시에서 안(Inside)을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외부(Outside)는 안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 공간의 안과 밖은 사람의 신체와 어떻게 연결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결국 공간이 사람을, 사람의 움직임을 만든다.

The role of art in creating a unique urban sense of place in a Planned City

Before: What am I asking through Songdo Research?

- A city without layers of time, a city where only the present time
exists
What is Pentimento in a city where there is no Pentimento and only
a flat view?
- Planned City - What is the temporality of the city in a city where
temporality exists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What is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or what is an international city?
If physical mobility is impossible in the era of the COVID019, “How
can the internationality of cit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xist?
Wouldn't it be more important in the realm of culture and art that
internationality is thinking, attitude, and point of view rather than
physical internationality? So how can this be realized in cities?
-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ace and architectural
arrangement and human movement.
My observation: I was able to observe the movement for the inside
of people in the cities of Sangam, Seoul and Dongtan, Gyeonggi.
The feeling that the outside exists for the inside. How can the
human body be connected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space?
People make space, but in the end, space makes people and
people's movements.

After: 첫번째 송도 방문 후

A. (매우 개인적인)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풍경과 인상들

시간	인상들
도착 후 오전/낮	도시공간: 동탄, 두바이, 주하이 - 어색함, Fake City, 모방, 색감, 그리고 황량함과 화려함
오후 / 저녁 무렵	자연: 바다, 자연, 낙조 - 평온함, 소리(파도 소리가 아닌, 공사 소리)와 새 소리 같은 갈매기 소리
밤	사람: 기온차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성 / 건축물의 거리두기 배치가 사라지는 느낌
밤 다시 아침	안개, 유유히 공간, 사라지는 도시 혹은 공간, 안개로 인한 거대 도시의 사라짐

B. 건축, 공간성

송도의 공간: 띄엄 띄엄, 뉴욕의 웅장한 건축물처럼 아파트의 웅장함 / 대로 - 도로 / 길이라는 표현 보다 도로, 대로가 맞는 표현, 걷는 도시는 절대 아님. 자동차 - 자전거

센트럴파크, 싱가포르 스카이라인 등 왠지 그 어디에서 본 듯함의 연속

경계 : 갈대숲, 섬 - 연결, 다리 건널, 경계, 갯벌, 이음 텃밭

옥련동 : 근대 - 80년대 혹은 90년대, 시장, 함박마을 - 고려인 마을, 90년대 아파트 문화, 교회의 수

C. 역사 - 시간의 변화 속에 인천과 송도의 국제성

근대 인천역사, 개항 - 국제성, 다국적-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능허대의 역사성 - 백제 사신, 고대 해상교역의 출발지

조계지 - 일제 강점기의 쌀과 소금, 병참기지

인천국제공항 - 이동성

After: After visiting Songdo for the first time

A. (very personal) landscapes and impressions of the city over time

Time	Impression
Morning/afternoon arrival	Urban space: Dongtan, Dubai, Zhuhai - awkwardness, Fake City, imitation, color, desolate and splendor
Afternoon / evening	Nature: sea, nature, sunset - serenity, sounds (not waves, construction sounds) and seagulls like birdsong
Night	People: Temperature difference, many people and the dynamism they create / Feeling that the distance arrangement of buildings disappears
Night after morning	Fog, milky space, vanishing city or space, the disappearance of a megalopolis in fog

B. architecture, spatiality

Space in Songdo: sparsely, like the grand architecture of New York, the grandeur of the apartment / boulevard - street, boulevard and road are suitable expression than road / it is absolutely not a city for waling car - bike

Central Park, Singapore Skyline, etc. A continuation of the feeling of seeing it somewhere else

Boundary: reed forest, island-connection, bridge crossing, boundary, tidal flat, joint garden

Ongnyeon-dong: Modern - History of the 80s or 90s, Market, Hambak Village - Goryeoin Village, 90s apartment culture, number of churches

C. History - The internationality of Incheon and Songdo amid the change of time

Modern Incheon history, port opening - internationality, multinational - China, Japan, Russia, England, etc.

Historicity of Neungheodae - Baekje envoys, the starting point of

D. 사람

- # 송도의 사람들
- # 옥련동 사람들
- # 함박마을 사람들

E. 영감

- # 길 - 대로, 걷는 길이 아닌 차나 자전거의 이동 큰길
- # 안개, 도시, 사라짐, 저녁과 밤의 공간
- # 경계 - 이동, 다리 송도와 옥련동 / 사람과 시간의 경계
- # 국제성

After : 주요 질문들

1. Synthetic city and Organic City

- # Synthetic city: 만들어진, 계획된 도시 / Manufactured and Planned cities (미국의 Foster City)
- # Organic city: 자연발생적,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도시 Organic, nature and calmness

파리의 경우도 19세기 도시계획 시작 후, 계획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의 재구조화, 즉 계획도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송도에서 느낄 수 있는 '차가운, 유기성을 느낄 수 없는, 만들어진 도시'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을까? 아니면 유기성은 시간이 경과 하면서 자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ancient maritime trade

- # Concession - Rice, salt, and logistical ba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Mobility

D. person

- # People of Songdo
- # People in Ongnyeon-dong
- # Hambak Village people

E. Inspiration

- # Road - A main road for cars or bicycles, not a road or walking path
- # Fog, city, vanishing, evening and night space
- # Boundary - Moving, Bridge Songdo and Ongnyeon-dong / The boundary between people and time
- # internationality

After: Key Questions

1. Synthetic city and Organic City

- # Synthetic city: Manufactured and Planned cities (Foster City, USA)
- # Organic city: A city where time overlaps with nature Organic, nature and calmness

In the case of Paris, after the start of urban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the city was restructured, that is, it became a planned city through the planned city design. Then, at that time, was the feeling that we can feel in Songdo today as a city made up of a city that does not feel cold and organic? Or did organic matter form naturally over time?

Q 무엇이 Synthetic 도시를 organic city로 만들어 주는가? 이것은 시간인가?

Q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술과 문화의 역할은? 만들어진, 계획된 도시를 문화와 예술은 어떻게 유기성을 제공 할 수 있을까?

2. 국제도시와 도시의 국제성

Synthetic City: 두바이와 아부다비 계획되어 만들어진 현대 도시 그리고 국제도시

Organic City: 런던, 파리, 뉴욕,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로 성장한 도시에서 "국제성", "국제도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Q 도시의 국제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뭘까?

송도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도시가 계획된다고, 우리가 현대 도시에서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국제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성,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를 국제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현대도시의 국제성인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는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2020 Global Cities Index: New priorities for a new world

Q What makes a synthetic city an organic city? Is this time?

Q So, what is the role of art and culture here? How can culture and art provide organicity in a created, Planned City?

2. International cities and the internationality of cities

Synthetic City: Dubai and Abu Dhabi planned modern and international cities

Organic Cit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city" in London, Paris, New York, cities that have spontaneously grown into cities in history?

Q What ar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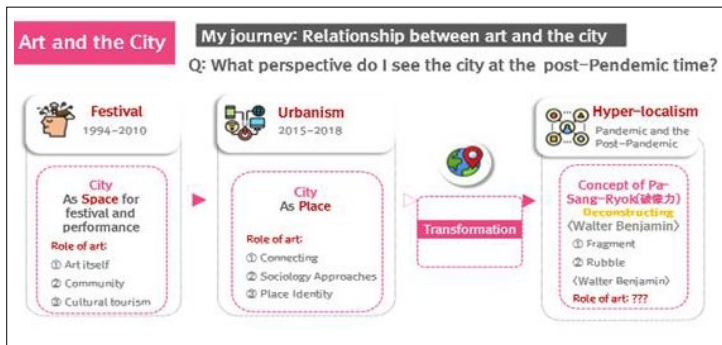
If a city is planned around infrastructure like Songdo, can we have internationality in a modern city and call it an international city?

Is it the internationality of a modern city to apply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and call a city an international city?

Kearney, a global consulting firm, published a report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and future prospects of global cities /*2020 Global Cities Index: New priorities for a new world

- 커니(Kearney)는 151개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ies Index, GCI)와 미래 잠재력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 전망(Global Cities Outlook, GCO)을 개발함
- * 글로벌 도시 지수(GCI)는 기업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환, 문화 경험, 정치적 참여 부문의 29개 척도를 바탕으로 함
- * 글로벌 도시 전망(GCO)은 개인적 삶의 질, 경제, 혁신, 거버넌스 부문의 13개 척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짐
- 분석 결과 2020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뉴욕으로, 가장 미래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는 런던으로 나타남
- * 글로벌 도시 지수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순으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나타냈으나 베이징이 9위에서 5위로 크게 순위가 상승하였음
- * 글로벌 도시 전망은 런던, 토론토, 싱가포르, 도쿄 순으로 나타나 토론토(11위→2위), 도쿄(6위→4위) 등의 선전이 눈에 띄었음
- * 한국의 유일한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전년의 13위에서 4계단 하락한 17위, 글로벌 도시 전망에서 전년의 44위에 비해 다소 상승한 42위를 기록함
- 보고서는 COVID-19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찾기 위해 도시 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 연결성을 향상 시키며, 도시 공간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포용성이 높도록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 KEARNEY developed the Global Cities Index (GCI), which evaluates the current competitiveness of 151 cities, and the Global Cities Outlook (GCO), which evaluates their future potential.
- * The Global Cities Index (GCI) is based on 29 measures of business activity, human capital, information exchange, cultural experience and political engagement.
- * The Global City Outlook (GCO) is based on 13 measures in the areas of personal quality of life, economy, innovation and governance.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w York is the most competitive city in the world in 2020, and London is the city with the most potential for the future.
- * In the Global Cities Index, New York, London, Paris, and Tokyo were ranked in the same order as the previous year, but Beijing rose significantly from 9th to 5th.
- * The global city outlook is in the order of London, Toronto, Singapore, and Tokyo, with Toronto (11th→2nd) and Tokyo (6th→ 4th) prominent
- * Seoul, the only global city in Korea, ranked 17th, down four places from 13th in the previous year, in the Global Cities Index, and ranked 42nd in the Global Cities Outlook, slightly up from 44th in the previous year.
- The report should focus on creating city value, enhancing international connectivity, and transforming urban spaces to be more sustainable, resilient and inclusive, in order to recover quickly from COVID-19 and find cities competitive. claimed to do



A Study of the Pa-sang-ryok(破像力) of Walter Benjamin 발터 벤야민의 파상력(破像力) 연구

3. 예술과 도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 - 발터 벤야민의 파상력

본 논문은 벤야민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사유의 역능으로서 '파상력(破像力)'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파상력은 부재하는 대상을 현존시키는 힘인 상상력과는 반대로, 현존하는 대상의 비실체성 혹은 환각성을 깨닫는 힘이다. 파상력은 또한 인식 주체의 내적 표상능력을 의미하는 상상력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영상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파괴하는 우상 파괴적 권능을 내포한다. 파상력의 근본 체험은 가상, 환상, 소망 등으로부터 폭력적 깨어남을 의미하는 각성(Awake)의 체험이다. 바로 이러한 파상력에 기초하여, 문에 비평, 번역, 글쓰기, 역사철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벤야민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정초하는데 이 방법은 소위 파괴와 구성의 변증법이라 명명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대상의 유기적 총체성 혹은 총체성이라는 가상을 파괴하고, 둘째 이처럼 파괴되어 파편으로 분해되어 흩어진 '폐허'에서 단편(斷片)을 수집하여 셋째, 이처럼 수집된 단편들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좌(Constellation) 혹은 배열(Configuration)을 구축하는 절차로 구조화되어 있다.

3. Art and the city: What is the role of art? - Walter Benjamin's Pa-sang-ryuk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 of Pa-sang-ryuk as the power of thought that constitutes Benjamin's theoretical system. Contrary to imagination, which is the power to bring an absent object into existence, it is the power to realize the non-substantiality or hallucination of an existing object. Contrary to imagination, which means the internal representational ability of the subject of perception, wave power also contains the idolatrous power to destroy the ideological effect of actual images in the real world. The fundamental experience of wave power is the experience of awakening, which means violent awakening from virtual, fantasy, and hope. Based on this very wavering power, in all areas of literary criticism, translation, writing, and philosophy of history, Benjamin founded his own unique methodology, which consists of a series of procedures that can be called the so-called dialectic of destruction and construction. Consists of. First, it destroys the object's organic totality or the virtuality of totality, secondly, it collects fragments from the 'ruins' that are destroyed and disassembled into fragments in this way, and thirdly, it builds the collected fragments and creates a new constellation (Constellation) or the procedure to build an arrangement (Configuration).

After : 발견 지점과 또 다른 질문들

-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본 리서치
- 국제도시의 표준과 기준
- 팬데믹과 도시: 휴먼시티
- 송도의 국제성
- 도시의 공간성과 장소성
- 송도의 장소성을 갖기 위한 질문들
- 다시 송도의 국제성에 대해 질문하기 : 예술의 역할이 될 수 있는 4가지
핵심 단어들(얽힘과 교차 / 시간의 연결성 / 공간 연결의 통로 / 정동)

After: Discoveries and other questions

- Research seen through the eyes of an outside observer
- International city standards and standards
- Pandemic and Cities: Human City
- Songdo's internationality
- Urban spatiality and spatiality
- Questions to have a sense of place in Songdo
- Asking again about Songdo's internationality: Four key words
that can play the role of art (entanglement and intersection /
connection of time / passage of spatial connection / affect)

3. 3부

워크숍

#지속가능한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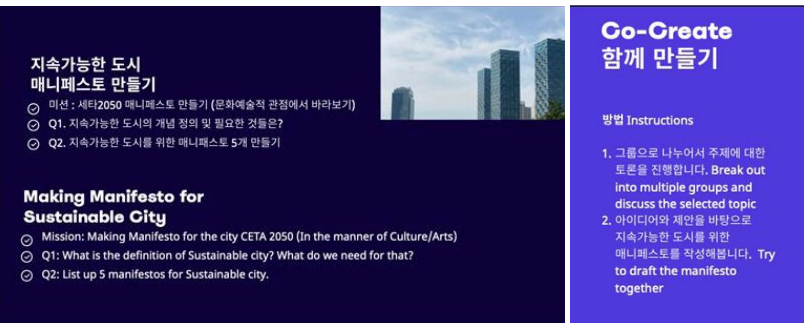
#신계획도시

#국제도시

#미래도시

#스마트도시

2022년은 신계획도시 '세타'가 만들어진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래도시 세타2050을 꿈꾸며, 도시의 매니페스토를 만들어 보기로 한다.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도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Group A

아이디어를 일부 공유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상상을 했다. 순차 통역이 진행되어 전체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정의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바로 매니페스토를 진행했다. 우선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봤다. 식량 생산의 문제라든지 탄소 배출의 이슈, 공해 없는 에너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조망되기도 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접근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기술 발전 등이 이루어질

3. Part 3

Workshop

#Sustainable City

#New Planned City

#International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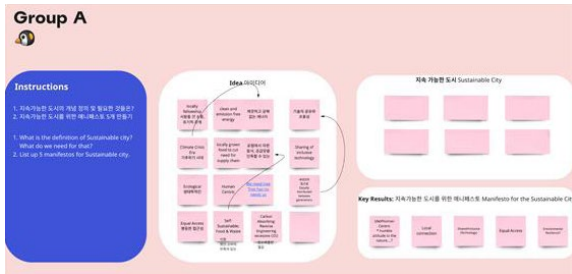
#Future City

#Smart City

2022 i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creation of the new planned city 'Theta'. Dreaming of the future city of Theta 2050, we decide to make a manifesto of the city. What do we need for a sustainable and vibrant city?

Group A

Sharing some ideas and looking at how those ideas are interconnected, I imagined a sustainable city. Because of the lack of overall time due to the sequential interpretation, the definition of a sustainable city boldly passed and proceeded directly to the manifest. First, in the idea stage, we looked at issue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we are experiencing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issues of food production, carbon emissions, and the possibility of pollution-free energy were also viewed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There was also talk of technology. Can the story of technology as a whole be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inclusion? There has been talk that it should not simply be aimed at a specific target but should be able to safely secure generational access across generations. In addition, in another layer, the idea of whether various actors in a city within the regio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whether it can form an organic relationship remained as an idea. Therefore, what has been abbreviated as a manifesto is the same



수 있는가? 단순히 그냥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서 세대적 접근성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더불어서 다른 레이어에서는 어떤 도시 내에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들이 아이디어로 남았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로 축약하여 정리한 것은 이미지와 같은 내용들이다.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면 제언과 인간 중심적이지 않아야 한다면 제언이 동시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공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다. 문장으로는 엉망일 수 있지만, (de)human centric으로 괄호 안에 de를 붙인 휴먼 센트릭이라고 했고, 그런 와중에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 의견이 같이 꼬리를 물고 달려 굉장히 복잡한 문장의 매니페스트가 첫 문장이 되었다.

지역 내의 연결성, 유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매니페스트였고 포용적인 기술 공유와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 번째 매니페스토로 정리 되었다. 앞선 것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매니페스토로 정리해보았다. 사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환경적인 탄력성, 회복성을 단어로 꼽았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놓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다. 회복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contents as images.

There was a suggestion that it should be anthropocentric and a suggestion that it should not be anthropocentric at the same time, so it seems that these two factors actually had to coexist. It may be a mess as a sentence, but (de) human centric, with a “de” in parentheses, was called human centric, and in the meantime, the manifesto of a very complex sentence with the same opinion that we should be humble in front of nature became the first manifesto.

Second, the need for connectivity and solidarity within the region was the second manifesto, and the need for inclusive technology sharing and inclusiveness was summarized as the third manifesto. It may be a littl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but equal access to resources is also the manifesto of a sustainable city. In fact, I think we need to discuss this word more, and we chose environmental resilience and resilience as words. However, it is also personally regrettable that the word recovery is now at the center. I think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take a more active action to make it so that there is no recovery.

Group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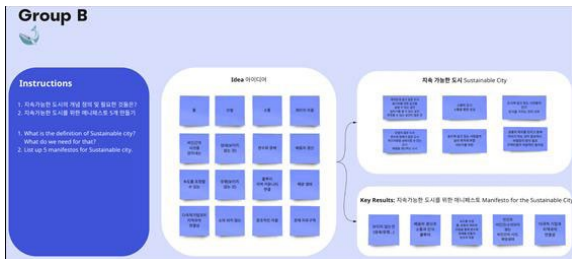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도시, 소통의 도시, 소통을 통한 상상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다시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모험이 많은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변수나 장애가 많은 도시, 매끄러움을 상실시킬 수 있는 도시, 또 배움을 다시 재경신하는 도시, 송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삶의 목적에 부합한 아이들을 위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동 화두를 던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송도에 거주하며 지역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께서 바텀업의 방식이 필요하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틈이라는 키워드, 모험, 소통, 재미, 리듬, 비인간의 시선을 담아내는, 또 냄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는 냄새와 유령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변수와 장애, 배움의 갭신, 풀뿌리, 지역 커뮤니티에 연결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송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 생태, 다국적 기업과 그 지역과의 연결성, 인간적인 또는 비인간적인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조적인 마찰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여기에 우리는 5개의 매니페스토를 만들었다.



Group B

For a sustainable city, it starts with how to renew the perceptions of citizens living in a city that wants to live fun, a city of communication, and an imaginary city through communication.

The story of a city that can lose people's learning, a city that renews learning, and a city for children where people living in Songdo meet the purpose of life, has emerged.

He said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raise a common topic and talk together, and the artist living in Songdo and working as a local artist told me that a bottom-up method is needed and the voluntary movement of local people is necessary.

The keyword gap, adventure, communication, fun, rhythm, and the part that captures non-human gaze and the part about smell are part of the invisible things. So, this keyword had parts about smells and ghost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talk about variables and obstacles, renewal of learning, grassroots, and connections to the local commun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ngdo, we talked about the marine ecology, the connection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region, and the parts in which all people, human or inhuman, are not marginalized. We also talked about how creative friction should happen,

Here we have created five manifestos.

첫 번째는 흥미진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냄새나 유령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배움의 갭, 소통과 인식의 풀뿌리에 대한 것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소통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이 자리 안에 또 다른 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틈을 만들어내고 모험과 재미의 리듬을 통해서 변수와 장애들을 만들어서 어떤 창조적 마찰들을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보통 속도를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인간 스스로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제어시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다.

네 번째로는 인간과 비인간,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과 비인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섯 번째는 다국적 기업과 지역의 연결성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기관을 어떻게 그 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연결성에 대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이렇게 다섯 개의 매니페스토를 도출해내었다.



The first is something that doesn't look exciting. So, it's a part about how we can discover things that don't reveal any smells or ghosts but are hidden in them. How will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what kind of ground the region has for the renewal of learning and the grassroots of communication and awareness? And how can our perceptions create other roots in this place? How can they be connected? There was a talk about how to create a certain kind of creative friction by creating gaps and creating variables and obstacles through the rhythm of adventure and fun. We usually find it very difficult to control our speed. However, there was a talk about how to control the speed quickly or slowly by humans themselves. Fourth, it was about human and non-human, non-alienated parts. Fifth is the part about the connectivity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regions. In the case of an international city, each institution or platform is taking place, but how can we connect the parts that are not actually connected to the region? We talked about the connectivity part. We derived five manifestos like this.

리서치 질문

Research Content

- Q 프로듀서로서, 예술가로서 도시를 보는 관점은?
- Q 도시와 예술의 관계성, 예술의 도시 안에서의 역할과 개입의 방식은?
- Q 열린 도시의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예술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 Q 도시 안에서 '예술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Q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계획된 도시에서 수많은 것들이 교차하고 들어오고 쌓이며 엮이는 혼종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의 다공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Q 시간의 겹이 없는 도시, 현재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도시, 펜티멘토(Pentimento)가 존재하지 않고 평면만 보이는 도시에서 펜티멘토는 무엇인가?
- Q 계획된 도시-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이 존재하는 도시에서 도시의 시간성은 무엇인가?
- Q 도시 공간과 건축의 배치가 사람의 움직임과의 관계성은?
- Q 사용자 친화적 기술이 주를 이루는 스마트 도시에서 시민은 주체적 사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 Q 도시의 국제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Q 송도에 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 Q 두바이, 아부다비, 송도, 계획되어 만들어진(Synthetic City) 현대 도시와 런던, 파리, 뉴욕,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Organic City) 도시로 성장한 도시에서 "국제성"과 "국제도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 Q 도시의 국제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뭘까?
1) Infrastructure 2) People 3) Value
- Q 송도처럼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도시가 계획된다고, 우리가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는 국제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국제적 기준일뿐 아닐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를 국제도시라고 부르는 것이 현대도시의 국제성인가?

- Q As a producer and as an artist, what is your view of the city?
- Q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art, the role of art in the city and the method of intervention?
- Q How can the intervention of art be made to pursue the structure of an open city?
- Q How is the expression 'artistic' revealed in the city?
- Q How can we create the porosity of the city as a hybrid space where so many things intersect, come in, pile up, and intertwine in a city that is not naturally occurring but artificially planned?
- Q What is Pentimento in a city where there is no layer of time, a city where only the present time exists, and a city where Pentimento does not exist and only shows a plane?
- Q What is the temporality of a city in a planned city—a city where temporality between present and future exists?
- Q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ace and architectural arrangement with human movement?
- Q How can citizens create independent thinking in a smart city where user-friendly technology is the main focus?
- Q What is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And how are international cities created?
- Q What were there before the city of Songdo was created?
- Q Dubai, Abu Dhabi, Songdo, planned modern cities(Synthetic City) and London, Paris, New York, cities that have naturally grown(Organic City) into cities in history. Can "internationality" be created in the "international city"?
- Q What ar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1) Infrastructure 2) People 3) Value

- Q 도시의 국제성 혹은 국제도시는 무엇인가? 팬데믹 시대에 물리적 이동성이 불가능하면 “도시의 국제성, 국제교류는 어떻게 존재 할 수 있는가? 물리적 국제성보다, 사고, 태도, 관점이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 Q 송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국제성은 무엇인가? 앞으로 인천/송도가 지향하는 국제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 Q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각 국제기구들은 어떤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 Q 송도라는 지리적 이점은 국제기구의 사업 목적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 Q 각 국제기구들은 어떤 국가/도시와 주로 연결되어 있을까?
- Q 각 국제기구들이 추구하는 바와, 송도라는 도시는 가치의 측면에서 닮아 있을까?
- Q 철새들이야말로 국제적인 존재가 아닐까? 어디서 와서,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로 가는가? 철새도래지로 송도의 국제적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가?
- Q 아시아적 맥락과 아시아 도시 연결의 필요성과 의미는?
- Q 우리는 왜 어떤 관점에서 서로 연결 짓고 있는가?



- Q f a city is planned around infrastructure like Songdo, can we have internationality in a modern city and call it an international city?
It only has the sty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at is, is it the internationality of a modern city to apply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and call a city an international city?
- Q What is the internationality of a city or what is an international city?
If physical mobility is impossible in the era of the COVID-19, “How can the internationality of cit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xist? Wouldn't it be more important in the realm of culture and art that internationality is thinking, attitude, and point of view rather than physical internationality? So how can this be realized in cities?
- Q What is international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ngdo? What are the potentials of Incheon/Songdo's internationality in the future?
- Q What is the core tasks of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located in Songdo?
- Q How does the geographical advantage of being in Songdo relate to the business goal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Q What countries/city are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inly connected with?
- Q Does the city of Songdo resemble what ea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rsues in terms of values?
- Q Are migratory birds truly international?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to stay, and where to go? Can we examine the international aspect of Songdo as the destination for migratory bird?
- Q What is the need and meaning of connecting Asian cities with Asian contexts?
- Q Why are we connecting with each other from any point of view?

레퍼런스 Reference

The Korea Times	Smart city expert unimpressed with Songdo (Nov, 2019)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08/371_278300.html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08/371_278300.html)
유튜브	Smart Cities – Building for the Cities of Tomorrow (Documentary,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swlHxwgmDY Song do: Go Inside The City Of The Future https://www.youtube.com/watch?v=3ZKtr7vU5cl How South Koe Built a City Out of The Sea https://m.youtube.com/watch?v=vrlI3VRGI-w&feature=youtu.be
Bloomberg CityLab	Sleepy in Songdo, Korea's Smartest City The hardest thing about living in an eco-friendly master-planned utopia? Meeting your neighbors. (June, 201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6-22/songdo-south-korea-s-smartest-city-is-lonel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6-22/songdo-south-korea-s-smartest-city-is-lonely
Onezero	Death of a Smart City https://onezero.medium.com/how-a-band-of-activists-and-one-tech-billionaire-beat-alphabets-smart-city-de19afb5d69e
계획	송도 방문지 리스트업 https://m.place.naver.com/my/place/detailList/bee0bfe5b07b4c14891a3e085a7940a1?external=true
방문지	극지연구소 https://www.kopri.re.kr 생태교육관 https://www.ifez.go.kr/tour/cul221
연합뉴스	인천 송도갯벌 생태계 변화...연구·환경단체 '촉각' https://m.yna.co.kr/amp/view/AKR20131128135900065 '세계가 숨신다' 송도국제도시...곳곳 최고·최장·최신 https://m.yna.co.kr/view/AKR20150624111600065
기호일보	송도갯벌이 마주한 개발과 보존의 모순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850

인천투데이	인천시, 해양생태계 보전 중장기 계획.. 4390억 투입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50 인천시, 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적극 나서야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64
다음블로그	인천 송도의 마지막 갯벌 송도 11-2공구 매립공사 연말(2019) 준공 https://m.blog.daum.net/grengill/3861 송도 생태계 변화 관찰 https://m.blog.daum.net/ljwon7707/16373891
현대일보	송도갯벌 생태계 복원 청신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재 http://www.hyund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179
글로벌 허브도시 인천	'여의도 두 배' 송도 국제업무단지, 세계 각국서 벤치마킹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92650051
인천일보	송도 갯벌 ...그러던 어느 날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741
미디어뉴스	송도갯벌, 생물다양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http://m.media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3
환경한 생활	평균파사 이원영"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법"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94
인천일보	송도 국제도시에 사는 사람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160
한겨레	미래 도시의 네 가지 열쇳말...포용성, 공공성, 창발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9246.html

2021 연수문화재단 국제교류 사업
‘커넥티드 시티 - 송도 프로젝트’

발행일 2021.12

발행인 임철빈

발행처 연수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별관 3층 연수문화재단

www.ysfac.or.kr

참여단체 프로듀서 그룹 도트

협력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APP)

2021 연수문화재단 국제교류 사업
'커넥티드 시티 - 송도 프로젝트'